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존 스타인벡 작품에 나타난  
성의지(性意志)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은 진

존 스타인벡 작품에 나타난  
성의지(性意志) 연구

A Study on Sexual-Will in the Works of John Steinbeck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은 진

# 존 스타인벡 작품에 나타난 성의지(性意志) 연구

지도교수 최 한 용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은 진

## 김은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     |       |      |            |     |
|-----|-------|------|------------|-----|
| 위원장 | 조선대학교 | 명예교수 | <u>강정석</u> | (인) |
| 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조동열</u> | (인) |
| 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임경규</u> | (인) |
| 위원  | 동양대학교 | 교수   | <u>임영</u>  | (인) |
| 위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최한용</u> | (인) |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II. 『몬트레이의 철학자들』: 성의지의 예술성 .....    | 11 |
| A. 스타인벡과 캠벨의 성의지 발견 .....           | 12 |
| B. 성의지의 예술적 재현과 전체론 .....           | 18 |
| III. 『미지의 신께』: 성의지의 원시성 .....       | 26 |
| A. 제퍼스의 비인간주의 .....                 | 28 |
| B. 비목적론 사상 .....                    | 37 |
| C. 쇼펜하우어, 제퍼스 그리고 스타인벡 .....        | 46 |
| IV. 『긴 골짜기』: 성의지와 이성 .....          | 48 |
| A.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과 성의지 .....       | 50 |
| B. 「갈색 종마」에 투영된 스타인벡의 성의지 .....     | 53 |
| C. 「뱀」과 「국화」에 나타난 성의지의 양상 .....     | 59 |
| D. 「하얀 메추라기」와 「하니스」에 나타난 성의지의 양상 .. | 65 |
| V. 『변덕스런 버스』: 성의지와 여성혐오주의 .....     | 70 |
| A. 성의지의 표상 .....                    | 72 |
| B. 『변덕스런 버스』에 대한 여성혐오주의 논란 .....    | 80 |
| C. 성의지의 종족보존 목적성에 의한 주의주의 .....     | 84 |
| VI. 결론 .....                        | 91 |
| 【참고문헌】 .....                        | 97 |

## ABSTRACT

### A Study on Sexual-Will in the Works of John Steinbeck

Kim Eunjin

Faculty Advisor : Prof. Choe Han-Yong, Ph.D.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to discuss John Steinbeck's Sexual-Will based on his biographies and his works, *To a God Unknown*, four stories in *The Long Valley* - "The Snake," "The Chrysanthemum," "The White Quail," and "The Harness" and *The Wayward Bus*. A pessimistic philosopher Schopenhauer is known to have opposed the optimistic ideas emphasized by the German idealists of the 19th century such as Fichte, Shelling, and Hegel. His approach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 of the metaphysics of reason which had been more prevalent since Kant's *The Critique of Pure Reason* because he suggested that will-to-live should be substituted for reason, corresponding to Kant's thing-in-itself or Plato's form. Especially Sexual-Will, to his eyes, reveals the innermost essence of everything in nature as one of the most strengthened instincts, whose causal nature is not etiologically explicable, creating not a little hostility among intellectualists.

Also, Steinbeck's pantheistic view and inhumanism, a unique ecological idea,

made by the poet Robert Jefferson, who lived in the same region are the backgrounds of *To a God Unknown*, which, I insist, made the critics at that time confused and gave them a subjective impression. All these facts share Arthur Schopenhauer's irrationalism that was about one hundred years prior to them, which is greatly interesting and also help to understand the works of great men in America, such as Steinbeck, Campbell, and Ricketts.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Carol and Campbell's love affair based on the texts of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and explore Jeffers' inhumanism in light of prior studies. Next, I will interpret the irrationalism of sexuality from the angle of Jeffers' ecology as a natural phenomenon centralized on the text of *To a God Unknown*.

I draw a distinction between reason and Sexual-Will by referring to Schopenhauer's philosophical theory and illuminate what aspects Sexual-Will shows to reason by observing four short stories—"The Snake," "The Chrysanthemums," "The White Quail," and "The Harness." Through this analysis, in "The Snake" and "The Chrysanthemums" have the situations where Sexual-Will bursts forth in the space controlled by reason in the name of cold practicality and science. Also, "The White Quail" and "The Harness" show the appearance that Sexual-Will repressed by the power of reason gives the characters suffering and agony.

And also I aim to illuminate its truth by observing the characters' Sexual-Will in John Steinbeck's *The Wayward Bus*, which has been criticized as based on misogyny. As a research method, we introduce the controversial texts of this novel and then discus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so far. They are about the biographical evidence that the writer had a stormy marriage life with his wife of the time and the opinion that the work is centralized on the sexual selection theory. Considering that Steinbeck treats the ten characters' Sexual-Will and their representation, the sexual desire, almost equally in this book, we interpret them in the light of Arthur



Schopenhauer's will-to-live and Friedrich Nietzsche's will for power, who are voluntarism philosophers. Through this analysis, *The Wayward Bus* is proved to describe human nature without any adjustments against the capitalistic ills with which the American society was pervaded right after World War II rather than being merely caused by the writer's misogyny.

Schopenhauer's theory of Sexual-Will is found to account for irrational human acts behind reason and emphasize a sort of asceticism by acknowledging and looking to its destructive power. And the essential of Sexual-Will is the desire of the human Will-to-live. And he explains that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as the sexual impulse in general, and without mentioning a particular partner of the other sex, is called the will-to-live. But what appears in consciousness as the sexual desire, directed to a specific individual, is in itself the will-to-live as a precisely determined pers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will of Sexual-Will comes from the desire and sexual desire is like the life force. Humans are living present lives only with what they have. In this dissertation, I suggested the difference of Sexual-Will and sexual desire. And it can be seen that sexual desire is simply physiological instinct opposed to metaphysics of birth-and-death law, while that Sexual-Will is the motive power for humans to live by idealizing sexual desire. However, human reason lets humans be dominated by reason which considers Sexual-Will immoral, and that causes people to be occupied with agony. But it can be said that since humans have love and affection, Sexual-Will is ahead of reason.

## I. 서 론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은 캘리포니아 살리나스에서 1902년 태어나 자랐으며, 1968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스타인벡 대부분의 작품들은 비옥한 마을이었던 캘리포니아 살리나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묘사된 자연의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다(Blake 133). 스타인벡은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했으나 문필 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여 중퇴한 후 뉴욕으로 와서 신문기자가 되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무시한 채 주관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1930년대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물질을 누렸던 1920년대와는 달리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하여 미국인들의 의식에 물질적인 궁핍과 절망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시대였다. 스타인벡은 농장 일꾼, 도로공사 인부, 도장공 등 다양한 막노동 일을 하면서 당시 미국인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서민들과 하층민들의 소박한 아름다운 인간상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Fontenrose 3).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인벡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형성했고, 1930년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깊은 철학적 통찰을 지녔으며 이 철학적 요소는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적 관심과 더불어 그의 작품에 잘 담겨있다.<sup>1)</sup>

이처럼 스타인벡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당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병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으며, 좌절감과 빈곤, 그리고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문명이 가져온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하는 인본주의적인 중심에 서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타인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서술한 사회주의, 자연주의, 또는 생태주의 소설가로 평가된다.<sup>2)</sup>

1) 스타인벡은 “나의 모든 작품의 동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my whole work drive has been aimed at making people understand each other)이라고 자신의 문학적인 동기를 밝히고 있다(Benson, “JS” 92). 제임스 그레이(James Gray) 역시 스타인벡을 “인간 삶의 존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consistent effort to establish the dignity of human life) 휴머니스트라고 평하고 있다(207).

또한 미국 스타인벡 학회의 설립자인 테즈마로 하야시(Tetsumaro Hayashi)<sup>3)</sup>는 스타인벡의 작가 역량을 높이 칭송하며, 그의 문학적 본질을 매우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완벽한 작가적 역량, 둘째, 선 대 악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대 운명, 셋째, 인간의 본성을 유머와 안전을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작가적 태도, 넷째, 독창적이고 매혹적이며 다양한 모형적 인물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미국의 해설자이자 대중 철학자라고 개괄한다(최한용 2, 재인용).

시간이 흐르면서 스타인벡은 그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사회문제에서 철학적 인식으로 옮겨갔으며, 이러한 주된 관심사의 변화는 그에 대한 비평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글로리아 가이더(Gloria Gaither)는 스타인벡을 “사회 개혁가로서든, 예술가, 작가, 여행가, 또는 해양생물학자로서든 그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철학가로서의 스타인벡에 대한 깊은 인간과 진정한 이해 없이는 제대론 된 논의가 될 수 없다”(“BT” 43)고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과 특정 출처에서 유래한 철학을 소설작품에서 역순으로 추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작업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Benson, TWA 233). 그러한 시도는 스타인벡에게서 실제로 작가의 사상에 영향을 준 출처가 아닌 비평가 본인에게 익숙한 출처를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인벡이 가진 철학 사상과 인식에 대한 문학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up>4)</sup>

- 
- 2) 스타인벡의 전기적 사실을 근거로 그를 생태주의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조셉 폰테로즈(Joseph Fontenrose)가 “스타인벡의 세계관을 생물학과 신화가 형성했다”(139)고 했을 만큼 생물학과 신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이는 그의 친구 해양생물학자인 에드 리케츠와 신화학의 권위자인 조셉 캠벨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타인벡은 인간과 생물을 하나의 집합체로 보고, 인간(생물)과 환경이 하나 됨을 나타내며,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형상화 한 군집 사상(phalanx theory), 즉 그룹맨 사상(group-man theory)은 그의 처녀작 『황금의 잔』(Cup of Gold), 『미지의 신께』(To a God Unknown), 『또띠야 평야』(Tortilla Flat), 『의심스런 싸움』(Dubious Battle)에서 나타나며, 이 사상 또한 그의 친구이자 해양생물학자인 리케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teinbeck, Letters 74-82).
  - 3) 그는 스타인벡을 주제로 미일 공동 학술 대회를 일본과 미국에서 개최한 후, 『존 스타인벡—동양과 서양』(John Steinbeck: East and West)(1978)로 엮어냄과 동시에 학술지인 『스타인벡 학술지』(The Steinbeck Quarterly)를 창간해 일본 내에서의 스타인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본(계) 학자들의 스타인벡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스타인벡의 연구는 동양, 특히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4) 프레드릭 브라커(Fredric Bracher)라는 1940년대의 비평가부터 하워드 리반트(Howard Levant), 조셉 폰테로즈(Joseph Fontenrose) 그리고 Thomas De Gregori(토마스 드 그레고리)와 같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점차 사회 곳곳에 만연하게 되어 물질이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성 상실의 풍조, 순간적인 쾌락주의 등이 범람하는 혼란의 시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인들의 삶은 배금주의라는 개인주의적이고 매우 과도한 물질과 관념을 추구했다. 20세기 초까지도 사람들은 19세기의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명과 성의 문제를 민감하게 고민했던 몇몇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성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사회적으로 독자들에게 외면과 비난을 받았다.<sup>5)</sup>

스타인벡의 소설에는 여성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가진 다분한 매력은 주변의 남성 등장인물들의 더욱 견고한 매력의 그늘에 가려진다. 또한 그의 전 작품의 여성 등장인물은 거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나 매춘부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소설 세계에서 여성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Lisca, *WW* 206-207).<sup>6)</sup>

스타인벡의 모친인 올리브 해밀턴(Olive Hamilton)은 예민하고 소심했던 어린

---

1970-80년대 비평가들은 스타인벡을 사회주의자, 생태주의자 및 자연주의자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최근 21세기에 들어서 글로리아 가이더(Gloria Gaither), 조이스 모스(Joyce Moss)와 조지 윌슨(George Wilson)이 스타인벡의 작품을 현대의 개인주의, 자율성 및 개인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Gaither, "MA" 54; Moss and Wilson 34-37).

- 5) 이와 같은 점은 스타인벡과 더불어 동시대 미국문학의 거장이며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식되어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특히 그 시대에 금기시되던 성적인 것을 작품에 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개척자들이다. 그들은 억압으로 인한 성 담론을 활발하게 다루었고, 성 담론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해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포크너의 『성역』(*Sanctuary*), 그리고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는 그 당시 고등학교 도서관 금지 도서들이었으며, 심지어 작가들의 가족들조차 성적인 내용을 과감하게 표현한 그들의 작품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벡의 두 번째 부인 권돌린(Gwyndolyn)의 어머니이자, 그의 장모였던 휴잇(Hueit)여사는 그의 책을 저급하게 취급했고(Parini 368), 포크너의 아버지는 미시시피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한 여대생이 『성역』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한번은 호되게 꾸짖기까지 했었으며, 헤밍웨이의 어머니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라는 작품을 외설적이라고 생각했다(Gladstein, *WW* 102).
- 6) 스타인벡은 그의 소설에 대개 사회에서 소외된 부랑자, 저능아, 매춘부 등을 등장인물로 삼아, 그들이 사회와 조화롭게 융화되지 못하고 파멸되어 가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된 인간상을 지적한다.

아들 스타인벡을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이에 대해 스타인벡의 한 이웃은 “그녀[올리브]는 자신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하도록 부단히 독려했지만, 그에 대해 항상 실망하였다”(Mrs. Steinbeck was always despairing about her son, trying to achieve more than he did)고 말한다(Parini 24). 올리브는 그의 단편 「붉은 망아지」(“The Red Pony”)의 티플린 부인(Mrs. Tiflin)처럼 자신의 아들을 향한 강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아들을 통해서 채우려 했고, 그로 인해 스타인벡은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무언가를 이루어 내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그가 쓴 모든 책은 그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스스로가 수종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그의 모든 에너지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을 일관되게 자책하면서, 진실 된 애정과 존경심이 뒤섞인 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분개에 그 기원을 두고 여성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동시에 스타인벡은 어머니처럼 강한 여성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와 두 명의 전처들로부터 받은 막대한 영향을 그의 작품 세계를 형성함에 있어 깊게 스며들었다.

20세기 미국의 소설가들 중 스타인벡보다 더 다양한 주제들을 작품화한 작가는 드물 것이며, 그만큼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한 경우도 흔하지 않다. 이 작가의 창작세계를 약술하자면 반자본주의적 중농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인도주의적 애국주의, 윤리적 실용주의, 신중한 간섭주의와 생태를 존중하는 자연주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스타인벡은 여성을 비하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저술하였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여성의 성의지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또띠야 평원』(*Tortilla Flat*)의 테레시나 코르테즈(Teresina Cortez)는 남성들에게 너무나 쉽게 몸을 허락한 까닭에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애매한 아홉 명의 자식들을 기른다. 또한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에서 레니(Lennie)와 조지(George)의 우정을 파국으로 몰고 간 컬리(Curley)의 아내는 모든 남자들을 유혹하는 요부로 등장하고, 작가는 그녀에게 이름조차 할애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인벡의 출세작인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의 마지막 장면에서 로자산(Rose of Sharon)이 굶어 죽어가는 한 남성

의 입에 그녀의 젖을 물리는 감동적인 행위마저 외설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0세기 서구사회는 이성적인 합리성을 우위에 두었지만,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에서 인간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무자비함을 목격하고,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로 이성에 대한 불신, 혹은 더 나아가 비이성주의적인 철학의 부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실존주의라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작가 스타인벡과 시인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sup>7)</sup>의 작품에서 비이성주의로 나타났다. 스타인벡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이성에 대한 불신은, 비이성주의적인 전통은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에서부터 찾을 수 있고, 제퍼스는 그의 시의 주제들을 비인간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쇼펜하우어와 제퍼스는 모두 서구의 이성주의적인 전통에 대한 일종의 반기를 든 사람들로서 인간 본연의 본질을 중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인간주의 역시 인간의 본질을 이성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비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위적인 문명과 자본주의화 된 문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인간주의라는 말이 인간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일체의 사회문화적인 억압을 의미한다면, 비인간주의는 그런 모든 억압을 부정하고 본연의 초월적인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문명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영원한 억압에 기초하고 있다”(civilization is based on the permanent subjugation of the human instincts has been taken for granted)<sup>(3)</sup>는 프로이트의 현실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그의 저서 『에로스와 문명』(*Eros and Civilization*)에서 문명 속의 성

7)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는 20세기 미국 모더니스트 시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무시를 받는 저평가된 시인이다. 제퍼스는 현대 문학 비평에서 소외된 채 저평가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걸쳐 19권의 주저들을 출판하였다. 제퍼스는 참다운 인간성은 겸손함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의 터줏대감이었던 생태시인 제퍼스는 현대 문학 비평에서 소외된 채 저평가된 시인이지만, 제퍼스가 생각하는 인간성의 기반은 겸손이다. 따라서 그는 그 스스로를 ‘비인간주의자’(Inhumanist)라고 선언하였으며 그에 대해 ‘비인간주의’(Inhumanism)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고, “인간으로부터 비인간으로,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유아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초월적인 웅장함에 대한 인식으로의 강조와 중요성의 전환”이라고 기술한다.(Jeffers, PRJ 428)



적 욕망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성으로는 자유를 이루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will-to-live)가 이성보다 앞선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지는 시간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Will has no power over time)(120)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 지나지 않으며,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의지는 시간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수이다. 과거는 해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해방을 약화시킨다. 삶을 지배하는 시간의 힘이 파괴되지 않으면 자유는 있을 수 없다. . . . 억압과 박탈이 긍정되고 인정되었다.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오만하고 공격적인 힘들이 그것들로 만들어진다. . . .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어떠한 자유도 문화의 억압적 기초를 바꿀 수 없다.

Will is still a prisoner because it has no power over time: the past not only remains unliberated but, unliberated, continues to mar all liberation. Unless the power of time over life is broken, there can be no freedom. . . . Repression and deprivation were thus justified and affirmed; they were made into the masterful and aggressive forces which determined the human existence. . . . There is no spiritual and transcendental freedom can compensate for the repressive foundations of culture. (Marcuse 120)

성적인 문제는 종족보존의 숭고함과 인간성 파멸을 초래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문명은 성욕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오히려 본연의 자연적 욕구를 표면적으로는 금기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을 억압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성의지가 문명의 규범과 도덕률에 의해 지나치게 억압되는 현상은 적어도 인간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는 자연스럽게 표출하고자하는 성의 욕망, 성적인 것에 부여하는 의미, 그것으로 표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에너지를 필자는 ‘성의지’(Sexual-Will, 性意志)<sup>8)</sup>로 규정한다. 우선 성의지

8)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성의지’라는 단어를 도출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개개인의 관계에서 느끼는 성적인 욕망과는 다른 의미로 쓰고자 한다. 성적인 욕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의지는 세대나 종족의 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의지는 “무목적적이며, 무시간적 활동으로, 있는 것 그 자체”(The pointless arena makes no sense to ask what Will is aiming for. It has no aim)(Wicks 14)로서 무시간적 본능에 해당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 이는 몸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감정의 승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의지는 정신이나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육체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는 의지(승화된 감정)와 이성의 대립으로 되어있다. 결국 인간의 삶은 내재적 의지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이성은 제도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속박한다. 하지만 삶의 의지는 신체와 매우 연관성이 강해서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아예 몸이 의지 그 자체라고 한다.<sup>9)</sup> 다시 말해서 그에게 성의지는 삶의 의지를 성적인 관점에서 말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성의지는 무시간적 본능에 해당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은 오로지 음식과 종족보존의 욕구로서 성의지를 가지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신과 동물의 영역사이, 즉 이성과 감성의 대결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의지가 이성에 앞선다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입각하여 스타인벡의 작품을 접근하고자 한다.

인간은 성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종족번식이라는 운명을 짊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의지]을 초월하여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생한'(raw) 또는 '순전한'(sheer) 의지력을 말할 때는 그것이 바로 이 '의지'의 이면에 있는 성질인 것이다(Wicks 1). 이것은 성(sexuality)으로 바꾸면 보면, 누구와 사랑하고 싶다면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생생하고 때 묻지 않은 성적인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잠재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것, 또는 결핍된 비개인적인 의지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서 성의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적 행위로 인한 황홀함을 연상케 하며, 만약 이런 것이 옳다면 이러한 성의지는 반드시 일대일의 공식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관계에 따른 제약은 대단히 부자연적인 것이다.<sup>10)</sup> 다만,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자녀와

9) 쇼펜하우어는 '이성'보다 '의지'를 절대진리로 여기되, 그 삶의 의지의 과도한 힘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한다. 니체는 형이상학을 부인하지만, 쇼펜하우어와 동일한 부분은 의지를 이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쇼펜하우어는 성의지(삶의 의지를 성적으로 바라본 용어)를 형이상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바는 성욕(Sexual Drive)이며, 그것은 이미 의지가 재현(Representation)된 것으로 파악을 하는 반면, 니체는 형이상학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성의지의 존재를 몸에서 발생하는 성본능 즉 성욕으로 이해하게 된다. 신체야말로 우리의 존재이며, 이성, 육체, 의지를 포함하는 통일체이다. 또한 니체는 인간을 정신적 존재가 아닌 육체와 정신이 함께 하는 커다란 신체로 인식함으로 인해 존재 전부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육체와 육체의 감각적 쾌락을 억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자학행위와 다름없음이다.



부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난잡한 육체적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의 배출구가 하나 이상이 되는 인간의 성의지는 겉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성의지의 표상적 양태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의 사랑, 남자가 남자에 대한 우정 또는 개인이 전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바치는 희생정신은 사랑하고, 그 대상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강한 내적 욕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규범인 이성에는 이것에 대해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를 한다거나, 심지어 이에 어긋난 경우에는 심각한 비판을 가하는 점으로 보아 결국 인간은 괴로워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나르시시즘이며, 이것은 은밀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판이 용이하지 않다. 대부분의 이것은 실제와 다른 자기 스스로 만든 허구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변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 몰래 상상하고 있는 사람과 섹스를 하는 꿈을 꾸다거나, 아니면 자위를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의 심리적 형태이므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자위적 행위가 심해졌을 때는 정작 실제의 인간과는 육체적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고, 심지어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격리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 이쯤 되면 이성이라는 굴레가 원시적인 의지의 소유자인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예로 『황금의 잔』(*Cup of Gold*)에서 헨리(Henry)에게 있어 그가 어릴 적 사랑했던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완전한 자기애의 대상에 불과하며, 스타인벡은 이러한 점을 소설화 하려고 노력했다.

성의지는 거꾸로 또 다른 의지로 제어가 가능하며, 이 때 고행이 수반된다. 다만, 이성이라는 다른 수단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때, 즉 타인이 강요한 경우에는 그 통제력의 한계가 있게 된다. 이때는 고행이라기보다는 고통인 것이 된다. 다

---

10) 문명의 질서가 인간의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부일체제이다. 그 예로, 『긴 골짜기』(*The Long Valley*)의 네 편의 작품들(「뱀」, 「국화」, 「하니스」, 그리고 「하얀 메추라기」)에 나타난 근본취지는 쇼펜하우어가 기존의 이성중심에서 의지중심으로 이론을 펼쳤듯이 스타인벡은 네 편의 단편에서 이성과 문명의 제도, 특히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시스템인 결혼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야성적이고 파괴적인 성욕을 표현했다.

시 말하면 구속인 셈이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 배반하는 행위는 또는 그러한 불륜적인 마음은 자신의 의지에서 출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신뢰와 더 나아가 육체적 만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조란 타율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핵심은 의지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의지의 압력, 즉 하고자 하는 바를 최소화하게 되면 신비스럽고 해방감을 주는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Wicks 5). 이 부분에서 이성의 형이상학과 다른 점을 파악하는 데, 이성은 권위적이지만 의지는 통제가 가능한 자연의 일부이고 결국 반의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성의 형이상학은 이성에 절대 규범적 가치를 두고 있는 까닭에 언제든지 세상은 그것에 통제되어 올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선형적 구도의 사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시공간의 보편적인 토대로서 자기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는 비이성적 세계를 형성하는 자여서 그의 염세주의는 모든 생명체에게서 비롯되는 형태를 전제로 하였다. 그것은 생물의 종의 형태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생명에 대한 보편적 열정인 동시에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무한히 많은 생명체의 양태인 것이다. 이러한 태고 때부터의 열정은 일종의 눈먼 의지(blind will)로 표현될 만하며,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그것이 '삶의 의지'(will-to-live)이며 그것은 생명을 위한 절대적인 소망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삶의 의지를 구현하고 있는 개인의 원리가 바로 생명체, 즉 의지이며 이것의 본질적인 성격은 존재하는 가운데 인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애[성의지] 즉, 사랑과 성에 대한 논의는 수많은 희곡과 대부분의 서사시의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의지의 가장 완전한 표현으로서 삶의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 지는 것이 성의지이며, 이것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Schopenhauer, *WII* 535).<sup>11)</sup>

따라서 이 논문은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현대산업문명에서 성의지의 희생이 인

11)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신 엘로이즈』(*La Nouvelle Héloïse*)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Werther*)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랑과 성의 문제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간의 영혼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돌파구로 진단하여 스타인벡 소설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통해 그의 주제의식을 어떻게 묘사하고 제시하는 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논문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작가의 성의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주요 작품들을 성의지 이론에 입각하여 『몬트레이의 철학자들』(*The Philosophers of Monterey*), 『미지의 신께』(*To a God Unknown*), 『긴 골짜기』(*The Long Valley*), 『변덕스런 버스』(*The Wayward Bu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 『몬트레이의 철학자들』의 중심 내용인 캐롤과 캠벨의 불륜적 관계를 본문에 의거하여 소개하고, 스타인벡의 전기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함축된 성의지의 개념을 고찰하여 이후 생산된 작가의 성에 대한 사고를 미리 조명한다.

III장에서 『미지의 신께』를 중심으로 스타인벡의 전기적 사실과 작가의 범신론적 견해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성의지가 가진 비이성성을 로빈슨 제퍼스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비이성주의를 공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성의지라는 사상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 쇼펜하우어가 소개한 삶의 의지들 중 가장 뚜렷한 양태를 드러내는 성의지가 인류전체의 보편적인 자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런 점에서 내면적인 성의지가 의식의 단계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사고 과정들 보다 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 형이상학에 기초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성애를 소재로 이성과 성의지를 구별하고, 성의지가 이성에 대해서 어떠한 양태들을 보이고 있는 지를 스타인벡의 단편 소설집 『긴 골짜기』에 담긴 「뱀」(*"The Snake"*), 「국화」(*"The Chrysanthemums"*), 「하얀 메추라기」(*"The White Quail"*) 그리고 「하니스」(*"The Harness"*)와 더불어 로빈슨 제퍼스의 장편 시 「갈색 종마」(*"Roan Stallion"*)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변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성의지를 고찰하여 그 진상을 조명한다. 작품에서 여성혐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난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텍스트들을 소개한 후, 그동안 주장되어 온 비판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작가가 당시 아내와 험난한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전기

적 근거와 작품 내용이 성적 선택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 이 작품에서 스타인벡이 열 명의 등장인물들의 성의지와 이것의 재현인 성욕을 내면적으로 골고루 묘사하고 있는 점은 감안하여 이것들을 주지(主知)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성의지와 니체의 역능의지(will-for-power)의 학설을 원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 II. 『몬트레이의 철학자들』: 성의지의 예술성

2010년에 마이클 제롬 한슨(Michael Jerome Hanson)이 출간한 『몬트레이의 철학자들: 존 스타인벡, 조셉 캠벨 그리고 에드 리케츠의 알려지지 않은 우정』(*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 Ed Ricketts*)<sup>12)</sup>은 20세기 미국 현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세 인물들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전기적 사실들을 심하지 않은 허구적 구성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존 스타인벡과 신화론의 대가인 캠벨 그리고 비목적론으로 유명한 생물학자 리케츠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풋내기 학자들이지만 각자의 학문영역에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당시 스타인벡의 아내인 캐롤과 캠벨의 부적절한 관계를 픽션적 긴장으로 삼아 성의지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외도의 정도와 진실여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은 이후 스타인벡이 보인 작품들에서 성의지 주제가 유난히 돋보인 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비록 전기적 사실과 문학적 표현간의 엄밀한 분리가 되지 않은 점이 없지 않지만, 이 책에서 다루어진 성의지 개념은 세 사람들이 공유한 전체론적이고 비목적론적인 것으로서 보편적인 수준에서 하나의 예술적 가치로 승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적 뉘앙스는 쇼펜하우어 이후에 강화된 주의(主意)주의적 경향에 가까운 바가 많다. 즉 성의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완벽하고 무시간적인 형

12)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TPM로 약칭하고, 인용 시 괄호 안에 약칭과 페이지 수를 명기하기로 한다.

상의 직접적인 재현이면서 극도의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상의 세계에 그친 단순한 성육과 구별된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제1권 제3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의지는 의지의 예술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예로서 플라톤의 형상과 대등한 지위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플라톤의 눈에 성의지는 등급화 된 이데아의 세계의 높은 곳에 위치한 사물의 재현인 것인 반면 쇼펜하우어에게는 단일한 무시간적 존재가 일시적으로 객관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의지를 생성소멸의 법칙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주의주의적 입장에서 성의지는 아름다움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형이상학적 영감으로서 실용적이거나 미래에 연연하거나 이기적인 태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의지는 자기 충분율(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영원한 현재(eternal now)에 해당하는 불멸의 상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성의지의 이러한 속성을 무의식, 무고통, 무시간, 보편적, 비개인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Wick 88), 반드시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만 자신과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 해당하며, 객관화된 의지의 세계를 소리와 영상 그리고 언어 등으로 재현시키는 것에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두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성의지는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자의 감각능력으로 표현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름다움으로 표현될만한 진리는 이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만 겨우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며, 그것을 발견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성격을 가히 예술성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부터 필자는 이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스타인벡 작품들에 나타난 성의지가 가진 예술성에 대해 하나씩 고찰하겠다.

## A. 스타인벡과 캠벨의 성의지 발견

1932년 스타인벡은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서 훗날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가진 바가 있다. 즉 앞서 말한 바처럼 그는 두 명

의 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작가에 영혼의 동반자로 알려지게 될 해양 생물학자 에드 리케츠(Ed Ricketts)와 나중에 종교학과 신화학의 권위자로 유명한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이다. 리케츠는 스타인벡의 이상적인 욕망과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고, 작가에게 필요한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제공했다. 한편 캠벨은 스타인벡에게 칼 융(Carl Jung)의 사상뿐만 아니라,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경의 『황금 가지: 비교종교학 연구』(*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를 소개하였다.<sup>13)</sup> 그 책에 나타난 원시 예배, 섹스 관행, 의식, 축제에 관한 기념비적 조사 등은 스타인벡 대부분의 작품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Demott xxvii). 또한 한슨은 이처럼 세 명의 지성인들이 만나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것 외에도, 캠벨과 캐롤의 연애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sup>14)</sup> 캐롤은 캠벨의 신사다운 면모와 쾌활한 성격에 매력을 느끼고, 캠벨은 캐롤의 꾸밈없는 미소로 강한 주장을 가진 면에 호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캐롤은 캠벨을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비범한 남자”( . . . an extraordinary man, extremely well-educated, who could talk with knowledge

13) 제퍼스 또한 원초적 세계관을 위해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경의 『황금 가지: 비교종교학 연구』(*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를 받아들인다. 그는 성례적 견해를 강조하고, 세례식과 성인식, 정화의식, 성찬식, 희생제, 성혼식, 그리고 죽음통과의식 등의 통과의례를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삶의 핵심으로서 순환, 즉 영원회귀의 원질신화(mono-myth)에 초점을 맞추면서, 『타마와 다른 시들』(*Tamar and Other Poems*)의 기반을 형이상학적 운율에 두었다.

14) 이러한 연애사건에 대해 언급한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고, 그들의 관계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언급되는 일이 없어서 단지 유추할 정도의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캠벨의 자서전 『마음 속의 불』(*A Fire in the Mind*)(1991)에서 고백을 한 이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한슨의 『몬트레이』(약칭)는 등장인물의 이름 또는 실제의 다른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변경시키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빼고는 수잔 쉐링로(Susan Shillinglaw), 제이 파리니(Jay Parini) 그리고 잭슨 벤슨(Jackson J. Benson)의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 전기서에서의 사실들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인생의 불연속 및 슬픔, 그것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정서 및 불합리성을 공유하고 있다. 여전히 논리적인 방식을 통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세 등장인물들의 광범위한 추상적 사고와 그들 간의 공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문학적 스타일의 사용을 고려하면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책은 문학과 신화학 그리고 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 선구적인 인물들의 사고방식이 어울려짐에 대한 연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Lee, “Monterey” 477-88 참조).



about almost any subject)(Benson, TA 223)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제 작품 속에 담긴 등장인물들의 간단한 사연을 보도록 하자. 우선 이 책의 처음부분에서 한슨은 캠벨이 비교종교학과 신화학의 연구자가 된 동기를 스타인벡과 리케츠와의 만남과 우정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년 캠벨은 1932년 유럽에서 공부했던 산스크리트어와 현대예술 그리고 중세문학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소망이 자신의 교수들로부터 거절당하자, 박사학위공부를 중단하고 캘리포니아 101번 도로를 따라 미국을 여행하게 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 아델(Adele)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유분방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고 탐구적이며 쾌활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때로는 위험하고 혼란스러우며 파괴적이고 심지어 변덕스런 면모를 보인다. 아델은 캠벨을 언니 캐롤과 당시 30세의 신예 작가였던 스타인벡에게 소개한다.

그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남자들은 우주의 존재와 존재방식에 대한 철학관에 있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캠벨은 스타인벡에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몇 차례 권유하지만, 스타인벡은 철학은 진실을 흐리게 할뿐이라며 거절한다. 이것에 대해서 캠벨은 별거벗은 진실은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스토리는 상징들을 통해 심화되어야 하며, 인간은 그러한 상징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스타인벡은 개인적 감정과 정서가 오히려 작품을 오염시키고 자연은 인간 의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로고가 신화적 상징들보다 더 선호된다고 주장한다(TPM 71, 76).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스타인벡의 초기 사상은 캠벨의 것에 비해서 다분히 실존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제3장에서 보게 될 『미지의 신께』(To a God Unknown)의 마지막에 캠벨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인공 조셉이 자신의 목숨을 자연에 바쳐서 비를 오도록 하는 장면에서 신화적 측면과 사실적인 것이 충돌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개별적인 자아들의 총합을 넘어선 보편적인 자아를 인정하는 전체론적 사고에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캠벨(이 책에서 Joe)은 『미지의 신께』의 신비주의를 높게 평가하면서 집단적 지식과 보편적 정신, 의인화된 자연 그리고 자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신들을 언급한다. 이러한 찬사에 대해서 스타인벡

은 자연은 살아 있는 것이며, 『미지의 신계』의 저택은 살아 있는 신전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인격신의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목적(causality)이 자의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대해서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케츠의 비목적론적 사고와 일맥상통하다.

캠벨은 아델에게 “여자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I’ve lost the joy in just being with a girl)(TPM 37)고 고백하면서도 스타인벡 부부가 사는 퍼시픽 그로브(Pacific Grove) 근처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캐롤의 신체적 매력과 진지하고 침착하며 일관되고 공평한 성격에 점점 이끌리더니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된다.

내 상상 속에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기쁨보다 아름답지만 난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형상과 사랑에 빠졌다!

This is a woman in my imagination, more beautiful than any earthly delight, yet I cannot see her face. I don't even know what she looks like. I am in love with an image I cannot see! (TPM 46)

이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캠벨은 자신의 상상 속에 한 여인이 존재하지만 미처 그 여인이 캐롤을 의미하고 있음을 모르다가 드디어 그녀를 너무 흠모한 나머지 부적절한 신체행위를 암시하는 일기까지 쓰게 된다.

한편 이야기는 빅서(Big Sur)로 여행을 간 스타인벡 일행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건너가고, 이곳에서 캠벨은 자신에게 커다란 영감을 안긴 생태 시인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와 조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성적 환경을 흔들어놓은 정의지의 도래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즉 캠벨이 파티의 장소에서 잠시 빠져 나와 숲속에서 제퍼스를 만나게 될 때 그 시인은 과거 다른 이의 아내였던 유나(Una)와의 불륜적 상황을 예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남성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소. 그녀는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녀를 볼 때마다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될 거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그녀의 충분한 감각과 성숙함은 내 욕망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오. 그녀는 나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도록 이끌어주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되게 해 주었소. 우리 남성들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강하게 끌



어주는 여자가 필요하지요.

All men saw her and fell in love with her instantly. She fits me not at all, and by looking at her we do not make a pair. But she picked me. A woman mature enough and sensitive enough to understand my desires, and forceful enough to spur me on to purring things into action, to making my thoughts real in the world. We all need a girl that will push us to be more. (TPM 84-85)

제퍼스의 표현대로 유나는 이 시인의 안에 있는 성적 에너지를 불러 일으킨 여성이었던 것이다. 이 말에 캠벨은 무리들 중 캐롤에게 시선을 향하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서 캠벨이 스타인벡의 창작열을 부러워하며 옛날 철학에 대한 단순한 학습보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제퍼스에게 고백한다. 이것에 대해 그 시인은 그러한 모든 창조적 예술행위는 각자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만으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는 「신의 넘쳐흐름」 (“The Excesses of God”)<sup>15)</sup>을 소개하면서 태생적 아름다움이 이미 모든 이에게 선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아는 것은 그의 지나친 넘쳐흐름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필요는 충족시키는  
 자연이고, 동물이며 광물이지만 비 너머에  
 무지개를 비추고,  
 달 너머에 아름다움을 비추고  
 깊숙한 바다 조개의 죽음 위로  
 비밀스런 무지개를 비추고  
 번식의 필연적인 포옹을  
 또한 불꽃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  
 꽃을 피우지 않은 채 자라나는 잡초와  
 음악 없는 새들 또한 없다.  
 만물의 중심에는 위대한 인간성이 꽃을 피우고,  
 그 근원에 있는 화려한 친절함 그리고  
 샘과 같은 인간애가 이해할 수 있는 권력과 욕망이  
 한 쌍의 자석이라면 그와 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15) 캠벨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화이론, 즉 신화적 상징주의를 발전시킨 근거를 제퍼스가 주장하고 있는 “신성하게 넘쳐흐르는 아름다움”(divinely superfluous beauty)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Jeffers, SP 55).

It is not by his high superfluosness we know  
 Our god? For to equal a need  
 Is natural, animal, mineral: but to fling  
 Rainbows over the rain,  
 And beauty above the moon, and secret rainbows  
 On the domes of deep sea-shells,  
 And make the necessary embrace of breeding  
 Beautiful also as fire,  
 Note even the weeds to multiply without blossom  
 Nor the birds without music:  
 There is the great humanness at the heart of things,  
 The extravagant kindness, the fountain  
 Humanity can understand, and would flow likewise  
 If power and desire were perch-mates. (TPM 85-86)

이렇듯이 성의지를 비롯한 의지의 세계는 “자연에서의 진성한 신”(TPM 88)으로  
 서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넘은 무시간적이고 욕망이 사라진 인식에 도달할 때  
 보일 수 있는 것임을 말한다.

캠벨은 이 순간들에 대하여 “나는 박사 논문을 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어느  
 것도 쓸 필요가 없었다. 내가 했던 일이라곤 [제퍼스의 시의] 문장들에 밑줄을  
 긋고 받아쓰는 것 뿐이었다”(I don't have to write a thesis. I didn't have to  
 write anything. All I did was underline sentences and taken notes)(Campbell  
 55)고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시기에 제퍼스와 더불어 슈팽글러  
 (Spengler)와 융(Jung)의 저작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를 발  
 전시켜 훗날 신화학의 주창하기에 이른다(Campbell 55). 이러한 보편적 자아에  
 대한 캠벨의 관심은 표상을 넘은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염원에 근원하고 있는 까  
 닭에 인과율이 지배하는 눈앞에 놓인 현상을 부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은 심상에 대한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사실에만  
 의존하려는 스타인벡의 사고와 계속하여 대비되어 보인다.

예를 들어 캐롤과 아델을 포함하여 이들 세 명의 젊은 지성인들이 함께 한 위  
 자보드 실험에서 캠벨과 스타인벡은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인다. 즉 해변가와 포인  
 트 로보스(Point Lobos)에서 사격을 하거나,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산타 크루즈  
 (Santa Cruz)로 여행하거나, 토로 산으로 하이킹을 가면서 시간을 즐기던 중 그

들은 사후 심령을 불러들여 대화를 시도하는 실험적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하세계로 메시지를 보낼 때, 캠벨은 리케츠가 연기한 깊은 분노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미신 따위를 믿지 않는 스타인벡은 이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화는 스타인벡과 캠벨의 서로 다른 성향과 이들의 교제 후 소설가의 작품들에 나타나게 된 신비주의적 경향을 암시함은 물론이고 의지의 예술성이 광기와 구별되어야 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제 의지의 전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의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다.

## B. 성의지의 예술적 재현과 전체론

이 책의 이야기는 캠벨과 캐롤의 불륜적 연애관계와 스타인벡과 캠벨의 심리적 대결 상황 그리고 리케츠의 초월적 사고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자아로서 성의지의 단면이 노출되고, 이런 점에 세 명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은 일정한 목적성에 종속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성의지를 비롯한 의지에 좌우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캠벨은 캐롤이 스타인벡의 창작행위에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질투를 느낀 한편 캐롤 역시 그런 캠벨의 호의가 싫지 않지만, 끝내 남편의 작품 활동에 더 커다란 애정을 보인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스타인벡의 예술성이 캐롤의 강한 성의지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의지와 예술적 본능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표상적 사실들로부터 벗어나서 형이상학적 실재의 형태로 결합되는 구도에서 발견되어진다. 흥미롭게도 캠벨과 캐롤의 연애사건은 스타인벡의 예술성에 성의지의 주제를 각인시키게 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즉 성의지에 대한 예술적 감흥은 어쩔 수 없이 녹녹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진정한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들 즉 충분 근거율(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에 의거하여 사는 이들의 눈에 광기로 오인될 만한 천재성을 노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천재성과 광기는 엄연하게 다른 것이다. 두 개념들이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의 순간에 전폭적인 관심을 보이는 한편 천재성은 무시간적 형태를 추구하지만, 광기는 괴로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에 주안을 둔다. 스타인벡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며, 그 이유를 그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성의지 주제들이 동요하는 현실과 다르게 안정된 원형으로서 등장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성의지 개념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느낀 아름다움에 관여하기보다 본질적 이상을 구현하는 것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캐롤이 스타인벡을 사랑한 동기에 그의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Shillinglaw 7). 캐롤의 강한 성의지는 힘의 형태로 스타인벡의 예술성과 일치되고 있으며 그의 소설들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목적보다 앞서 보인 플라톤의 형상에 해당하는 성의지의 단면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예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격리된 평화로운 심상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황금잔』(*Cup of Gold*)(1929)에 등장한 성의지의 여신 이소벨(Ysobel)이 주인공 헨리에게 온갖 희유와 펄박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정조를 지켜내고 무사하게 남편에게 귀환하는 장면과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1937)에서 레니에게 죽임을 당한 켈리의 아내가 헛간에 누워있는 장면은 소설의 사연들을 떠나 성의지의 힘과 매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캠벨과 캐롤의 성의지에 관한 사연으로서 쉐링로는 제퍼스의 시가 그 두 사람들을 가깝게 했던 계기가 되었고, 그 운문들의 감동과 영감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가진 비극적인 긴장감을 초월하여 자연과 일치되는 환상을 경험했다고 말한다(108). 예를 들어 캐롤과 캠벨이 더욱 친하게 된 것은 바로 제퍼스의 시에 대한 토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캠벨이 기억하기에 어느 날 캐롤이 달려오면서 “[제퍼스의 시] 「갈색 종마」(“Roan Stallion”)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았어요”(Shillinglaw 107)라고 말하며 시 한 구절을 읊는다: “인간성은 인류의 시작, 인간성은 부수어야 할 틀, 깨트려야 할 껍질, 불에 태워야 할 석탄, 쪼개져야 할 원자”(Humanity is the start of the race; I say/Humanity is the mould to break away from, the crust to break through, the/coal to break into fire, The atom to be split)(Jeffers, *SP* 125).

이 시에 담긴 제퍼스의 비인간주의 사고는 인간중심주의적 표상을 넘어서야

발견될 성의지에 관련한 보편적 자아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캠벨은 성과 종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에로틱함과 신화성 내지는 주술성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시인들은 마치 기독교 신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인간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이 가장 높아요”(Your love isn’t the highest. My earthly love for another human is)(TPM 89)라고 말하는 이단적 수도승들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캐롤은 “그리스 신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상황들을 불러내요”(The Greek gods—they are so unforgiving, yet they conjure circumstances that always put us into trouble, almost like they make a situation for us to not be forgivable in)(TPM 93-94)라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캠벨이 유부녀인 캐롤을 사랑하는 남성으로 나타나며, 캐롤은 글쓰기에 대한 남편의 편집광적 성향과 소심한 성격 때문에 혼인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여성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캐롤은 무뚝뚝한 남편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호소하는 캠벨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외도의 상황을 말함이 아니었다. 산욕을 가진 캐롤이 남편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난관감염에 따른 자궁절제 수술까지 받게 된 사실은 그들의 혼인관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스타인벡의 고집스런 행위는 캐롤을 정신적으로 파멸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캠벨을 분노하게 했으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정당하게 만들기까지 했다(Parini 2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스타인벡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스타인벡의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의식과 불안감에 시달린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Shillinglaw 6). 이렇수록 스타인벡은 캐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가졌고, 캐롤은 그에게 술한 에피소드와 정밀하게 조율된 감수성과 저술 소재들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그녀의 마음에 떠돌고 있는 그림들에 대한 표현 찾기를 갈망하며, “다부진 체격과 모든 마초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매우 예민하고”( . . . tremendous physique and had all the macho characteristics . . . yet at the same time he had this great sensitivity) 소심하기

도 한 남자를 위한 자아 강화와 본질적인 격려를 위해 스타인벡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Shillinglaw 5).

다시 말해서 캐롤은 자신의 사랑보다 더 원대했던 스타인벡의 글쓰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셈이다.<sup>16)</sup> 다만 그럴수록 그들의 혼인 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스타인벡은 처음에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성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한 집념을 핑계로 그녀의 곁을 떠났다(Shillinglaw 3). 이런 와중에도 1932년 캠벨이 등장했을 때 그녀는 캠벨에게 일종의 아편처럼 매우 중독성 있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고, 캐롤 역시 그러한 캠벨이 사랑스러워보였다. 다만, 이들의 연애감정은 캐롤이 스타인벡과 함께한 예술적 공감대에 비해 그 정도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장배경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캠벨이 그녀를 뉴욕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잘 적응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럼 이들의 삼각관계가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나중에 이 연애사건 때문에 스타인벡 작품들이 다소 심각한 여성혐오적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차치하고, 실제로 경험되어진 성의지가 단순한 성적 쾌락을 원하는 생리현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삶의 의지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슨은 3장 도입 부분에 원탁의 기사(Round Table)에서처럼 불운한 러브스토리를 닮아 있는 란슬롯(Lancelot)과 귀네비어(Guinevere) 간의 부정적 연애를 네 페이지에 걸쳐 기술한다. 실제로 조가 캐롤에게 키스할 때, 그녀는 “존(스타인벡)은 키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나에게 결코 키스하지 않아요. 자신의 입술이 민감하지 않다고 말해요”(John does not like to kiss. He never kisses me. Says his lips have no nerves)(TPM 108)라고 말한다. 이것은 캐롤이 캠벨에게 가진 감정이 상대적으로 그녀의 남편의 성적 무관심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Shillinglaw 185).<sup>17)</sup> 즉 부부간의 애정에 기초한 성관계는 서로

16) 스타인벡은 그의 친구 토비 스트리트(Toby Street)에게 ‘캐롤은 내 작품만큼 중요하지 않아라고 자신이 숨겨놓았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토비는 술김에 캐롤에게 스타인벡이 했던 말을 전하며 그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나, 캐롤은 스타인벡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녀도 스타인벡 자신 만큼 그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토비가 몰라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Benson, TA 148).

17) 스타인벡과 캐롤의 친구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 긴장감을 인지했었다. 이에 대해 리케츠와 화가인 엘우드 그래함(Ellwood Graham)은 “존은 여성, 그것도 훌륭한 여성이 필요했

에게 존재하는 성의지에 대한 확인인 동시에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당시 캠벨은 리케츠와 함께 여름을 보내면서 탈 러브조이(Tal Lovejoy)의 여동생 제니아 카쉬바로프(Xenia Kashevaroff)와 염분이 있었던 것이(Shillinglaw 115), 한슨의 이 책에서 생략된 것은 남녀 간의 성적 만남이 모두 성의지에 따른 바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리케츠가 캐롤 앞에서 캠벨과 대화하는 동안 철학적 견해를 밝힌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나는 사물들의 원인에 관심이 없소. 모든 사물은 원인들이지. 당신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오. 다시 말해, 이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오. 유일한 방법은 특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네. 나는 영웅들과 악당들, 문제들과 해법들을 원하지 않아. 그러한 이중적인 모든 것은 같은 동전의 동일한 측면일 뿐이니 말이오.

I've no concern for causes of things. All things are causes. You cannot suss it out, say it's this particular thing or that particular thing.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have a specific point view. I do not want heroes and villains, problems and solutions. All that duality, same side of same coin stuff. (TPM 119)

리케츠는 캐롤과 캠벨의 연애관계와 스타인벡의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서 우주와 자연현상의 양가성을 피력하여 비목적론 사상(non-teleology)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상은 “‘왜’ 대신에 ‘무엇’ 또는 ‘어떻게’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것을 전제”(attempting at most to answer the already sufficiently difficult question *what* or *how*, instead of *why*)(Steinbeck, *Cortez* 160)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옴을 정작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캠벨은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계획했던 삶을 버려야 한다”(We must let go of the life we have planned, so as to accept the one that is waiting for us)라고 말하고 있다(TPM 134).

사실 캐롤과 캠벨의 연애 사건은 매우 짧고 약한 정도에서 종료가 되었다. 하

---

기 때문에 외롭고 비참했으며, 그러한 여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John was lonely and miserable because he needed a woman and needed a good one, and he had a hard time finding one)고 주장하였다(Shillinglaw 211).



지만 이것으로 인한 스타인벡과 캐롤의 혼인 관계는 더욱 더 위태로워 보였다. 이것은 오히려 스타인벡과 캠벨 두 남성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심적 영감을 주었다. 캠벨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일 뿐이며,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우리의 삶은 유한하여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 남은 시간을 양보해야 함에도 아내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스타인벡을 비난하고 있다(TPM 96). 한편 이러한 캠벨의 캐롤에 대한 애뜻한 감정은 설령 성행위에 이르는 관계가 아닐 지라도 그들의 애정행위가 가히 강렬한 성의지에 따른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

캠벨은 캐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머리를 앞으로 숙였고, 그녀의 향수 냄새와 그녀의 숨소리에서 나오는 희미한 열기를 그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매우 가까이에 있었다. 그녀는 맞잡은 그의 손을 꼭 쥐었고,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He was knelt down in front of her. He took her hand impulsively. She bent her head forward, and they were very close. She squeezed his hand. He could smell her perfume and felt the faint heat of her breath. Their lips touched. (TPM 105)

앞서 말했듯이, 성의지는 “무목적적이며, 무시간적 활동으로, 있는 것 그 자체”(The pointless arena makes no sense to ask what Will is aiming for. It has no aim)(Wicks 14)로서 무시간적 본능에 해당되고,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 또한 성의지는 몸으로 느끼는 감정이 승화된 것으로서 주의주의 철학은 이성보다 감정이 실제의 삶을 더욱 좌우하는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거칠게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반드시 육체적 상태로 가시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만하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목격한 스타인벡은 강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1932년 늦은 봄 오래된 소설 70편을 불태우고, 그가 캐롤을 만난 후부터 써름해왔던 『미지의 신께』의 원본 원고 대부분을 버리고, 캠벨의 묘사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퍼스의 시, 그리고 캐롤의 배반 등을 엮어서 『미지의 신께』의 최종 수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미지의 신께』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거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이상한 배반과 성



적 에너지, 그리고 불안한 가족 유대는 그 일부분이 캐롤과 캠벨의 밀회에 빛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hillinglaw 121). 또한 그의 단편소설 「살인」(“The Murder”), 「국화」(“The Chrysanthemums”) 그리고 「하얀 메추라기」(“The White Quail”)에서 캐롤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이 표출된다.<sup>18)</sup>

이러한 전기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편소설 「살인」은 남편인 짐 무어(Jim Moore)가 그의 외국인 부인 젤카(Jelka)와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로 몬트레이에 있는 술집들을 전전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해줄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것 뿐 만 아니라, 그녀를 학대하며 그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한다(Watt 44). 또한 이는 「국화」의 주인공 엘리사(Elisa)의 충족되지 않은 그녀의 성적 욕구의 좌절과 그녀의 남편 헨리(Henry)와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에서도 알 수 있으며, 「하얀 메추라기」의 메어리 텔러(Mary Teller)에 대한 스타인벡의 신랄한 묘사의 원인을 해리를 지배할 수 있는 메어리의 능력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Hadella 73), 이 작품의 저작동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최한용, 2013: 204).

스타인벡은 캐롤의 외모에 대해 “키가 크고 예쁘다기 보다는 잘생긴 얼굴”(She was tall and had a handsome raather then pretty face)(Benson, TA 133)이라고 상기하며, 그는 엘리사를 캐롤처럼 당당하게 아름다웠다고 묘사하고 있다(Gladstein, “MW” 89). 캠벨은 캐롤의 그런 매력에 이끌렸고(Shillinglaw 104), 스타인벡은 자신의 어머니의 강한 성격과 매우 많이 닮은 캐롤을 사랑했으나 그녀로부터 항상 도망쳤다(Shillinglaw 22). 레스 스탠우드(Les Stanwood)에 따르면 그들이 결혼 한지 3년도 채 안된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관계는 이미 ‘성적 부조화’(sexual incompatibility)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한다(88).

스타인벡은 그의 지인들에게 보낸 어느 편지에도 캐롤과 캠벨의 ‘불륜’에 대한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 게다가 겨울에서 1932년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18) 「살인」과 「국화」는 1934년에 쓰여 졌다. 하지만 스탠우드(Stanwood)의 연구에 따르면 「국화」는 1933년도에 쓰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87). 「하얀 메추라기」는 1935년에 쓰여 졌지만, 캐롤과 캠벨의 연애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추측은 이 소설의 출판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는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스타인벡과 캐롤은 1940년에 이혼했다). 하지만 관련 연구자들은 최근에 그 결혼 생활은 1930년대 초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tanwood 87-94 참조).

스타인벡은 어떠한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적이 없는데, 1932년 4월부터 1932년 10월까지 그와 그의 지인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사건은 1991년 캠벨의 전기문 『마음속의 불』(*A Fire in the Mind*)에 캐롤과의 불륜이야기를 자신의 경험 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캠벨은 자신의 성욕으로 캐롤에게 끌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끌렸다고 말하며(Shillinglaw 112), 스타인벡이 자신에 대한 질투심보다는 캐롤에 대한 자신의 성적 욕망이 사라져버렸음을 ‘캐롤은 키스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키스하는 것이 싫어. 내 입술엔 아무런 신경도 없어’라고 토로한다. 스타인벡은 자신이 캐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무능함에 대해 생각했고, 이 결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sup>19)</sup> 또한 캐롤과의 문제를 자신이 통제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Fensch 101), 자신이 캐롤의 마음의 반만 가져도 되니 그에게 캐롤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다(Larsen 188-9). 그의 요구에도 캠벨은 리케츠와 해양생물 표본을 채집하러 떠나자 스타인벡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시에라 산맥(the Sierras)으로 떠나고 캐롤은 “마치 정신이 나간 듯한 상태”(Larsen 207)로 소살리토(Sausalito)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떠남으로서 그들은 영영 다시 만나지 않는다.

스타인벡과 캐롤의 관계는 생태학적 기반의 관계와 유사하며, 이는 계급적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인벡을 위한 파트너와 멘토, 뮤즈, 비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캐롤로 인한 상호 존중과 공유된

---

19) 두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의지에 대한 의식을 채워주고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면은 실재가 아니라 상상일 뿐이었으며, 욕구의 주체인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익시온의 영원히 불타는 수레바퀴 아래 누워 있고, 다니이텐의 체로 물을 끄는 것과 같으며, 영원히 고갈중에 허덕이는 탄탈로스와 같다(Schopenhauer, *WI* 196). 따라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들의 부족분으로 인해 그 모든 명예와 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짧은 결혼 생활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사랑하는 연인은 그들의 바람을 성취하고 나면 기묘한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지금까지 갈망하고 사모하던 것이 그 외의 모든 성적인 만족보다 별반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 그들은 사랑에 속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환상이 깨진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필레보스』(*Philebus*)에서 “탐욕은 가장 활발한 본능”(For nothing is so boastful as cupidity), 즉 쾌락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쾌락이라고 말한다(Schopenhauer, *WII* 541).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관계였다고 설링로는 설명한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인벡은 자신이 캐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무능함에 대해 생각했고, 이 결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또한 캐롤과의 문제를 자신이 통제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했다(Fensch 101). 캐롤 또한 순종적인 부인이 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의 성적 욕구는 스타인벡으로 거의 좌절되었다.

스타인벡이 그의 작가로서의 작품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몬트레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성의지에 대한 그의 사고가 형성되는 과정에 부조화된 혼인생활과 캠벨과 리케츠와 같은 지성인들과 가진 경험이 이후 수많은 작품들에서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식욕을 돋우는 음식과 성욕을 자극하는 몸 그리고 흥분하게 만드는 액체인 피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성의지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또한 인간은 매력과 역겨움이 혼재한 현상적 사물에서 고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사회적 소설들을 포함하여 모든 작품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타인벡의 작품들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재현된 폭력과 죽음 그리고 외설적인 장면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형이상학적으로 계몽되어 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의지는 주의주의철학에서 절대시하고 있는 삶의 의지의 가장 강력한 면모이고, 이것을 숙고해보면 작가가 발견한 예술적 감흥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Ⅲ. 『미지의 신계』: 성의지의 원시성<sup>20)</sup>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는 참다운 인간성은 겸손함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을 절망시키는 습관적 요소로서 돈과 명예를 비롯한 어떠한 보수(reward)를 끈임 없이 회구함이 철저한 자기 연민과 자기애를 낳아서 결국 인간중심적 사상이 소위 오늘날 절대가치가 된 휴머니즘(humanism)을 탄생했음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들의 오만함이 오히려 이성

20) 이 장은 「존 스타인벡의 『미지의 신계』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배경과 비이성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7권 제1호, 243-264 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당시로는 긍정적이고 절대선적인 가치로 포장되어 실제로는 이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퍼스와 쇼펜하우어는 인간들이 이성보다는 삶의 의지에 따라 자신들의 인생을 영위하고 사회를 형성해 간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염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비이성주의<sup>21)</sup>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존재론이면서도 인식론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들이 어떠한 메시지에 의해서 설득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이들 두 학자들의 논리전개방식들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염세주의, 생태제일주의, 또는 비인간주의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일 만큼 다소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단지 지옥이고 그 안에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고문을 당하는 영혼이며 다른 면으로는 악마들이다”(The world is just a hell and in it human beings are the tortured souls on the one hand, and the devils on the other)(Peters 207)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제퍼스는 “최고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인간화해야 한다. 신성한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찾기 위해 우리는 보다 크고 보다 경건하고 보다 황홀한 창조물성을 학습해야 한다”(To best become human we must inhumanize ourselves; to more surely find the divine we must learn a larger, more reverent, more ecstatic creaturehood)(Brophy xvi)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의 비이성주의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성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고 인간들보다 그들의 환금적 가치가 더 소중한 금세기가 만들어낸 의식의 경직성에 원인이 있다.

한편 이렇게 쇼펜하우어에서 시작한 오만한 이성의 경고를 제퍼스 또한 경고하는데, 이는 1930년대의 미국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마이클 제롬 한슨(Michael J. Hanson)의 『몬트레이 철학자들 : 존 스타인벡, 조셉 캠벨, 에드 리켓츠의 알려지지 않은 우정』(*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21) 주지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비이성주의는 이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선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의지가 이성을 앞섬으로서 모든 인간의 실체는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을 절대시하지 않겠다는 말로써 ‘탈이성주의’라고 써도 무관하겠다.

and Ed Ricketts)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슨이 소설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입증된 사실들에 기초한 이 책은 미국의 현대 문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세 철학자들의 역사적인 만남을 다루고 있음이며, 특히 스타인벡의 무명시절의 세 번째 소설인 『미지의 신계』(To a God Unknown)<sup>22)</sup>에서는 작가가 몬트레이에 거주하며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을 당시 왕래했던 훗날 비교종교학과 신화학의 혁신가로 여겨지는 조셉 캠벨(Joseph Campbell)과 당시 선구적인 해양생물학자로 주목을 받은 에드 리케츠(Ed Ricketts)의 영향을 받은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세 사상가들의 우연한 만남뿐만 아니라 스타인벡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롤(Carol)과 캠벨의 연애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륜의 이야기에 깊은 상처를 받은 스타인벡은 그의 신비주의적 소설인 『미지의 신계』에서 캐롤의 강한 성적 욕망을 농후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연의 힘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주제를 생태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을 연구 배경으로 하여 필자는 『몬트레이 철학자들』에서 드러난 스타인벡의 『미지의 신계』의 작품배경이 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제퍼스의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미지의 신계』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비이성성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기로 한다.

## A. 제퍼스의 비인간주의

『미지의 신계』에서 스타인벡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소유한 자신의 땅이야말로 그에게 존엄을 준다”(Man’s own land gives him a sense of dignity)고 믿었고, “인간은 모든 자연적인 과정이 만들어낸 범주 속에 전적으로 내재되어있다”(man is wholly embedded in the tissue of all natural process)(Astro, “SPT” 109)는 것이다. 또한 이 소설은 스타인벡의 범신론적인(pantheistic) 사상 또는 “생물학적 동질주

22) 이 장에서는 이 작품을 TGU로 약칭하고, 인용 시 괄호 안에 약칭과 페이지 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의”(biological unanimism)<sup>23)</sup>(Allen 162)란 농부들이 그들의 토지로부터 정신적 힘과 자양물을 이끌어낸다”(the farmer draws spiritual strength as well as sustenance from the soil”(Eisinger 152)는 원시적 자연주의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또는 사회적 관점과 별도로 스타인벡은 개인적인 사연에서 『미지의 신께』를 저술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에 발간된 마이클 제롬 한슨(Michael J. Hanson)의 『몬트레이 철학자들 : 존 스타인벡, 조셉 캠벨, 에드 리케츠의 알려지지 않은 우정』(*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and Ed Ricketts*)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This story is a complete fiction)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의 해답을 찾으려는 젊은 청년 캠벨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TPM 9). 물론 한슨이 스타인벡의 사상을 주로 다루거나, 『미지의 신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소설의 쓰기배경에 대해서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텍스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는 심리학과 신화학의 연구가로서의 캠벨을 “나의 조”(My Joe)라고 칭하면서 캠벨의 일원론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캠벨]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다: 의미를 지닌 좀 더 커다란 신비스러운 것들을 지적하는 인간성의 보편적 부분들이 존재하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 자신의 삶의 과정을 따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함께 탐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보자.

[Campbell's] message was always the same: there are universal parts of humanity that point to the larger mysteries of meaning, and those things show up in the stories we tell. Let's explore them together and share what we know to enrich each other along the course of our own lives. (TPM 14)

23) 스타인벡은 생태학적 입장에서 인간을 환경적인 동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인벡이 말하는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모두를 말한다. 또한 이 두 환경은 서로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으며, 이런 조정과 해체의 과정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에 순환되고 있다고 본다. 월터 앨런(Walter Allen)에 따르면, 스타인벡이 인간을 커다란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 보아, 인간의 지위를 동물의 수준으로 축소시켰으며, 인간을 개별적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각하여 영혼 없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그의 사상을 ‘생물학적 동질주의’라고 명명한다.



이 책의 도입부분에서 캠벨은 시끄러운 파티장을 떠나 자신을 알기 위해 그의 낡은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101번 국도를 타고 간다. 전국 일주를 하는 동안 살리나스(Salinas)의 식당에 들른 캠벨은 우연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을 만나 그의 오랜 친구인 아델(Adele)을 만나게 된다. 매일같이 여자와 술로 가득 찬 파티를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말하며 뭔가 깊은 곳에 허전함을 느끼는 캠벨을 보며, 아델은 그에게 그녀의 언니인 캐롤과 당시 신예 작가였던 형부 스타인벡을 소개한다. 저녁 식사자리에서 스타인벡은 캠벨에게 집필 중이던 그의 작품 『미지의 신께』(*To a God Unknown*)를 소개하고, 캠벨은 이 작품에 대해 집단적 삶과 보편적인 정신, 의인화된 자연 그리고 자연에 살고 있는 많은 신들을 언급하면서 찬사를 보내자, 스타인벡은 “자연은 살아 있으며, 그 주택은 살아있는 신전과 같다”(Nature is alive. The homestead is like a living tabernacle)(TPM 41)고 말한다. 이렇게 첫 만남을 시작한 두 남자는 전체론적인 철학체계에 서로의 생각이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무수한 고민을 하고 있던 캠벨은 스타인벡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고 놓고, 스타인벡은 그런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심거리는 우주가 미리 정한 바에 따름이기에 그것을 마치 물이 흘러가듯 내버려두라고 조언해준다. 그는 캠벨로 하여금 퍼시픽 그로브(Pacific Grove)에서 당분간이나 체류해보라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캠벨은 스타인벡의 집 근처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기장에 “내 상상 속에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기쁨보다 아름답지만, 난 그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난 내가 보지 못하는 형상과 사랑에 빠졌다”(There is a woman in my imagination, more beautiful than any earthly delight, yet I cannot see her face. I don't even know what she looks like. I am in love with an image I cannot see)(TPM 46)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캐롤을 흠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은연중 내비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가 스타인벡 부부와 함께 간 21구경 사격장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조는 캐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에 비해 너무나 고귀했다. . . . 그녀는 모든 부분에서 그녀의 여동생(아델)만큼 아름다웠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더욱 완벽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가 알고 있는 여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내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성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지혜로움은 평화로움과 은혜로움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녀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Joe looked at her carefully. She was too elegant for her plain clothing. . . . She was every bit as beautiful as her sister [Adele], but somehow, fuller. Something in her eyes, in her presence, was more than other women he knew. Wiser, like the whole scope of femininity, was right there in her, fully present. Yet, she carried that huge power without burden—lightly, with peace and grace. (TPM 49)

또한 캐롤은 존과 상처주고 회복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불협화음을 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글쓰기에만 열중하며 자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남편 존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낀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성의지에 대한 태도를 존으로부터 조에게로 돌리게 된다. 또한 그녀는 그리스 신들이 우리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불러낸다고 말하면서 유부녀인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조를 향해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TPM 92-93). 이에 대해 조 역시 성과 종교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매력과 신화적 주술성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우주 본질과 인간의 영은 하나라는 믿음에 그 자신 역시 캐롤에 대해 이끌리는 속마음을 감추지 않는다(TPM 87).

이들의 사랑의 사연과 그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아니다. 다만, 캠벨의 신화적 이론들과 스타인벡의 작품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로는 캠벨이 섹슈얼리티의 성격을 정신적 애정을 전제로 한 성관계이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스타인벡은 그의 소설 『통조림공장 골목』(Cannery Row)에서 창녀들의 성매매가 오히려 사회에 기여한 바가 무시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육체적 행위는 일종의 탈윤리적인 자연현상 또는 생리현상에 불과함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정신적인 일치감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혼인관계는 정신적 사랑과 행복한 육체적 행위가 함께 하여야 함에는 두 사람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비이성주의적 철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리처드 바그너(Wagner)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에서 이러



한 성의지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24)</sup> 그 작품에서 트리스탄은 마크 왕의 신부감인 이졸데를 후송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졸데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얼굴도 모르는 신랑과의 동침을 위해 사랑의 묘약을 준비하지만, 이 두 청춘 남녀는 그것이 와인인 줄로만 알고 함께 나누어 마시고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였고 이 작품은 진정한 육체적 합일이라는 상대방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즉, 반대로 먼저 행한 남녀 간의 황홀한 성적 쾌감이 이후의 정신적인 애정이나 혼인관계로 반드시 승화되어지지 않음이 인간의 삶의 보통의 양태라는 것이다.

한편 리케츠의 집에서 있던 파티가 끝나고 뒷마당에 앉아 육 년 전 어디에 있었냐는 캐롤의 질문에 조는 대답한다.

“난 그때 파리에 있었지요, 캐롤. 지구의 반대편에서 신의 형상을 찾고 있었어요. . . . 파리에서 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배웠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 . . 난 지금 파리 반대편에 육 년이 지난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요.”

“I was in Paris, Carol. Paris,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earching for that divine image. . . . In paris, I learned that you can find what you seek, but you can never find the things you really need. . . . So here I am,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from Paris. Six years later. And here you are.” (TPM 105)

조는 마치 성배를 찾아 나선 기사들처럼 자신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갈망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가 정말 원한다고 발견한 대상은 캐롤이지만 불행스럽게도 그들이 너무 늦게 만나게 되었음을 아쉬워한다. 이러한 불행한 운명에 더하여 스타인벡은 그의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작품 활동은 원만하게 잘되어 가고 있었지만, 캐롤과의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여전히 먹구름으로서 드리워져 있다. 캠벨에 따르면 캐롤은 존의 관심에 목말라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캠벨은 캐롤이 갈망했던 유혹적인 관심을 더 불러일으킨 바이다.

그리고 캠벨은 그의 일기장에 “존은 이방인 같아 보였으며, 그는 자신이 결혼

24) 1854년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에게 자신의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의 대본에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라고 써서 보냈다. 그 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바그너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이후 그의 후속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현상계에서 의지의 충족 불가능성과 같은 쇼펜하우어식의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Magee 140).

해야만 했던 여자를 손쉽게 얻은 남자”( . . . John who seems the outsider. He is like someone who simply captured the girl that I was meant to have married)(Parini 155)로 설명하고 있다. 캠벨은 캐롤에게 강하게 끌렸으며, 캐롤 또한 그에게 동일한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면, 캠벨은 존이 출타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늦은 밤 캐롤을 찾아가고, 캐롤은 남편 존의 무심함과 그가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채워줄 수 있는 조의 모습을 보게 된다.

조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평화로웠다.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맞춤을 하고 뺨으로, 입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기를 느낀 그는 일어나 라디에이터에 서서 그녀를 응시했다. “조, 다시 와요.”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을 채로 속삭이듯 말했다. . . . “나에게 와요.” . . . 그들의 다리는 휘감겨 있었다. 그녀의 팔은 그의 몸을 감싸고 머리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 . . “조, 당신이 지금 나에게 키스 한다면 이상할까요? . . . 존은 키스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결코 나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죠. 그의 입술은 민감하지 않다고만 말해요.” . . . 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 . . “한번만 키스해주세요, 조. 진정한 단 한 번의 키스 말이에요. 키스로 날 벌 주세요.” . . .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라고 그녀가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Joe knelt beside her. So peaceful, even now. He kissed her on the temple, then the cheek, then the mouth. She didn't stir. A chill ran through him and he got up and stood by the radiator, staring at her from across the room. “Come back, Joe”, she said it in a whisper, her eyes still closed. . . . “Come back to me.” . . . Their legs entwined, and she wrapped her arms around his body and put her head against his chest. . . . “Do you think it was it wrong for you to kiss me just now, Joe? . . . John doesn't like to kiss. He never kisses me. Says his lips have no nerves.” . . . Joe said nothing. He held her closer than ever. . . . “Kiss me just once, Joe. One kiss. A real one. Crucify me with a kiss.” . . . He kissed her, gently, again and again. She said “Jesus Christ, Jesus Christ, Jesus Christ,” and rested her head on his shoulder.” (TPM 108-109)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불륜적인 관계의 깊이와 성격이 어느 것이든 앞 서 말한 바처럼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존과 캐롤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이 파리니(Jay Parini)는 “캐롤은 [성적]관심에 굶주려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캠벨은] 캐롤이 간절히 원하던 유혹의 관심을 제공했던 셈”(Carol was starved for attention. Worse, Campbell was providing the kind of seductive attention that Carol carved)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21).

다음으로 존은 캐롤과 조의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 세 사람이 함께한 모

임이 중단될 상황에서 의기소침해 하고 있는 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 당신은 그녀에게 키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캐롤은 키스를 원해요. 내 입술은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나는 키스를 싫어해요”(You should be the one to kiss her, Joe. Carol needs it. I have no nerves in my lips. I hate kissing)(TPM 125)라고 고백한다. 사실인 즉, 스타인벡은 캐롤과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친구인 캐더린 베스윅(Katherine Beswick)에게 “그녀[캐롤]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 . . he would not make her happy)(Gladstein, “MW” 96) 그녀와 결혼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존은 자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캐롤의 강한 성적 욕망과 그녀와의 결혼 생활이 실체가 아님을 인정하며 자신이 먼저 캐롤을 떠나기로 하고 외유를 하게 된다.

조는 이러한 사실을 캐롤에게 알리며 자신과 함께 뉴욕으로 떠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캐롤은 자신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을뿐더러 존은 자신을 필요로 하며, 그의 작품 활동에 그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내비친다. 이에 자존심이 강한 존은 뼈 저리는 고통을 느꼈으며(Parini 156), 두 사람의 관한 일을 가능한 한 그의 마음에서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이 일이 존과 캐롤의 결혼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결국 이러한 정서가 『미지의 신계』를 비롯한 이후의 작품들에 고스란히 담겨있게 된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저작배경으로서 상당한 영향을 준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는 몬트레이의 터줏대감이었던 생태시인이지만 현대 문학 비평에서 소외된 채 저평가된 시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풀리처상을 수상한 시인 로버트 하스(Robert Hass)는 “제퍼스는 가장 선구적인 환경론자였다. . . . 인간의 기술과 인구의 증가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혹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한 시인”(Robinson Jeffers, an early environmentalist . . . perhaps the first American poet to grasp the devastating extent of the changes human technologies and populations were wreaking on the rest of the earth’s biological life)(Jeffers, PRJ 6)이라고 말하고 있다. 1920년대에 제퍼스는 빅 서(Big Sur) 해안가의 성스러운 모습에 영감을 얻어 이곳은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과 같다고 믿는 일종의 범신론자가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의 현현은 그의 고향 남부에 펼쳐진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며, 두 번째

는 은하와 별들의 압도적인 웅장함과 카멜(Camel) 해안의 천국으로부터 등장함이다. 그는 성좌들 아래에서 그의 아내 유나(Una)와 함께 걸으며 빛나는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혀 말을 잃곤 하였다. 이런 주변 환경을 통해 제퍼스는 192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종교적 제식이나 인간의 역사, 또는 개인적 삶이나 국가 과정에 초연한 문명 이전과 이후 세계의 비인간적 힘들과 신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타마와 다른 시들』(*Tamar and Other Poems*)(1924)라는 제목의 총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Hunt 99).

따라서 그는 스스로를 ‘비인간주의자’(Inhumanist)라고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비인간주의’(Inhumanism)는 “인간으로부터 비인간으로,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유아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초월적인 웅장함에 대한 인식으로의 강조와 중요성의 전환”( . . . a shifting of emphasis and significance from man to not-man; the rejection of human solipsism and recognition of the transhuman magnificence)이라고 기술한다(Jeffers, *PRJ* 428). 하지만 이버 윈터즈(Yvor Winters)와 같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혐오 및 가치 부정 원시주의라는 이유로 그의 사상을 공격했고, 종교 비평가들은 그의 이교도적 비전에 대해 경고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기타 사회비평가들은 그의 공감 및 참여 부족을 나무랐으며, 신비평가들은 그의 내면에 있는 무정형과 예술가적 조잡함을 꼬집었다(Brophy viii). 이러한 많은 비평가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제퍼스는 그의 비인간주의에 대해 그의 시 ‘대답」(“The Answer”)을 통해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은 우주의 성스러운 아름다움이며, 그로부터 분리된 인간보다는 그 신성한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라”( . . . the greatest beauty is/ Organic wholeness of life and things, the divine beauty of the universe. Love that, not man/ Apart from that)(Jeffers, *CP* 536)고 말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는 염세적이며 인간혐오적인 관점을 시인의 비인간주의를 인간 혐오적이고 염세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지만(김은성 42), 제퍼스는 비인간주의는 인간 혐오주의적이거나 비관주의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Jeffers, *PRJ* 428), 비인간주의를 연구하고 있는 카르먼 로우(Carmen Lowe)도 비인간주의가 인간 혐오주의를 장려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깊은 부드러움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3). 더 나아가서 커크 글레이저(Kirk Glaser) 또한 제퍼스가 의도적으로 낭만주의적 개념을 변형하고 자연의 우선성이라는 관념과 우리의 의식이 자연의 표현임을 주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Brophy xiii). 그러므로 제퍼스는 이 신조어에 대해서 고도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애에 반하는 낭만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랑, 증오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 대신에 합리적인 초연을 행동의 규범으로써 삼는다”(It offers a reasonable detachment as rule of conduct, instead of love, hate and envy)(Jeffers, *PRJ* 428)고 덧붙여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행동의 지침으로서의 초연함. 자비, 사랑,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에서부터 이탈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그 결과 한 생물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도, 광분하지도, 애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아야 하는 바, 이것은 나중에 리케츠와 스타인벡의 비목적론 사상(non-teleological thinking)<sup>25)</sup>으로 이어진다. 이 사상은 ‘존재는 본질을 선행’한다는 프랑스 실존주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다.

이성 중심적인 서구 문명의 질서는 20세기 자본주의 문명이 도입되면서 비인간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일종의 반이성주의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현대 사회는 계속 이성을 발전시켜왔지만, 20세기에 인간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비이성적이며 부조리하다.<sup>26)</sup> 인간이 가진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행동의 가능성과 결합시킬 수 있는 철학으로 실존주의 철학이 나타나게 되었고,<sup>27)</sup> 스타인벡과 제퍼스는 비이성주의로 나타나서 인간의 이성과 합

25) ‘왜’ 보다는 ‘무엇’ 또는 ‘어떻게’라는 물음만이 거론의 대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무엇이 실제로 존재 하는가’만이 문제가 되며,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고, 즉 현상 자체가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며 특정 존재의 당위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 비목적론 사상은 스타인벡의 지적 동반자였던 리케츠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Steinbeck, *Cortez* 160). 리케츠가 비목적론 사상의 창시자이기는 하지만 스타인벡은 리케츠가 이 사상의 정의를 확립하고 명명하기 이전부터 이 사상을 그의 작품에 구체화하였다(Astro, *TSN* 34-35).

26)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낯설고 불가해하며 인식되지 않는 부조리한 세계에 처해 있는 존재로 인간을 보았다. 비이성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무심한 우주에서 자신의 삶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를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27) 이런 실존주의 철학은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가 창시자인긴 하나 유일한 시조는

리성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질, 더 나아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질을 후천적으로 인간이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철학을 발전시킨 것이 실존주의이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 인간의 의지에 관한 ‘존재 자체’의 사실의 존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존재근거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 B. 비목적론 사상

스타인벡의 문학적 통찰력은 바로 비목적론 사상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사상은 리케츠와 함께 했던 『코르테즈 해의 항해 일지』(*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것은 목적론적 사고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what could be)이다. 다시 말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what should be)와 연관된 것으로서 “무엇이 실제로 존재 하는가”(what actually ‘is’)에 대한 존재론적 철학사상이 내포되어 있다(160).<sup>28)</sup> 따라서 비목적론 사상은 ‘왜’ 대신에 ‘무엇’ 또는 ‘어떻게’하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있는 그대의 현상 그 자체로 생각하는데서 나오며, 정해진 ‘해답’이란 없을 뿐더러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만이 존재할 뿐이다(161).<sup>29)</sup> 스타

---

아니다. 그와 유사한 사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 특히 스페인의 사상가 미구엘 데 우나무노(Miguel de Unamuno)와 프랑스로 망명한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베르다예프(Nicolai Alexandrovich Berdyaev),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라리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프란츠 카프카(Franz Kafaka) 등의 시인과 작가에게서도 발견되며(Störig 896-897), 프랑스에서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나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에 의해 실존주의 철학, 문학으로 확고하게 정립 되었다.

28) 프레드릭 브라커(Fredric Bracher)는 스타인벡이 인간은 동물적 생애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비목적론 사상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식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의 작품에서 표현한다고 설명한다(196). 스타인벡은 자신의 단편인 「뱀」(“The Snake”)의 구성에 대한 자세 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코르테즈 항해 일지』(*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의 1951년판에 발표된 에세이인 「에드 리케츠에 관해」(“About Ed Ricketts”)에서 그 단편에 등장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집필했다(Timmerman, *TDL* 200). 스타인벡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절친한 친구인 리케츠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대로’ 말해 준 그의 생물학 실험실에서 의 과거 실제 사건과 연관시켰다(Steinbeck, *Cortez* 239).

29)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가 이해하는 실존이란 단순하고 순수하며 적나라한 존재, 즉



인벡은 칸트의 우주 만물은 '인과관계(causality)'로 설정되어 있다는 목적론 주장에 반대하는 쇼펜하우어의 비목적론(non-teleological)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정확성을 강조한 동시에 원인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추측을 거부했다(Wicks 11).<sup>30)</sup>

인간의 이성과 완전성을 믿었던 비평가들에게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중요한 존재도 아니라는 제퍼스의 '비인간주의'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Vardamis 51). 또한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별개의 것이며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인본주의[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모든 생명체는 커다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sup>31)</sup>

제퍼스의 비인간주의가 스타인벡의 범신론적 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알아본 전기적 사실에서 뿐만 아니라 『미지의 신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연과 생태계에 속한 일부분에 불과한 바이고 섹슈얼리티가 가지는 힘과 효과는 이러한 일원론의 한 징표가 된 셈이다.

---

존재 자체, 즉 어떤 무엇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있는 무엇이다. 그가 이해하는 실존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저서 『구토』(Nausée)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일 것이다. “그것은 숨 막히는 사건이었다. 사나흘 전만 해도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 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봄옷을 입고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그들처럼 ‘바다가 푸르다, 저기 저 하얀 점은 흰 점, 그것은 갈매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난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점, 갈매기가 존재하는 갈매기라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평상시에 존재는 숨어 있다. . . . 그런데 갑자기 달라져 버렸다. 갑자기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대낮처럼 뚜렷해졌다. 존재가 갑자기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 범주에 속하는 무해한 자기의 모습을 잃었다. 그것은 사물의 재료 그 자체이며, 그 나무의 뿌리는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Sartre 222-233). “존재란 단순히 거기 있다는 것뿐이다. 존재라는 것은 나타나서 만나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하지만 존재는 결코 연역할 수는 없다”(299). “존재란 멀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 위에 떨어져 거대한 짐승처럼 우리의 마음 위에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231).

30) 스타인벡의 비목적론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작품으로는 『미지의 신께』(To a God Unknown)를 포함 해 『의심스런 싸움』(In Dubious Battle), 『천국의 목장』(The Pastures of Heaven), 『또띠야 평야』(Tortilla Flat), 그리고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등이 있다.

31) 예를 들어 비인간주의를 명제로 하고 있는 제퍼스의 시 「얼룩 털의 종마」(“Roan Stallion”)는 인간성, 즉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그 시작의 한계성에 대해 “인간성은 부수어야 할 틀, 깨트려야 할 껍질, / 불에 태워야 할 석탄, / 쪼개져야 할 원자”(Humanity is the mould to break away from, the crust to break through, the/ coal to break into fire,/ The atom to be split)(Jeffers, SP 125)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시적 또는 주술적 사상은 공교롭게도 인간은 비이성적이라는 하나의 명제에서 1819년에 쓰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 가능한 실재(sensible reality)의 이론과 일치해 보이고 있다.

즉,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바는 오로지 인간의 의식 또는 현상계의 대상일 뿐이지 소위 기성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이 본질계에서 인간의 인식체계를 지배하지도 않고 명령할 권리도 없음이고, 그 대신에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생성소멸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지의 형이상학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된다는 것이다”(To be is to be perceived)라는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의 기본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ind and Fly). 또한 쇼펜하우어의 인식론(epistemology)으로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The world is my representation)(Schopenhauer, *WI* 3)라는 테제는 『미지의 신계』에 나타난 걸로 보기에 변태적이며 원시적인 등장인물들의 성의지의 비이성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주인공 조셉이 자연물인 토지와 섹스를 하는 점<sup>32)</sup> 그가 발견한 공지가 지니고 있는 신비스러운 성적 매력, 그리고 유난히 조셉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사랑한 남근형의 바위 등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의지 중의 하나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이 틀림없는 것이다.

이제 소설의 스토리로 들어가면, 주인공 조셉 웨인(Joseph Wayne)이 그가 살았던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자신의 형제들끼리 나눌 만한 땅이 많이 없으니 자신이 서부로 가서 개간을 하겠다고 그의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요구하여 결국 승낙을 얻어내고 떠나게 된다. 서부로 온 조셉은 이곳의 토박이 파이자노(paisano)인 늙은 후아니토(old Juanito)를 만나게 되고,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느낀 조셉은 그가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을 보러 캘리포니아로 왔다고 느낀다. 이러한 사연과

32) 미셸 투르니에(Michel Tournier)의 소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의 주인공인 로빈슨 쿠르소가 자연물인 대지와 결합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과 합일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를 감싸고 있는 그 대지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옷을 벗었다. 두 팔을 십자로 벌린 채 흥분한 배를 깔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거대한 대지의 몸을 껴안았다. . . 그의 성기는 마치 보습의 날처럼 땅바닥을 파고들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거대한 연민 속에서 분출했다”(Tournier 155).

결의를 가진 그는 그가 개척한 농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하나의 자연물에 대한 동화현상으로서 애니미즘적(animism)인 섹슈얼리티를 발산하게 된다.<sup>33)</sup>

“그는 그의 뺨을 축축하게 젖은 줄기들에 대어 풀밭에 얼굴을 마주하고 누웠다. 그의 손가락들은 그 젖은 풀들을 움켜쥐고 나서 찢듯이 뽑아내고, 또 다시 움켜쥐었다. 그의 허벅지는 땅 위로 힘차게 부딪혔다.”

“He flung himself face downward on the grass and pressed his cheek against the wet stems. His fingers gripped the wet grass and tore it out, and gripped again. His thighs beat heavily on the earth.” (TGU 8)

또한 조셉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은 태어난 순간 어머니 자연과 분리된다. 이것은 항구적인 결여가 됨으로 하여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 공포감을 메우고자하는 것이 스타인벡이 이 소설에 담고자 하는 성의지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통합하고 합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sup>34)</sup>

한편 늙은 멕시코 트럭운전사 로마스(Romas)를 만난 조셉이 왜 이렇게 마을에 사람이 없냐고 묻자, 그는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며, 2년마다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낸다고 조셉에게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여기에서 스타인벡은 아마도 인간은 세상의 아름다움 또는 가치를 창조해내지 않고, 단지 이를 변경하거나 특별하게 사색적 성질을 부여할 뿐임을 마지막 부분에서 조셉의 희생을 제시한다. 제퍼스는 이러한 결말을 인간의 종착

33) 정상적인 이성을 만나서 섹슈얼리티가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연물과의 교감으로 인한 느낌을 통해 성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34) 프로이트의 원초적 상실, 멜랑콜리로 해석될 수 있다. 프로이트에게 사랑은 소유욕망이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이자 멜랑콜리의 고유한 징후라고 알 수 있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선형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 상실감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항상 이별이 뒤따르게 되어 다시 자기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재차 반복하게 된다. 플라톤은 『향연』(Symposium)에서 에로스[사랑]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반쪽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밝힌다. 결국 사랑은 갈라진 자기 반쪽과 재결합하려는 욕망인 것이다(김동규 280-82). 이것은 제퍼스의 시 「성스럽게 넘쳐흐르는 아름다움」(“Divinely Superfluous Beauty”)에서도 알 수 있다. “아, 우리의 사랑도 / 결합되게 하라. 그대를 향한 나의 피보다 더 / 불 타 오르고 굶주린 처녀는 없다.”(O let out lose too / Be joined, there is not a maiden / Burns and thirsts for love / More than my blood for you)(Jeffers, ARJ 23).

적인 의식 또는 추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Brophy ix). 즉, 그에 따르면 역사는 신성한 우주적 변화의 과정이자 인간의 지속 기간이며, 그것이 전체적인 우주의 유기적 관계에서 벗어나면 무의미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소설의 비극의 원인인 가뭄은 19세기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항상 등장한 재해이었던 바, 물의 통제가 곧 대지의 지배를 의미함이며 물의 유용성은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작용했음이다(Cassuto 71).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후아니토가 조셉의 목장을 돌아와 그의 친구이자 목장 일꾼이 된다. 조셉의 그의 형 버튼(Burton)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가 있는 서부로 모든 가족들이 가서 살고 싶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조셉은 그의 아버지의 영혼이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집 옆의 큰 오크나무(great oak)에 깃들었다고 느끼고, 그 나무에 키스를 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환영한다. 여기서 큰 오크 나무는 조셉에게 있어 또 하나의 신의 개념의 개념, 즉 자연은 곧 신이라는 범신론적 자세를 취한다.

조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을 때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고 멍멍해졌다. 그러나 그는 슬프지 않았다.”(His mind was inert and numb, but there was no sadness in him)(TGU 18)고 그의 감정을 서술한다. 제퍼스는 “사랑, 증오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 대신에 합리적인 초연을 행동의 규범으로써 삼는다”(Jeffers, PRJ 428)라고 비인간주의 초연에 대해 설명했듯이 이는 모든 집중을 인간 내부로부터 외부로 전향될 때 진정한 초연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죽음에 대한 조셉의 초연함은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남동생 벤지(Benji)의 죽음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해 조셉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을 알기에 그의 죽음을 설령 내가 알았다고 한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TGU 64).

이와 같은 조셉의 태도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족애라는 기본적인 정서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함이며,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Elizabeth)가 허무하게 비명횡사하게 된 경우에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아내가 죽은 날 밤 그의 형수인 라마(Rama)와 육체적 관계를 가진 사실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부부간에서만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인벡의 노골적인 비이성성은 그의 아내 캐롤과 캠벨간의 불륜적 사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이며 성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를 역행함이다.<sup>35)</sup> 이것의 또 하나의 예로서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시동생 벤지(Benji)를 사랑하는 장면이다. 즉, 그녀는 벤지의 노랫소리를 듣고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남자를 사랑해. . . .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를 무엇보다 사랑해. 주여, 나의 본능으로 나를 이끌어주소서. 내가 이 남자를 가지게 해 주소서”(I love this singing man. . . . I have never seen his face and I love him more than anything. Lord Jesus, help me to my desire. Help me to have this man)(TGU 45-46)라고 말한다. 하지만 벤지의 노랫소리가 희미해짐에 따라 그녀는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비이성적임을 표현하고 있음이다.

이 작품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내용들은 신비주의로 덮여있으며, 조셉의 형제들이 서부로 이사를 오자 한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인 그는 형 토마스 그리고 후아니토와 함께 이 지역을 순찰하는 동안 크고 둥그란 모양의 빈터를 발견에서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는 반짝이는 바위는 발견하게 된다. 그곳에 대해서 후아니토가 그에게 고대 인디언들이 임신과 같은 축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성을 느끼게 된다.

빈 터의 중앙에는 짐채만큼 큰 바위가 있었다. 그 모습은 신비하고 웅장했다. 그 형태가 마치 교묘하고 현명하게 보였지만, 기억하는 한 그런 바위를 본 적이 없다. 푸른 짙고 무성한 이끼가 부드러운 털처럼 바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 바위는 마치 녹아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제단과 같았다. 바위 옆에는 다섯 손가락 모양의 양치식물로 장식된 조그만 김정 동굴이 있었다. 그 동굴로부터 조용히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물줄기는 작은 빈 터를 가로지르며 공지 외각에 있는 얽힌 덩굴숲으로 사라졌다.

In the enter of the clearing stood a rock as big as a house, mysterious and huge. It seemed to be shaped, cunningly and wisely, and yet there was no shape in the memory to match it. A short, heavy green moss covered the rock with soft pile. The edifice was something like an alter that had melted and run down

35) 예를 들어 프로베르(Flaubert)의 엠마 보바리(Emma Bovary)는 그녀의 잘생긴 정부와 부자인 남편을 동시에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강한 섹슈얼리티의 이면에는 생리학적인 비밀이 있다. 즉, 여성은 그녀가 오르가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남성의 정자를 자신의 몸에 얼마만큼 간직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Nye 222). 한편 남성의 생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만, 굳이 육체적 관계를 갖은 여성의 난자에 자신의 정자가 착상되길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정자가 자신이 만들어놓은 통로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그것을 공격하려고 한다(Nye 223).

over itself. In the side of the rock there was a small black cave fringed with five-fingered ferns, and from the cave a little stream flowed silently and crossed the glade and disappeared into the tangle brush that edged the clearing. (TGU 31)

그러한 기운은 분명히 섹슈얼리티의 자연성을 의미한 것이며, 스타인벡이 인간의 성적 만족감이 강렬한 자연의 힘과 동일함을 묘사하기 위해 여성의 성기 내부를 신비롭고 고귀한 숲속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자연은 단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미덕과 가치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초월적인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재형상화이라는 견해와 일치된다(김구슬 218). 문제는 제퍼스가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따른 “욕망”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인간 생존에 절대가치화가 되는 것이 삼가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발생(generation)은 자연이 그것의 존재를 영속화하는 방법이고, 의지라는 맹목적인 열정은 그 자신을 생식기관에서 가장 예리하게 정체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한 개인이 가지는 성적 즐거움과 생동감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고통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성적 쾌감이 덧없어지므로(evanescent), 설령 그것에 대한 욕망이 빠르게 재생되기도 하지만 결핍과 좌절이라는 고통 속에서 종결됨이 인간들의 보통의 삶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퍼스는 이러한 성적 본능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인간성의 하나이므로 이것을 벗어 던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그의 장편 시 「비극 너머의 탑」은 인간성을 버리고 외부세계로 향하는 것만이 폐쇄적인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퍼스의 비인간주의의 핵심을 극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자의식을 해체하는 동시에 우주에서 인간과 인간의 의식이 항상 창조성, 의미, 그리고 가치의 중심이었다는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신념을 공격하고 있다(김은성 48).

이러한 비이성성의 메시지들은 『미지의 신계』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하나같이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년 맞이 파티에서 안젤로(Angelo)신부가 설교를 마치자 조셉이 와인 잔에 와인을 가득 담아 채운 후 땅에 부어버리고 큰 오크나무에게도 와인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 신부는 조셉을 주시 한 후 신성모독이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조셉의 형 버튼도 이 파티는 악마승배라고 불만을 터트리며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진탕 마시고 노는 것이 정점에 달하자 비가 내리고, 엘리자베스가 파티 도중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히자 조셉은 곧장 오크나무로 가 자신의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한다. 이어서 조셉은 나무의 가지가 시작되는 곳(crotch)에 고기를 바치고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첫 번째 육체적 관계를 가졌던 공지의 바위를 보고 온다.

일종의 토템 신앙으로 보이는 이러한 묘사는 독자들과 비평가들에게 모두 신비주의의 소산으로만 보이지만, 나무는 남근을 그리고 공지의 바위는 여성의 음핵을 상징하고 있음이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나는 그 바위를 사랑했어요. 설명하긴 어렵지만요. 나는 그 둘은 당신이나 우리의 아이, 또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했어요”(I love the rock. It’s hard to describe. I love the rock more than you or the baby or myself)(TGU 127)라고 말하며 자신을 그 바위로 데려가 달라고 조셉에게 부탁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녀의 강한 섹슈얼리티와 그것을 해소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이며 이곳에서 미끄러져 죽은 것 역시 그러한 욕망의 결과인 셈이다.<sup>36)</sup>

이 대목과 연상이 되는 제퍼스의 시 「얼룩 털의 종마」(“Roan Stallion”)에 대해서 팀 헌트(Tim Hunt)는 대상, 캐릭터, 독자들은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퍼스의 주장이 이 시에서 여성 주인공인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성숙해가는 의식의 딜레마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rophy x). 즉, 그녀는 마치 자연의 힘에 끌리듯 얼룩 털을 한 종마에게 끌리게 되며, 갈등 관계의 점질적인 심화를 통해 보다 심오한 존재와 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소설의 절정에 이르러 가뭇과 기근이 들자 조셉은 빈 터로 가 바위를 헌신적으로 돌보게 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감각과 경험을 가진 후

36) 미지의 신계 원본에는 엘리자베스가 그의 남편 조셉의 남동생인 벤지(Benji)와 육체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짧은 이상한 장면은 캐롤이 캠벨에게 느낀 매력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스타인벡은 그 장면을 벤지가 아닌 낯선 이들이 엘리자베스의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다시 썼다. 캠벨을 연상하게 하는 벤지는 나중에 다른 남성이 부인과 밀회를 즐기는 중에 살인을 당하는데, 이는 캠벨이 자신의 부인과 바람피움에 대해 의도적으로 복수한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Shillinglaw 121).



아니토는 “해안가에 안개가 꺾어요. . . . 서풍이 부네요. 비가 내릴 거예요”(The fog is one the coast. . . . The wind is from the west. . . . it must rain)(*TGU* 174)라며 하늘을 보며 비가 곧 올 것 같다고 말하지만 조셉은 듣지 않는다. 결국 조셉이 자신의 손목을 베어 그 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위를 살리고 가뭄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는 칼을 다시 꺼내어 그의 손목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었다. 처음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지만 금세 둔해짐을 느꼈다. 그는 이끼 위로 뿜어내는 선명한 피를 보았고, 숲 속에 부는 거친 바람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고, 시간이 점점 흐르자 조셉 또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옆으로 누워 그의 손목을 뺐었고, 그의 몸의 검고 긴 산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몸이 커지며 가벼워졌다. 그의 몸이 하늘 안으로 오르더니 몸으로부터 세찬 빗줄기가 세어 나왔다. “나는 알았어야 했다.” 그가 속삭였다. “나는 비야.” 그러나 그는 덩뎅하게 자신의 몸이 산맥들에서 언덕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휘몰아치는 비를 느꼈고, 그것이 땅 위로 후두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의 언덕들이 습기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곤 세상의 중심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나는 대지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비야. 이제 곧 내 몸에서 풀이 자랄 거야.” 그리고 폭풍은 거세졌고, 어두움과 세찬 물줄기가 온 세상을 덮었다.”

“[H]e took out his knife again and carefully, gently opened the vessels of his wrist. The pain was sharp at first, but in a moment its sharpness dulled. He watched the bright blood cascading over the moss, and he heard the shouting of the wind around the grove. The sky was growing grey. And time passed and Joseph grew grey too. He lay on his side with his wrist outstretched and looked down the long black mountain range of his body. Then his body grew huge and light. It arose into the sky, and out of it came th streaking rain. “I should have known,” he whispered. “I am the rain.” And yet he looked dully down the mountains of his body where the hills fell to an abyss. He felt the driving rain, and heard it whipping down pattering on the ground. He saw his hills grow dark with moisture. Then a lancing pain shut through th heart of the world. “I am the land,” he said, “and I am the rain. The grass will grow out of me in a little while.” And the storm thickened, and covered the world with darkness, and with the rush of waters.” (*TGU* 183-184)

사실 스타인벡이 『미지의 신계』를 집필할 무렵 이 소설에는 “사실주의 담론을 배제하겠다”(leaves realism farther and farther behind)(*TGU* xii)고 선언했지만, 이것에 주제와 인물설정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요소가 편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연적이 된 셉인 캠벨의 신화주의 또는 상징주의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즉, 후아티노의 말처럼 이 지역의 실제 기후를 감안해보면 비가 내리게 되는 시점이 절묘하리만큼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



하고 있는 점도 이 소설이 가진 매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셉 미커 (Joseph W. Meeker)가 그의 명저 『생존의 희극』(*The Comedy of Survival*)에서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안티고네」(“Antigone”)를 예로 들어 보이듯이 비극은 서구 문명의 전통적 특징이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과 인간 정신의 기적을 강조할 때 비극은 탄생된다는 것이다(24-25). 이런 의미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려는 제퍼스의 끊임없는 노력만큼이나 이 소설은 신성한 비극을 신성한 희극으로 바꾸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 C. 쇼펜하우어, 제퍼스 그리고 스타인벡

앞서 보았듯이 『미지의 신께』의 쓰기배경은 스타인벡이 『몬트레이 철학자』에서 소개된 것처럼 캐롤과 캠벨의 연애사건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충격과 그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범신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측면들이 제퍼스의 비인간주의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sup>37)</sup>과 유사하다는 것이 텍스트적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타트 트밤 아지”(Tat tvam asi)라는 즉, “이것이 바로 너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대변할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든 인식이 너로 채워진다는 의미이며, 거기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으며 그것은 타자가 정한 소위 이성적 실천보다는 나의 의지만이 남는 세상이 된다. 또한 이 순간은 나의 주체와 객체가 한데 어우러짐을 인식함이다. 조셉이 죽는 순간 알게 되었던 자신이 비이고 땅이라고

37) 그의 박사논문 『충족원리의 네 겹의 근원』(*On the Fourfold Root of 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에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현상론을 추종하였던 점으로 보아, 그 대강의 내용은 충족원리가 경험되어지는 한 영역은 실제의 근원적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직관이 현재의 시공간에서 사물의 일관적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과관계의 사전적 정신범주와 함께 시공간의 초월적 형태들이 감각계의 통일을 구성하기위해 기능함이며, 그것들의 통일성은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러므로 모든 표상들은 의식을 위한 사물들의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해 정신구조에 의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말도 또한 알고 보면 자신의 밖이 아닌 내부에 우주와 자연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은 제퍼스의 비인간주의 사상과 비슷하다. 그들의 사상이 주장하는 것은 이성중심의 세계관, 곧 인간이 자연에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비이성적일 수 있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맹목적인 자기애에서 벗어나 실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현실에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의적인 개념 즉, 이성중심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퍼스는 분명히 인간의 성본능이 죽음본능 만큼이나 강렬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죽음 자체를 오히려 매우 행복한 순간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는 당위론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근원에 대한 비인간중심주의적 사유인 것에 속한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과대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러한 점을 깨닫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몬트레이 철학자』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비참함은 좋은 것이고, 고통 역시 좋은 것입니다. . . . 오직 절망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죠. 고통을 가진 희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 . . 곤경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길을 따라 통합이 이루어져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나는 내 손을 화염에 직접 넣을 것입니다.

Misery is good, suffering is good. . . . It's only despair that hurts us. Hope with suffering is the greatest gift in the world. . . . Trouble is good. It shows things up. Integration is to follow the path through pain. Well, what I need is pain. I'll put my hand directly into the flame. (TPM 131)

위의 인용문은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하고,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욕망에 의한 표상적인 삶을 초월해야 한다는 영원회귀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퍼스의 시 「비극 너머의 탑」(“The Tower Beyond Tragedy”)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레스테스(Orestes)가 시간을 넘어선 탑으로 올라가서 “인간성을 던져 버리고 이전에 존재했던 샘으로 들어갔다”(climbed the tower beyond time,

consciously, and cast humanity, entered the earlier fountain)(Jeffers, *SP* 140)고 한 부분에서 보듯이 비인간주의는 자연과의 신비주의적 합일성을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립자(isolato)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연 세계 너머의 형언할 수 없는 비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즉, 인간됨을 버림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고와 교만을 벗어나 버리고 생태계에서 인간도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IV. 『긴 골짜기』: 성의지와 이성<sup>38)</sup>

존 스타인벡이 그의 대작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의 집필을 마친 바로 다음해인 1938년 9월 그의 단편집 『긴 골짜기』(*The Long Valley*)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단편집은 『토띠야 평야』(*Tortilla Flat*) 및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의 작품처럼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들어 있었다. 스토리의 길이에 비해 많은 인기를 얻은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애니 로리 윌리엄스(Annie Laurie Williams)는 “『긴 골짜기』는 엄청난 작품이 될 것이다”(The Long Valley is getting marvelous press.)고 극찬했고, 스탠리 영(Stanley Young)은 “스타인벡은 미국의 대문호가 될 것이다”(Steinbeck would become a genuinely great American writer)라고 했으며, 클리프턴 패디먼(Clifton Fadiman)은 “여태껏 한 번이라도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단 한 문장이라도 경솔하게 다루지 않은 한 작가의 놀라운 단편집”(a remarkable collection by a writer who has so far neither repeated himself or nor allowed himself a single careless sentence.)이라고 평가하듯이, 『긴 골짜기』에 대한 비평가들의 호평이 쏟아졌다(Parini 255).

비록 로버트 휴스(Robert Hughes)와 메어리 로베르게르(Mary Rohrberger) 같은 비평가들이 스타인벡의 단편 소설이 장편 소설보다 낫다고 주장했다(Hughes,

38) 이 장은 「쇼펜하우어 성의지의 슬픈 사연들에 대하여」, 『영어영문학21』 제29권 제3호, 47-67 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SSF 15; Rohrberger 178). 그러나 스타인벡 자신은 『긴 골짜기』에 대한 평단의 반응이나 판매량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또한 앙드레 지드(Andre Gide) 역시 스타인벡은 “일부 단편 소설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이루었다”(Watt 42)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스타인벡의 작품에 담긴 다른 측면을 도외시하고 한 가지 측면만을 과대평가한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sup>39)</sup> 기실 스타인벡은 능력 있는 뛰어난 단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긴 골짜기』 이후 단편은 거의 집필하지 않았다.<sup>40)</sup>

이 단편 소설집 『긴 골짜기』에는 13편의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 「뱀」(“The Snake”), 「국화」(“The Chrysanthemums”), 「하얀 메추라기」(“The White Quail”) 그리고 「하니스」(“The Harness”), 이 네 편의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는 섹슈얼리티와 관계되어 있다. 스타인벡 실제 자기 자신의 삶에서 고민 했던 성의 문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올리브 해밀턴(Olive Hamilton)과 저술 당시의 아내 캐롤(Carol Henning)의 강한 여성성에서 받은 영감을 담고 있으며,<sup>41)</sup> 나아가 이성적 사고와 성의지간의 부조화에 대한 강한 저항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 속에 나타난 중심 생각들을 살펴보면, 쇼펜하우어의 의지 형이상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전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품들은 제퍼스의 비이성주의 사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장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형이상학에 기초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섹슈얼리티를 소재로 이성과 성의지의 관점에서 살피고, 성의지가 이성에 대해서 어떠한 양태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로빈슨 제퍼스(Robinson

39) 스타인벡의 전기적인 측면들 또는 사상적인 측면들을 도외시하고 단편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교적인 형식적인 측면만을 과대평가한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40) 그는 계속해서 단편소설을 저술했지만, 그 작품들을 발표하지는 못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발표되지 못한 단편소설들은 그가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그웬과의 이혼 후, 암울한 시기에 쓴 것이라는 점이다(Benson, TWA 203).

41) 스타인벡 가족의 역학관계, 즉 전우로서의 누이들과 총사령관으로서의 어머니는 그의 소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자연적 과정에 좀 더 가까웠던 그의 허구적 어머니는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정신적인 유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계층적이 아닌 생태학적인 통합적 역학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올리브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롤과 같은 강한 여성들을 존경하였고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과 했던 것처럼, 그는 친구나 절친한 친구, 조연자, 그리고 낯시 동료들이 된 여성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Shillinglaw 23)

Jeffers)의 장편 시 「갈색 종마」(“Roan Stallion”)와 존 스타인벡의 단편 소설집 『긴 골짜기』에 담긴 「뱀」, 「국화」, 「하얀 메추라기」 그리고 「하니스」에서 유사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들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비이성적 형태는 이성과 성의지 사이의 뚜렷한 갈등에 따른 존재방식을 말해주고 있으며, 제퍼스와 스타인벡의 작품세계가 쇼펜하우어의 성의지론과 유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건근 111).

### A. 쇼펜하우어의 의지 형이상학과 성의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황금분할처럼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의 배후에 이성적인 비례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 조각품들에도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인 느낌 배후에도 이성적인 비례가 있다. 그럴 정도로 서양의 사고구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성중심적인 사고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또 그것이 로마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유일 신앙을 토대로 이성과 유일 신앙이 서로 결합해서 서양의 어떤 정신사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통과 목적론적 사고는 적어도 이천여 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은 서양인들의 문화적, 정신적 유전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서의 목적론이란 모든 사물들이 선과 미의 형상으로서 가장 품격 높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에 종속된다는 사고방식을 말하며, 그 예로서 플라톤(Plato)은 “완벽한 원형, 삼각형, 구형의 속성들, 정의, 용기, 경건함 그리고 아름다움”( . . . perfect circularity, triangularity, sphericity, justice, courage, piety, and beauty)(Wicks 1)을 형이상학적 진리인 형태의 근거들로 삼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칸트(Kant)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좀더 초월적이고 단언적인 세계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즉 그는 『순수이성비판』(the Critique of Pure Reason)에서 이성에 기초한 물자체(thing-in-itself)를 영원하고 자비로우며 지고지순한 진리로서 간주하고,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윤리적 규범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지주의 경향에 반  
 대하여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우주의 핵심은 오히려 맹목적이면  
 서 무방향적인 인간의 충동에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칸트의  
 형이상학적 모델에서 이성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의지(*will*)로 대체시키고 있  
 다. 그 근거로서 쇼펜하우어는 그의 박사논문인 『충분근거율의 네 가지 뿌리에  
 관하여』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상에 대한 경험 즉 표상에 대해 인간은 오성, 이  
 성, 순수 직관, 자기의식의 능력을 가지고 생성(*becoming*), 인식(*knowing*), 존재  
 (*being*), 행위(*acting*)의 단계를 거치는 경험적이라기보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그의 주저인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첫 문장을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The world is  
 my representation)(Schopenhauer, *WI* 3)라고 시작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표상이 이성적 판단이라고 자부한다는 사실은 사물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주관  
 의 제약을 의미함이라는 것이다. 이렇듯이 쇼펜하우어는 이성의 자기 충족성을  
 거부하고, 의지야말로 유일하고 확일적인 실재이며, 인식적 표상들의 영역으로  
 파악하는 주지주의 입장을 표방한다(Wicks 13).

이를 요약하면 플라톤과 칸트의 형이상학은 목적론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쇼펜하우어는 이것들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비목적론을 표방하고 있다. 쇼  
 펜하우어는 당시 피히테(Fichte)와 셸링(Schelling) 그리고 헤겔(Hegel)이 나폴레옹  
 전쟁이후에 독일에서 유행하던 낭만적 민족주의(*romantic nationalism*)에 부응하  
 여 사회를 통합시키려고 했던 이상주의적 경향에 오히려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었다.<sup>42)</sup>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의지는

42) 한편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의 독일의 사회에서의 애국주의 또는 독일 제일주의의 경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 책의 개정판이 최초로부터 이십 육년이 지난 후에  
 야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책이 출간되는 한 동기로서 그가 당대의 최고의 명성을 가지  
 고 있던 피히테의 강의를 들었던 바는 그것에 대한 깊은 감명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낙관주의  
 와 허상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세주의적 견해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  
 다. 즉, 피히테는 이성의 작용 즉 “끝없는 명상과 계속된 자기진보가 일관되고 완전히 집약적이  
 고 도덕적인 세계 또는 가상의 지상위의 천국을 향해서 꾸준하게 전진하고 있음을 구성하  
 는”(never-ending reflection and consequent self-enhancement constitutes an ever-increasing  
 advance toward a coherent, thoroughly integrated, moral world, or virtual  
 heaven-on-earth)(Wicks 3)과정으로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위에서 밝힌



욕구와 충동 또는 그에 따른 노력 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물리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정신작용으로서 욕망에 더 가까운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내재적 결여의식에 원인을 두고 있다. 동시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로 인한 고통이 타자성의 표상들과 함께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불만족을 낳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hapshay).

한편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은 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욕은 “삶에의 의지의 본질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이서규 258).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권의 44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성의 주제가 인류에게 가장 보편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루소(Rousseau)를 비롯한 지도적인 철학자들이 불충분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다루었지만, 그에게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며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chopenhauer, *WI* 533). 더 나아가 그는 성욕의 해소가 “‘거의 모든 인간의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겨지며], 그것이 그러한 노력의 매개체라고 불릴 만하다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전체 종의 주제가 된다”(“the ultimate goal of almost all human effort,’ but if anything deserves to be called the agent of such effort it is not individual subject, but the species)(Janaway 208)고 한 것을 감안하면, 성에 대한 의지 즉 성의지는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인류전체의 보편적인 의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만하다. 이런 점에서 내면적인 성의지가 의식의 단계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사고 과정들보다 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이 작품들의 난맥상을 주로 심리적 또는 낭만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이 논문은 인간들에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성의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로서 「갈색 종마」에서는 주인공 캘리포니아(California)가 그녀의 남편 조니(Johnny)의 성적 폭력과 무시를 견디며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성의지에 대한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보

---

마치럼 이러한 견해를 그야말로 애매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오히려 인간의 의지는 플라톤이 말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음에 더하여 그것의 내부적 부조화와 함께 수많은 사고들이 긴장과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온갖 폭력과 고통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 있다.



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편 「뱀」과 「국화」는 성의지가 문명과 과학이 정한 이성의 세계에 돌출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 「하얀 메추라기」와 「하니스」는 의식세계에서의 이성의 힘이 무의식적인 성의지를 억누르고 있기에 각 등장 인물들이 고통과 번뇌를 겪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B. 「갈색 종마」에 투영된 스타인벡의 성의지

제퍼스는 그의 비인간주의(Inhumanism)를 통해 이성의 비이성성을 제거함으로써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인간만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것에 저항한다. 이에 대해서 김구슬은 제퍼스의 시들이 자연과 인간의 본성 사이의 간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양철학의 기본 원리를 보여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212 참조). 김원중은 비인간주의의 요체가 도가의 무위(無爲)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3 참조). 또한 스타인벡은 동양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피터 리스카(Peter Lisca)가 『존 스타인벡—자연과 신화』(*John Steinbeck: Nature and Myth*)에서 『통조림 공장 거리』(*Cannery Row*)가 출간되기 바로 이전 해인 1944년에 출간된 린유탕(Lin Yutang)의 영역본을 통해 스타인벡이 노자의 책에 익숙했을 것이며, 노자의 40여 페이지에 불과한 얇은 책자에 익숙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주장으로 알 수 있다(MN 117).

따라서 『통조림 공장 거리』에 드러나는 주된 사고는 노자의 『도덕경』(*Tao Te Ching*)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리스카는 자신의 추정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타인벡이 『창작일지—에덴의 동쪽』(*Journal of a Novel: The East of Eden Letters*)에서 노자를 플라톤과 예수, 그리고 석가모니와 함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Steinbeck, JN 115 참조), 스타인벡이 노자사상에 매료되어 있던 리케츠에게 『통조림 공장 거리』를 헌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리케츠가 스타인벡으로 하여금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갖도록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김은성은 이 시들의 주제를 인간이 자신의 자아 중심적 내면세계에서 외부세계로 향함으로써 우주의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49 참

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퍼스의 철학은 자연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원리가 인간의 의식보다 앞선 것이며 상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을 역설하고 있다(정선영 242 참조).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합일하고자 하는 시인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간중심주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을 강조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의지, 즉 하고자 하는 바가 오히려 제퍼스가 강조하고 있는 생태의식에 훨씬 가까운 것이며, 그것의 한 예로서 성의지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갈색 종마」는 제퍼스의 장편시들 중 자연의 힘을 함의하고 있는 성의지가 가장 잘 함축되어 있으며, 형식은 상대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시구가 적지만,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점이 돋보인다.<sup>43)</sup>

먼저 「갈색 종마」는 운율이 없는 이야기 시로서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은 새들, 안개, 안개속의 보트들, 밤 등의 자연물과 인공물들을 통해 다소 신비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나서 등장인물들을 소개한다. 불과 이십 일세의 나이에 인디언, 스페인, 스코틀랜드의 피를 이어받은 캘리포니아는 우아하고, 생기발랄하며, 성의지가 충만한 외양을 지니고 있는 반면 그녀의 남편 조니로부터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는 방랑자적인 성격의 네덜란드인으로서 창백한 얼굴에 다 타버린 듯이 색이 연해진 푸른 눈은 그의 성의지의 상태를 말해 주는 듯하다. 다만, 그것의 여력이 남아 있어서인지 방탕한 성생활을 일삼은 까닭에 그의 몸은 더욱 더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날 게임과 음주를 탐닉한 조니가 도박의 전리품인 종마를 데리고 집으로

43) 제퍼스는 1925년 「갈색 종마」를 통해서 세간의 인식과 재정적인 보상을 받았다. 사실 그는 1912년 『병(瓶)과 사과들』(*Flagons and Apples*)에서 1954년 『헝거필드와 다른 시들』(*Hungerfield and Other Poems*)에 이르는 그의 42년의 경력에서 1930년 초에 전성기를 보이게 되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고전들을 배우며 성장했기에 그의 많은 시들은 성경과 고전들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하지만, 그가 캘리포니아의 카멜(Carmel)에 정착한 무렵부터는 폭력성과 비정상적인 성적 묘사를 서슴지 않았으며,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종교와 철학적 취향이 혼용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가하면, 그의 시는 극적인 힘과 함께 낭만주의와 자연주의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돌아오지만, 정작 그들의 딸 크리스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오지 않는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몬트레이로 가서 그 선물을 사오게 되는데, 그전에 조니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은지라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밤이 되어버렸고, 설상가상 비로 불어난 강이 그녀의 귀환을 힘들게 한다. 그녀는 마차를 포기하고 딸의 선물을 짓하지 않은 채 암말만을 타고 두 번에 걸친 월강을 성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친애하는 아기예수여, 오늘 밤에 태어나신 친애하는 아기예수여, 그대의 머리는 반짝이었지요”(Dear little Jesus,/ Dear baby Jesus born to-night, your head was shining/ Like silver candles)(Jeffers, *SP* 121)라며 기도를 하자 결국 아기예수의 형상을 목격하게 된다.

광채를 발하며 떠있는 그 아이는 아기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새들의 머리와 매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기위로 몸을 구부린 채, 그의 주위에 날개들의 그물을 짜서  
 그는 그 조그맣고 통통한 손을 하고  
 금으로 된 눈을 가진 조그만 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아래에서  
 비친 광채를 이용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The child afloat on radiance had a baby face, but the angels had birds'  
 heads, hawks' heads,  
 Bending over the baby, weaving a web of wings about him. He held in the  
 small fat hand  
 A little snake with golden eyes, and California could see clearly on the  
 under radiance. (Jeffers, *SP* 121)

위의 인용문에서 보인 새들의 머리와 매들의 그것은 기독교와 범신론적 사고가 혼재함과 우주의 본질이 인간세계를 초월하고 있는 자연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불어난 강물이 암말과 그녀의 성의지를 상징하고 있음과 크리스마스 날에 캘리포니아가 그녀의 딸에게 전할 있었던 사건을 전할 때 형상으로 표현된 사나운 종마는 그녀와 암말을 매료시키는 남성적인 힘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메어리라는 분이었지: 우리는 그녀에게도 기도를  
 해: 신이 그녀에게로 오셨어. 그는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다.

너 또는 나와 같은. 그의 아버지는 신이었지. 그녀는 그 종마의  
 아내—내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신의 아내를

...

그녀는 다른 어떤 여성보다 축복은 받은 분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훌륭했고, 그녀는 좀 더 사랑을 받았단다.

His mother was named Mary: we pray to her too: God came to her. He  
 was not the child of a man

Like you or me. *God was his father: she was the stallion's wife—what did I  
 say—God's wife,*

...

She is called more blessed

Than any woman. She was so good, she was more loved. (Jeffers, *SP* 123, 필자강조)

제퍼스는 예수를 금빛 눈을 가진 뱀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신을 우회적으로  
 종마와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강한 성의지를 가진 동물들을 통해서  
 캘리포니아가 이성의 문명이 정한 삶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의 가  
 정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신적인 희열감을 처음으로 맛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의지에 대한 이니시에이션 과정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역력하  
 게 드러나고 있다. 즉 먼저 이 장면에서 봄철이라는 계절은 비옥함과 재탄생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가 종마를 타고 언덕의 꼭대기에 오르는 장면에서 그것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조니가 말들을 교배하느라고 하루를 보내고 항상 그랬던 것  
 처럼 주말에 술을 마시러 외출을 하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번민을 달래려고 달빛  
 이 가득한 밤에 언덕위로 올라가려 말을 찾지만, 암말을 그녀의 남편이 데려간  
 상태임을 알게 된다. 그 대신에 그녀는 종마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두 번  
 째 성의지의 재현을 환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 내가 그대(아기예  
 수)를 잉태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면”(Oh if I could bear you!  
 If I had the strength)이라고 지난 겨울철에 맛보았던 쾌감을 회고하고, 종마를  
 타고 언덕을 오를 욕구를 강렬하게 느낀다.

놀랍게도 그녀가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종마를] 유용하지 않음에 싫어하였  
 음”(hated [the stallion] for his uselessness)(Jeffers, *SP* 123)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그가 [그녀를] 던지고, 짓밟는다고 해도”(if he throws [her], if he

tramples [her])(Jeffers, *SP* 127)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성의지는 종마에 올라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과정에서 더욱 배가된다. 즉 그녀는 “자기의 허벅지 사이에서 위대한 엔진의 힘, 달리고 있는 중인 근육들, 그리고 강한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feeling between her thighs the labor of the great engine, the running muscles, the hard swiftness)(Jeffers, *SP* 128).

무엇보다 그들이 언덕위에 오르자 종마의 위엄에 그녀는 자신의 성의지가 돌이킬 수 없음만큼 차오름을 경험하고 결국 “종마에게 무릎을 꿇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경배하는”(kneeling to [the stallion], brokenly adoring)(Jeffers, *SP* 129) 자세를 취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오 신이여 나는 충분하게 좋지 않습니다,  
 오 두려운 존재여, 오 강한 힘이여, 나는 끌리게 되었다오.  
 조니와 다른 남자들이 나를 가졌었지요, 그런데 오 깨끗한 힘이여! 나는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그의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그의 발굽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종마의] 앞발굽이 미치는 공간에서 울면서 마치 잠을  
 자듯 오랫동안 누워있었다.

She prayed aloud “O God I am not good enough,  
 O fear, O strength, I am dragged.  
 Johnny and other men have had me, and O clean power! Here am I,” she  
 said, falling before him,  
 And crawled to his hooves. She lay a long while, as if asleep, in reach of the  
 fore-hooves, weeping. (Jeffers, *SP* 129)

이후 제퍼스는 “한 커다란 짐승에 에워싸인”(covered by a huge beast) 그녀와 “별들이 망을 형성한”(the stars were netted) 갈기와 “태양과 달이 된 동공”(sun and moon were his eyeballs)을 가진 종마하코의 수간(獸姦)을 묘사하고 있다 (Jeffers, *SP* 130). 이러한 그녀의 성의지에 따른 황홀한 경험은 신과 말의 혼령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가 몰아지경에 이롭이며, 신의 장엄한 힘으로서의 성의지와 그것의 깨끗한 아름다움에 한 인간이 굴복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sup>44)</sup>

44) 이 부분은 그리스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극대화하는 두 개의 운문들이 개입함으로써 복잡한 구도를 보인 대목이다. 이러한 운문들은 제퍼스의 철학적 신조를 강화시키고 있는 바, “인간은 부수고 나와야 할 틀이다. . . / 쪼개어져야 할 원자이다”(Humanity is the mould to

하지만, 이후에 계속된 세 번째 섹션에서 캘리포니아는 인간성의 한 부분인 이성에 따른 인류라는 같은 종의 보존을 위해서 성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종마를 죽이게 되는 비극적 선택의 순간이 전개된다. 즉 조니가 하루 동안 외박을 하고 돌아온 저녁에 캘리포니아에게 아이를 침대에 누이고 자신과 술을 마시자고 거의 협박처럼 권한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성의지를 발견한 캘리포니아는 종마에게서 느낀 성의지와 남편의 허세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격을 확인하고 드디어는 탈출을 시도한다. 한편 조니는 집의 개 브루노(Bruno)를 시켜서 그녀의 뒤를 밟게 하고,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는 한낱 사냥감으로 전락된 상태로 마구간에 있는 종마에게로 간다.

한편 이 시의 마지막 장면에서 브루노가 조니를 구하기 위해 종마와 대치하는 국면에서 캘리포니아는 인간의 이성과 성의지의 사이에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다. 즉 딸 크리스틴이 잠에서 깨어나서 절망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 엄마를 목격하게 된다. 한편 크리스틴으로부터 소충을 건너 받은 캘리포니아는 말이 아닌 개를 쓰며 어두운 달빛이 장면을 흐리게 했다고 변명을 한다. 하지만, 아이가 그녀에게 종마에게 다시 충을 쏘라고 하는 가운데 종마는 조니를 이미 짓밟고 그의 시체를 진창으로 던진 상태이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하는 수 없이 신의 형상과 자신의 종인 인간과의 사이에서 순간적인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 충을 다시 종마에게로 겨누고 쏘으로써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딸과의 관계 즉 이성이 주관하는 현실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제퍼스는 종마의 “아름다운 힘이 흙으로 자리 잡았던 바”(the beautiful strength settled to earth)이며, 캘리포니아는 이성이라는 이름의 “여성의 가면을 그녀의 작은 딸에게 돌려주었다”(turned on her little

---

break away from . . . / The Atom to be split)(Jeffers, *SP* 125)라는 시구의 첫 번째 운문은 조니가 그 날 밤 동안 외박하러 떠난 직후에 등장하고, 두 번째 운문은 이 섹션의 마지막 부분 즉 종마의 발굽아래 놓일 때 위치하고 있는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성격으로 이것은 신화, 종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정교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신성시된 종마의 발밑에 누움으로 해서 캘리포니아는 인간이 순수한 자연의 힘에 융합됨을 의미한 것이다. 한편 이때 그들이 오르는 언덕은 예수가 걸었던 갈보리(Calvary)를 연상케 하며, 캘리포니아가 그녀가 간직한 인간성을 성의지로 전환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daughter the mask of a woman)라고 그녀의 슬픈 선택을 애도하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성의지의 표상인 종마를 죽임으로 “신을 죽인 여자”(a woman who has killed God)(Jeffers, *SP* 134)가 되어버린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경우에서 캘리포니아는 순결한 상태에서 이미 심오한 깨달음으로 바뀐 것인 바, 종마의 사라짐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상징이며, 그녀에게는 재생의 순간을 의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사랑, 신, 고통과 죽음을 알게 된 캘리포니아는 진정한 인간의 실체인 성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듯하다.

### C. 「뱀」과 「국화」에 나타난 성의지의 양상

제퍼스의 시에서 드러난 반이성주의적 성의지는 스타인벡의 단편소설들에서도 가감 없이 이성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들이 가진 두드러진 공통점은 성의지가 이성과 문명에 기초한 타자의 굴레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지만, 각 결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자 허무한 상태로 끝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들에 나타난 성의지는 무의식적(unconscious), 무배려적(uncaring), 초도덕적(amoral), 무목표적인(goalless)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동일하며(Wicks 2), 등장인물들의 성의지의 불만족에 따라 생겨난 “공허한 좌절감”(empty frustration) 그리고 그것의 미결정된 상태가 각 이야기들의 전반을 채우고 있다. 즉 이 작품들에서 이성의 대변자로 볼 수 있는 자들-필립스 박사(Dr. Phillips), 헨리 앨런(Henry Allen), 메어리 텔러(Mary Teller)의 남편 그리고 피터 랜덜(Peter Randall)-은 혼돈, 실망, 무력감을 넘어 자포자기의 양태까지 보이고 있다.

단편 소설집 『긴 골짜기』<sup>45)</sup>의 첫 번째로 수록된 「국화」(“The Chrysanthemums”)는 단편집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단편 소설은 뛰어난 걸작으로서 아마 스타인벡이 쓴 소설 가운데 최상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앙드레 지드(Andre Gide)는 “능숙함이 비범한 작품으로

45) 이 장에서는 이 작품을 LV로 약칭하고, 인용 시 괄호 안에 약칭과 페이지 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마치 체홉(Chekhov) 최고의 단편 중 하나를 보는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다 (Bernard 157). 스타인벡 자신 또한 이 소설을 매우 복잡한 매개체로 생각했으며 1933년에 그의 친구 조지 알비(George Albee)에게 「국화」에 대해 쓴 편지에 “이 작품은 [이 전의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르며, 독자들이 그 대상과 방법을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들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He designed it ‘to strike’ without the reader’s ‘knowledge’ so that s/he will realize that something profound has happened to him, although he does not know what nor how)(Steinbeck, *Letters* 91). 「뱀」(“The Snake) 스토리 역시 출판업자이자 스타인벡의 친구였던 오티스(Elizabeth Otis)는 이 소설의 초안을 읽고서 “지나친” 소설이라고 평하면서 출판을 하기에는 너무 기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teinbeck, *Letters* 114). 독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스토리를 잊어버릴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로버트 벤톤(Robert M. Benton)이 언급한 것처럼(26), 스타인벡은 이 소설의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조되는 주제에서 그리고 감상적으로 상당히 교란된 상태의인 등장인물들에서 독자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은 분명하다. 스타인벡 자신 또한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지적 동반자였던 에드 리켓츠(Ed Ricketts)의 실험실에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으로써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Tedliock 11).

먼저 「뱀」과 「국화」는 주인공들의 무의식적인 성의지가 예기치 않은 방문들을 통해 의식의 세계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뱀」에서 에텐동산으로 비유될 만큼 외롭지만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필립스의 생물학 연구소에 찾아온 뱀을 닮은 여인이 그곳의 온갖 실험도구들처럼 차가운 그의 이성 속에 담긴 성의지를 불러내는데 어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화」에서 남편 헨리와 지내고 있는, 겉으로는 지극히 평온한 목장에서 국화밭을 가꾸던 엘리사(Elisa)가 뜨내기 뱀장이의 평범한 방문으로부터 은근하면서도 불길 같은 성의지의 출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성의지의 의도되지 않은 도래와 관련하여 릴로이 가르시아(Reloy Garcia)는 “『뱀』의 통합적 원리’(unifying principle)를 ‘여성의 형태로서 악의 원리를 젊은 남성의 삶속에 도입’하고자하는 ‘일종의 이

니시에이션 주제”(the story’s ‘unifying principle’ is the ‘initiation theme,’ and that the story ‘is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evil, in the form of woman, into the life of a young man’)로 파악하고 있다(87-88). 그런가 하면 워렌 프렌치(Warren French)는 「국화」에서 당당한 풍채와 유능한 원예기술을 통해 성의지를 키워왔던 엘리사가 자신의 식물에 대한 다른 남성의 교묘한 관심표명 만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열어 보이는 취약한 면을 보인 점에 그녀의 고독함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64).

한편 이 두 작품들은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무대 밑에서 활약하던 성의지가 일시적이거나 이것을 뚫고 나오는 돌발적 양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우선 「뱀」과 「국화」의 첫 부분들은 주인공들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이성에 의해 갇혀 있는 성의지의 어느 정도 평온해 보이는 균형상태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예를 들어 「뱀」의 서두에서 필립스의 실험실의 “일부는 물 (bay water)위에 있는 부두(piers)에 그리고 일부가 육지위에 올려져있는”( . . . standing partly on piers over the bay water and partly on the land)(LV 49) 배경은 실제와 상상의 두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서 객관성과 주관성, 합리성과 비합리성, 의식과 무의식이 대비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Owens 162). 한편 「국화」에서는 첫 문장에서부터 이성과 성의지의 잠재적 갈등상황을 암시하는 듯 “산들에 의해서 막힌 폐쇄되고 구름이 가득한 세계”( . . . a closed-off, cloudy world sealed by the mountains)(Timmerman, ART 64)가 묘사되고 있다.

짙은 회색의 플란넬 천 같은 겨울안개가 살리나스 계곡을 하늘과 나머지 모든 세상들로부터 차단시켰다. 안개가 사방으로 여러 산 위를 마치 뚜껑처럼 덮어, 거대한 계곡을 밀폐된 항아리로 만들고 있었다.

The high grey-flannel fog of winter closed off the Salinas Valley from the sky and from all the rest of the world. On every side it sat like a lid on the mountains and made of the great valley a closed pot. (LV 1)

이와 같은 공간적 배경은 등장인물들의 심상치 않은 고독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의 원인이 자신들의 성의지의 불만족에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사건들이 없었다고 해도 성의지의 표출이 언제든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들에 나타난 이성과 성의지 사이의 대결국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면, 먼저 「뱀」에서 필립스는 실용성을 신봉하는 과학자로서 실험장비와 동물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고양이에 대한 생체해부(vivisection)를 하는 장면에서는 “자연적인 과정을 여흥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며, 사냥꾼이 아니라 생물학자인 그는 지식을 위해 수천의 동물들을 죽일 수 있지만, 재미를 위해서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He hated people who made sport of natural processes. He was not a sportsman but a biologist. He could kill a thousand animals for knowledge, but not an insect for pleasure)(LV 55) 것으로 보아 동물들의 삶과 죽음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그의 냉정한 이성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sup>46)</sup>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수컷 뱀과 쥐들을 구입할 것을 제의하고, 이 파충류가 설치류를 잡아먹는 것을 직접 보겠다고 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필립스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그녀가 필립스의 설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방울뱀에만 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그녀와 뱀이 동일시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냉담한 반응은 필립스에게 그녀를 뱀과 같은 동면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친 것이다. 실험실에 온 다른 사람들처럼 그 여인은 성급히 다가가지 않음으로 인해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태도[본능적인 성의지]를 밝히고자 한 스타인벡의 노력은 [박사의 권유와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야기 시켰다고 말한다(Ross 433). 따라서 그녀는 어떠한 말도 없이 자신을 잘 드러내며 특별한 행동도 없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그는 그녀의 눈은 밝았으나 나머지 몸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인 것과 그녀의 아랫입술과 턱이 짧고, 그녀가 머리를 치켜세울 때는 그녀의 검고 흐린 눈이 방 주위의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LV 57). 이후 뱀이 그의 턱을 쥐의 몸의 크기만큼 벌리고 삼키는 장면에서 필립스는 “만일 저 여인이 입을 벌린다면, 나는 메스꺼울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If she’s opening her

46) 스타인벡은 「뱀」에서 해양 생물학에 대한 그의 관심 및 동물과 인간의 행동의 유사성에 대한 공감을 분명히 내보였다. 대개 동물 세계와 인간 세계는 그 성격상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는 서로 상극되는 반대조차도 상호 불가피하게 연결된다는 개념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인벡의 비목적적 접근방식 그리고 그가 이 소설에서 묘사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관찰로 인해 「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또는 절대적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mouth, I'll be sick, I'll be afraid)(LV 58-59)라고 생각하고 여인으로부터 시선을 겨우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홀연히 떠난 후, 그는 그녀가 올 때 홀로 나가버릴 것이고 다시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LV 60), 수개월 동안 그녀가 오지 않자 못내 그리워한다. 이것은 쥐가 뱀과 대치한 장면에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It'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라고 하다가 그의 맥박이 두근거리는 순간 다시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It's the most terrible thing in the world)(LV 57, 58)라고 말을 바꾼 그의 이중적인 태도와 일치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의지가 이미 이성의 속박에서 풀려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sup>47)</sup>

한편 「국화」에서 엘리사는 다소 충동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여자인 반면에 그녀의 남편 헨리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지나치게 의식적(ritualistic)인 성격이 오히려 우둔해 보이기까지 한 점이 흥미롭다. 다시 말해서 헨리는 그의 아내의 국화재배에 대한 열정과 그것의 성공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나는 당신이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큰 사과를 키웠으면 좋겠소”(I wish you'd work out in the orchard and raise some apples that big)(LV 2)라며 여성의 성의지에는 무감각한 자이다. 즉 엘리사가 죽어 있던 땅이 단비를 맞아 겨울을 나고 그녀의 녹색으로 물들은 손가락들이 말하듯이 아름다운 국화를 성장시킴으로써 자신의 성의지를 그 꽃들에 담아 온 것에 반해, 그녀의 남편은 트랙터나 자동차와 같은 무생물적인 요소와 복싱 경기 또는 돈벌이와 같은 세속적인 이미지를 가진 점에서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음과 함께 연상될 수 있는 부조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찾아온 뱀장이는 상대적으로 말끔한 엘리사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남자이다. 즉 그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에서 엘리사의 몸은 “그녀가 정원 일을 할 때 입는 복장으로 덩치가 크고 무거운 모습”(Her figure looked blocked and heavy in her gardening costume)(LV 1)을

47)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나의 친척, 몰리노 소령』(My Kinsman, Major Molineux)에서의 주인공인 로빈(Robin)처럼 필립스 박사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의 인생관은 분명히 바뀌었다.

보이는 데 비해 뺨장이는 막대기 같은 울타리처럼 응크리는 자세를 취한다. 또한 그녀의 성의지에서 비롯된 힘은 그녀가 국화들에게 가지치기를 할 때 보이듯이 강렬하지만, 뺨장이는 그의 힘든 여정이 이유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성스럽고 공손하기도 하며, 심지어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엘리사의 국화들이 군인처럼 씩씩하게 성장해 있는 데에 비해 뺨장이의 덜컹거리는 마차를 끄는 말과 당나귀<sup>48)</sup>는 그들의 부조화는 놔두고라도 “물기가 없어 말라버린 꽃들처럼”(like unwatered flowers)(LV 4)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장이는 그녀의 남편이 가지지 못한 방법으로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준 교묘한 장사꾼으로서 엘리사의 눈에는 자유로운 성의지를 가진 자이다. 그는 “냄비를 고치고 칼과 가위를 갈지요”(I mend pots and sharpen knives and scissors)(LV 5) 또는 “굽은 냄비 또는 구멍 난 냄비. 당신이 새것을 구입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새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a bent pot, or a pot with a hole. I can make it like new so you don't have to buy now new ones)(LV 6)라는 식으로 성적 긴장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한다거나, “[국화의] 냄새를 좋아해요”(I like the smell myself)(LV 6)라며 엘리사가 소중하고 은밀하게 간직해왔던 성의지를 일깨운다. 이에 그녀 또한 뺨장이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에 더하여 국화들을 담은 화분을 선물로 주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는 뺨장이의 다리에 무릎을 꿇고 그의 때 묻은 검은 바지에 손을 옮기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뜨리며 “아양 부리는 개처럼 몸을 쭈그리고 앉은”(... crouched low like a fawning dog)(LV 8)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의 성의지의 힘이 그녀가 가진 이성의 힘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sup>49)</sup>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남편과

48) 뺨장이의 마차를 끄는 동물들(말/당나귀)는 잘못된 조합으로서, 이는 엘리사의 결혼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조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소설에서 피그말리온에 대한 그리스 신화 및 버나드 쇼(Bernard Shaw)의 동명 연극과의 유사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해석은 가부장적 지배 및 그러한 지배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을 억제하려는 시도와 지성이나 능력보다는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여성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방식 또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쇼(Shaw)의 연극인 러너(Lerner)와 뢰베(Loewe)의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의 뮤지컬 버전과 동일하다는 점, 꽃에 대한 엘리사의 관심은 꽃을 재배해 판매하는 엘리자 돌리틀(Eliza Doolittle)의 직업을 모방했고, 여성의 열등한 지위는 유명한 뮤지컬에서 “Why Can't a Woman Be More Like a Man”과 같은 노래에 나타나는 여성의 지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49) 스타인벡은 엘리사가 분명한 비굴한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열정적인 성적 암시와 욕

함께 외출하러 가던 중에 그 땀장이가 길 한가운데에 버려진 국화들과 함께 자신의 성의지가 무참히 짓밟힌 것을 알고 “늙은 여인처럼 가냘프게 울게 된다”( . . she was crying weakly – like an old woman)(LV 13).<sup>50)</sup>

#### D. 「하얀 메추라기」와 「하니스」에 나타난 성의지의 양상

이제 성의지의 두 번째 양상을 소개하자면 인간의 성의지가 이성에 기초한 타자에 의해 강하게 제압된 이유로 때로는 이성에도 도전해보지만 때면 무모하다할 만큼 실패하고 만다. 즉, 「하얀 메추라기」에서 메어리는 실제의 현상에서 거리가 먼 상상의 세계에 잠겨버리는가 하면, 「하니스」는 아내 엠마(Emma)의 철저한 간섭과 구속에 따라 행동하던 피터의 위선적인 행위와 그것에 따른 복수 불가능한 좌절감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화」에서 남성들과 이성 사회가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의해 엘리사의 성의지가 억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얀 메추라기」에서 메어리의 성의지는 그녀의 정신자체를 이성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하니스」에서 피터는 앞의 두 인물들보다 훨씬 강하게

---

망 모두를 암시한다. 엘리사의 남편이 그녀의 직접적인 성의지에 대한 좌절이라는 것은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Yano 56),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은 두 사람이 공유할만한 공통된 신뢰의 결실이 있음을 지적한다(McMahan 455). 이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음을 연상할 수 있는 무언의 불협화음을 알 수 있다(스타인벡은 자신과 캐롤의 자식이 없음에 대해 “개들이 자녀들을 대신했다”(Shillinglaw 69), “등장인물들을 ‘나의 아이들이면서’ 캐롤의 아이들로 느꼈다고 [스타인벡]은 반복적으로 말했다”(Shillinglaw 71)고 언급한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성적 흥분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하다.

50) 캐롤이 스타인벡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이 소설에서, 그는 ‘영원한 여성’에 비난을 가하며, 캐롤 자신의 감추어진 영혼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으로부터 이 작품을 저술하였다. 확실히 캐롤은 이 소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엘리사처럼 기르는 것을 좋아했다고 자신을 표현한다. 주부의 역할을 확장하여, 그녀의 살리나스 목장을 넘어 밝은 세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엘리사가 열망하는 욕구는 캐롤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캐롤의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을 포착하고 있다. 자신의 성의지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엘리사에게 열정을 복돋아 주었던 땀장이가 있었듯 엘리사와 같은 캐롤에게는 한때 자신과 마음을 나눴던 조셉 캠벨이 있다는 점을 보아 스타인벡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엘리사라는 인물을 통해 캐롤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캠벨과 캐롤의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 스타인벡의 작품에는 이상한 배반과 성적 에너지, 그리고 불안한 가족 유대는 그 일부분을 캐롤과 캠벨의 밀회에 빚지고 있으며, 「국화」 또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Shillinglaw 121).



억압되는 상태를 보이는 바, 구속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그는 이성의 멍에를 던져버리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51)</sup>

한편 메어리는 그녀의 남편인 해리 텔러(Harry Teller)가 그녀가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는 동시에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은”(LV 38)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 “그가 나에게 키스하는 것을 허락”(She let him kiss her)(LV 15, 17)했으며, 심지어는 해리가 그녀의 침실에 와서 그녀를 찾으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휴즈(Robert Hughes)가 「하얀 메추라기」는 줄거리나 등장인물들보다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Hughes, *BRP* 64),<sup>52)</sup> 메어리는 사실상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 줄 것을 조건으로 남편 해리와 불편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만, 그와의 동침은 극히 적은 횟수이고, 그 대신에 자신의 성의지를 정원에 심고 있다.

자연물에 대한 이러한 그녀의 강박증에 대해서 예술가의 개인적인 시각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존재의 유일한 가치와 이유를 지닌 예술에 [메어리의 삶이] 종속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impson 11). 여기에서의 예술은 성의지를 말하는 바이며, 메어리의 정원은 바로 성의지가 표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연히 나타난 하얀 메추라기는 그러한 성의 공간에 뛰어다니는 그녀를 표상한 것이다. 즉, 그녀는 이 조류를 보고 남편에게 “그녀는 [저 메추라기는] 나와 같아요. . . . 그녀는 나의 본질과 같아요. 그것은 온전한 순수함으로 귀결된 것이에요”( . . . She’s like me. . . . She’s like the essence of me, an essence boiled down to utter purity)(LV 23)라고 말하고, 이 새를 잡아먹기 위해 나타난 고양이를 향해서는 “[저 짐승이] 나를 따라 왔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The cat was after me. It was going to kill me)(LV 26)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두 개의 내가 있었다”(There were two me’s)(LV 19)라고 고백하

51) 전기 작가 잭슨 벤슨에 따르면 「하니스」에서의 피터의 상태는 스타인벡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의 죽음 이후에 보인 것과 연결될 수 있으며(285), 엘리사와 메어리는 열성적인 원예가이자 물입되는 경향이 강한 여성인 점에서 스타인벡의 첫 번째 아내인 캐롤 헨닝(Carol Henning)을 연상하게 한다고 언급되고 있다(Timmerman, *TDL* 184).

52) 해리 텔러가 우정, 친절함, 수용에 대해 가진 관심은 메어리의 차갑고 거리를 두는 성격 및 흰색 메추라기와 같은 독특함을 방해받지 않고 유지하려는 성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고 있듯이 일종의 정신 분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이제 「하니스」의 경우 피터와 엠마는 외견상으로는 어울리지 않은 부부이다. 피터는 키가 크고 커다란 몸짓을 가진 중년인 반면 엠마는 뼈가 앙상하고 늙은 여인처럼 주름지고 갈색이 되어버린 얼굴을 가진 여성이다. 그러나 피터의 눈빛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아내는 “살고자 하는 결심으로 불타는 듯한”( . . . feverish with a determination to live)(LV 77) 눈빛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성의지가 남편의 것보다 더 강렬함을 의미하기보다 “사회적인 구속이나 우리들 자신의 정신에 의해 부과된 속박”( . . . a harness either of social constraint or of the constraints imposed by our own mind)(Timmerman, ART 70)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터는 당시 사회가 요구한 규범에 예속된 존재로서 그들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내와의 만족스러운 성생활보다는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농사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그들의 부부관계는 엠마가 강요에 의해 피터가 자세교정용으로 그의 어깨 뒤로 착용하고 다녔던 옷 속 그물형 서스펜더가 암시하고 있듯이 위선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가 죽고 난 후 오히려 피터의 눈은 빛나며 심지어 미소를 짓기도 한다. 그리고 친한 이웃 에드 샐펠(Ed Chapell)에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푹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소. . . . 멬빵 끈 같은 것 말ियो. 그게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했지만 지금은 괜찮소”(It seemed like something snapped inside of me. . . . Something like a suspender strap. I made me all come part. I’m all right, now)(LV 82)라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한다. 결국 아내가 죽었을 때 그가 보인 애통해하는 모습은 거짓된 것이며, 이것은 그동안 그가 일 년에 일주일씩 샌프란시스코에서 즐겼던 혼외정사를 포함한 유람여행을 연상하게 하게 한다.

한편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두 작품들의 결말이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성의지에 대한 회귀와 이성에 대한 도전이 역시 실패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의지에 대처할 능력의 부재를 묘사하

53) 메어리 텔러에 대한 스타인벡의 신랄한 묘사의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첫 부인인 캐롤 헤닝(Carol Henning)과 가졌던 좋지 않은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Stanwood 87-94 참조).

면서도 또한 달성할 수 없는 극단적 이상을 지속적으로 갈구하는 인간의 성향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다. 메어리의 높은 자기중심성과 타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 거부에 수반되는 죄책감과 슬픔을 증명한다. 상호 반대되는 힘을 가진 메어리와 해리 그리고 피터와 엠마 모두 상호 이해를 구축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의지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차단된다. 즉, 해리는 메어리의 요구하고는 다르게 메추라기를 싸 죽이고, 피터는 아내가 금지했던 사향연리초(sweet pea)라는 비실용적인 작물을 심어 금전적인 성공을 거두고 연애행각을 시도한다. 그러나 해리는 스스로를 더러운 스킵크라고 자책을 하면서 “나는 너무 외롭다”(I’m so lonely)(LV 27)라고 말하는 가하면, 술 취한 피터는 “나는 전등들을 교체할 거야. 엠마가 항상 그것들을 원했었으니까”(I’m going to put in electric lights. Emma always wanted electric lights)(LV 92)라고 샤펬에게 말하고 침대에 돌아눕는다.<sup>54)</sup>

이러한 결말들에서 해리의 행동은 메추라기라는 성의지의 표상을 실제의 물건인 총으로 죽임으로써 그의 아내를 그녀만의 상상의 세계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즉 이것은 성의지를 주체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성적 세계를 성의지의 그것에 접목시키고자 한 것이지만 메어리의 성의지는 그러한 시도조차 부인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피터가 보인 음주와 연애행각은 자신이 잃어버린 성의지를 복구하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이성적 규율을 상징하는 엠마에 대한 의존성과 타성이 그로 하여금 또 다시 하니스를 착용하게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긴 골짜기』에 수록된 네 편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심리적 관심으로, 『미지의 신계』와 마찬가지로 이 단편들에는 스타인백이 경의를 표한 바 있는 로렌스(D. H. Lawrence)가 심취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Gide 280). 로렌스는 성의 본질을 우리 자신의 본질이며, 우리의 창조적인 흐름이자 정열적인 생명의 샘인 동시에 생명의 성스러움과 신비를 결합해주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54) 인간관계에서의 반목에 대한 스타인백의 관심은 그의 소설의 등장인물에서만 아니라 그가 이 소설에서 채택한 동식물의 이미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독함에 대한 강조 또한 성별의 차이 이외에도 연령, 인종, 계급, 정신적 능력을 포함한 더욱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인간 상태를 탐구한다. 이는 이후의 작품인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에서 주요 주제로서 등장한다.

(Lawrence, *DHL* 8), 인간의 본능을 중요시하는 생태적 자연관으로부터 인간성 회복을 귀결시켰다.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물질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며, 그런 물질주의로 인해 피폐해진 인간성 회복과 치유의 에너지로 보았다. 로렌스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 『채털리 부인의 연인』(*Lady Chatterley's Lover*)을 “현대 사회는 본질적으로 비극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비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 한다”(Ours is essentially a tragic age, so we refuse to take it tragically)(Lawrence, *LCL* 5)고 시작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하는 그의 증오를 나타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삶이 항상 과학만큼 정연한 것은 아니기에 성의지로 인해 절망에 빠진 심리적 초상들임에 분명해 보이며 (Timmerman, *TDL* 204),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비극적인 숙명인 것이다.

제퍼스의 시와 스타인벡의 네 편의 단편 소설들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성의지는 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인간의 성의지에 대한 또 다른 지평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성의지는 작품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매우 분명하게 포진하고 있는 주된 주제의식이다. 또한 스타인벡이 이 작품들에서 성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려 의도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 작품들은 분명히 삶의 조화 안에서 스타인벡의 열정적인 믿음을 인상 깊게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Goldsmith 74). 하지만 이러한 성의지가 무의식의 상태에서 불현듯 돌출하는 형태로 의식적인 이성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핵심은 의지이다”라고 의지의 형이상학적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모든 이가 마침내 획득하게 된 쾌락을 맛본 이후 경험해보지 못한 환멸감을 경험하게 된다”(everyone who is in love will experience an extraordinary disillusionment after the pleasure he finally attains)(Schopenhauer, *WI* 540)고 말한다. 이는 그가 “세상의 핵심인 그 의지의 [과괴적인] 압박을 최소화하게 될 때 신비스러운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the core of world is Will, but allows also that mystical, liberating states that can arise when we minimize Will's pressure)(Wicks 5)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철학자는 인간이 이성적인 삶만을 이상화하고 성의지를 하나의 동물적 본능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도 함께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지주의적 사고만으로는 현대인들이 가진 이유 없는 우울함과 몰락의 양상을 치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의지의 원시성 즉 이성과 윤리 또는 인간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속성과 이것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갈색종마」는 이집트와 극동지역의 수간적 신화를 글감으로 하여 주인공 캘리포니아와 같이 인간의 본질적 유산이라고 할 만한 성의지에 민감한 인물을 통해 인류 전체의 동질성을 보이려하고 있다. 한편 무명시절의 스타인벡이 쓴 네 편의 이야기는 어머니 올리브 해밀턴(Olive Hamilton)과 저술 당시의 아내 캐롤(Carol Henning)의 강한 여성성에서 받은 영감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이성적 사고와 성의지간의 부조화에 대한 강한 저항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성충동은 비열하고 천한 것이다”(mere sexual impulse is base and ignoble)(Schopenhauer, *WII* 549)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내적인 부족분을 채우려는 시도 즉 정신적 애정이 없는 탓이며, 인류의 종속을 위한 품격을 아랑곳하지 않고 양적인 쾌락으로 치닫는 세대를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 V. 『변덕스런 버스』: 성의지와 여성혐오주의

1947년에 출간된 『변덕스런 버스』(*The Wayward Bus*)<sup>55)</sup>는 작품전체가 여성의 몸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농후해져가면서 마지막 행선지에 다가서야 잠잠해지는 성적 뉘앙스가 다분한 작품이다. 이런 이유로 이 소설의 성적 함축성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있어 왔는데, 워렌 프렌치(Warren French)는 이 작품이 “감상적인 상징주의로 가득하다”(loaded with hokey symbolism)(108)고 말하고 있다. 잭슨 벤슨(Jackson Benson)은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가장 현실성이 없으며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TA 583). 또한 로이 시몬즈(Roy Simmonds)는 『변덕스런 버스』의 “상투적인 등장인물들”(stereotyped

55) 이 장에서는 이 작품을 WB로 약칭하고, 인용 시 괄호 안에 약칭과 페이지 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characters)을 대상으로 “당대의 문제점들과 걱정거리들을 언급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completely fail to address the problems and preoccupations of the times)(143)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조셉 알레그레티(Joseph Allegretti)는 전후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 윤리와 미국사회의 도덕률 그리고 사업과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예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오히려 이 작품을 칭찬하고 있다(155). 하지만, 더욱 중요한 논점은 이해가 가능하고 현실적인 사회성의 존재여부보다 삶의 의지(will-to-live)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성의지가 중심소재로 사용되면서 특히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묘사에 따른 여성혐오주의가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존 디츠키(John Ditsky)는 “이 소설에서보다 남성과 여성의 분화가 좀 더 예리하게 보인 적이 없다”(Nowhere is [the] sexual sundering [between the sexes] more sharply presented than in the novel)(136)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경향을 지나치게 이분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분분한 가운데 여성의 몸을 성적 도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비 곤잘레스(Bobbi Gonzales)와 미미 글래드스타인(Mimi Gladstein)은 이 소설을 스타인벡의 “여성혐오주의의 선언서”(Misogynistic Manifesto)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근거를 작가가 저술 당시의 아내였던 권들린 콩고(Gwendolyn Conger)와의 불행한 혼인관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성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변덕스런 버스』에 대한 종래의 분석은 대체적으로 전기적 사실 즉 소년기와 청년기에 작가가 경험한 그의 어머니와 첫째 부인과의 긍정적이지 못한 기억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피폐한 사회분위기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의 내용이외의 배경적 근거이외에 플롯과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나타난 성의지의 은밀하면서도 매우 활동적인 표상들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담고자 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표현을 마치 외설적인 흥밋거리로만 취급하여 여성혐오주의의 굴레 안에서 끊임없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렇듯, 필자는 이 장에서 『변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성의지가 객관화된 양상들을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성의지론에 비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보이고 있는 성의지의 표상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언행들을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한 후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작가의 여성혐오주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 성의지의 종족보존 목적성을 중심으로 한 쇼펜하우어의 성 형이상학과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니체의 역능이론을 살펴보고, 이 소설에 나타난 성의지의 내막을 이들 주의(主意)주의(Voluntarism) 철학자들의 의견에 접목할 것이다. 그 결과 『변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성의지는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이론보다 니체의 긍정적 사고인 역능의지에 더 가까운 것임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본질로서 성의지가 이성에 기초한 문명사회의 획일적인 도덕률보다 실제 인간의 삶을 더욱 우세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라도 인정한다면 이 작품에 대한 그 동안의 페미니즘적 비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A. 성의지의 표상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과 신화를 비롯하여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브들이 세상의 모든 죄의 원형이며 죽음의 근원으로 간주하듯, 모든 서구 문명에는 여성을 감정적, 즉 비합리적인 존재로 표상하는 전통적인 서구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서구 문명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제2의 성으로 취급되어온 여성에 대해서 수많은 문학가들이 일관되게 여성혐오적인 주제의 작품들을 생산해왔다. 스타인벡의 열 번째 소설 『변덕스런 버스』는 이러한 경향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까 종료된 1947년의 당시 미국사회의 황황했던 전후 분위기를 자본주의적 병폐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 기간은 전쟁 기간에 부재중인 남성들이 다시 가장의 역할을 하려하는 반면 이미 경제적인 자립성을 배운 여성들과 대립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균열상이 보인 때이기도 했다.

스타인벡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작품을 집필 할 당시 당대의 시기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던 1920년대에 이른 바 신여성(New Women)이 등장하게 된다. 스타인벡은 “예쁘기보다는 잘생기고, 솔직담백하며, 적극적이고 종종 기지 넘치는 발언을 하는 짓궂은 여성”(Shillinglaw 37)이었던 캐롤과 즉각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캐롤은 헤밍웨이 버전인 브렛 애슐리(Brett Ashley)<sup>56)</sup>만큼의 신여성은 아니었지만 스타인벡에 있어 그녀는 충분



히 신여성에 가까웠다(Shillinglaw 38).<sup>57)</sup> 결국 1943년 3월 스타인벡은 공식적으로 캐롤과 이혼하고 그의 두 번째 부인 그웬과 결혼하여 맨하탄으로 이사하였다. 새로운 보금자리였던 뉴욕에서의 스타인벡과 그웬의 삶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못했다. 그웬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겪게 된 외로움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고, 스타인벡은 젊은 여자와의 재혼과 관련된 부정함으로 비판을 받았다.<sup>58)</sup>

스타인벡이 그웬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육감적인 몸매에 반한 것처럼, 『번덕스런 버스』의 남자등장인물들 또한 젊고, 아름다운 얼굴과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카밀 오크스(Camille Oaks)가 그녀의 성적 에너지로 온 방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WB 110). 그녀에게 갖는 남성들의 마음의 기저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objectify)해 한낱 보이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하의 여성은 남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며, 남성들 간의 경계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남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에 주력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 이는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가 지적했듯이, 남성들에게 있어 여성은 그저 자신들의 남성성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87).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두려움,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성을 정의해 왔다고 할 수 있다.<sup>59)</sup>

56) 1920대에 등장한 신여성들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짧은 단발머리와 옷차림을 선호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소유인 정치적인 권력인 투표권을 요구했으며, 골프나 운전, 흡연과 음주 그리고 성적인 자유 등을 갈구했다(Allen 77). 헤밍웨이의 작품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브렛 애슬리는 제임스 네이젤(James Nagel)의 주장처럼 문학에 있어서 첫 번째 신여성의 형상화임을 알 수 있듯이(92), 그녀는 짧은 머리에 남성용 모자를 쓰고, 담배와 술에 전적으로 자유롭다.

57) 캐롤은 스타인벡과의 결혼에 신중을 기했는데,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자급자족적인 신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새로 발견한 독립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1920년대의 많은 여성들이 직면한 선택의 문제였다. 또한 캐롤은 순종적인 부인이 될 수 없었으며, 실제로 그녀의 욕구는 항상 스타인벡의 대한 헌신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여성은 결혼을 위해 가부장적 모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Shillinglaw 49).

58) 당시 스타인벡은 서른여섯 살이었고, 그웬은 스물 한 살이었다. 사랑에 집착하는 마음은 우선 건강, 힘 그리고 아름다움에 기울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chopenhauer, *WI* 537).

59)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또한 자신의 저서 『제2의 성』(*The Second Sex*)에서 여성은



스타인벡의 이전의 많은 작품들이 그랬듯, 『변덕스런 버스』는 그가 사랑하는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의 첫 장은 허구의 장소인 레벨 코너스(Rebel Corners)에서 후안 치코이(Juan Chicoy)와 앨리스 치코이(Alice Chicoy) 부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동시에 내륙 도시 리벨 코너스와 또 다른 허구 도시로 주요 대도시들과 연결되는 해안 도시 산 후안 데 라 크루즈(San Juan de La Cruz)를 왕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후안과 앨리스는 그들을 돕는 젊은 직원 둘을 고용한다. 후안의 견습생인 ‘여드름 투성이’ 펴플스 카슨(Pimples Carson)은 젊은 기계공으로 언젠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에는 ‘여드름’이라는 자신의 초라한 별명이 더 이상 자신을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포함된다. 한편 노마(Norma)는 할리우드 영화 출연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우상인 클라크 게이블(Clark Gable)을 숭상하는 10대 소녀로, 앨리스의 카운터를 보는 일을 맡는다.

이 작품에서 스타인벡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한다. 그는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소설 속 버스가 산 후안 데 라 크루즈를 왕복하며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의 좌절과 욕망이 소설 속 내용의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여성의 묘사와 깊숙이 물든 그들의 욕망을 다루는 데에 있어 그의 여성성과 여성관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이후 이 소설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조그만 식당과 버스의 한 공간에 배치시키는 인간 군상들의 소우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 구성은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와 <구명선>("The Lifeboat") 등에서 보이듯이 스타인벡의 전형적인 작품 구성법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각 인물들의 성적 에너지라고 할 만한 성의지가 일정기간동안 한 곳에 어울리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이러한 현상을 관찰이나 한 듯 그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전지적 시점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을 소개하면, 프리처드 가족(the Pritchards)이 먼저 등장하는데, 가장인 성공한 중년의 경영간부 엘리엇(Elliott), 그가 왕비처럼 모시는 오만한 부인 버니스

---

오직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지만, 남성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모색하며 의미를 부여한다고 언급한다(26).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근본적인 주체가 되는데 반해 여성은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Bernice), 그리고 그들의 자유분방한 20대 초반의 대학생 딸 밀드레드(Mildred)는 가족여행 겸 멕시코로 향하던 중에 버스가 고장이 나 이 식당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그 외 승객들로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책상형 위스키분출 변기와 같은 잡동사니 물건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니스트 호튼(Earnest Horton), 여행 자체와 사회 전체에 염세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노인 밴 브룬트(Van Brunt),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 인물들의 관심과 그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스트립 댄서인 카밀 오크스는 그런 불편한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노마에 대해 억지로 관심을 갖고자 노력한다.

한편 식당 여주인 엘리스는 습관적으로 홀로 있을 때 독한 술을 마시며 자신이 늙어감에 대해서 한탄하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남편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것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는 동시에 공허해진 자신의 후안의 부부 관계를 예전의 즐거웠던 때와 비교하여 분노하고 아쉬워한다(WB 141-144). 또한 그녀는 식당으로 들어 온 파리를 잡아 죽이려고 고군분투 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고, 여성의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부장적인 태도에 맞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얄미운 파리는 잡히지 않은 채, 식당안의 인테리어를 부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걸로 미루어보아 그녀가 속해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후 화제는 버스 안으로 옮겨가서, 카밀은 그녀가 만나는 거의 모든 남성의 관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매력적인 미모와 균형을 갖춘 여자로서 자신의 육감적인 몸매를 주시하며 욕정에 가득한 상상을 하는 남성들로부터 자신이 그런 성적 대상의 지위에서 벗어 날 것과 더불어 자신이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을 것을 꿈꾼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육체의 전유를 통해서 억압되어지며, 여성을 물질적 대상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펄스스와 엘리엇, 그리고 어니스트와 같은 남성들의 욕망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남성들에게 있어 욕망은 배우자와 어머니에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여성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여성의 모든 성욕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위협받지 않으려는 욕망 같은 것들을 말한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여성이란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성적으로 각성되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카밀은 남성들의 성적 규범을 어지럽히는 ‘나쁜 여자’였다. 남성이 생각하는 ‘나쁜 여

자’ 또한 ‘올바른 여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은 ‘나쁜 여자’와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는 해도 결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안은 버스를 산 이시드로 강(San Ysidro River)의 다리에 멈추고, 이 다리의 관리인인 브리드(Breed)씨와 불어난 강물에 대해 걱정스런 대화를 한 뒤, 승객들에게 불어난 강물 때문에 다리를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설명을 한 뒤, 좀 더 미끄럽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다른 길로 가자고 권유하자 승객들은 동의한다. 이렇게 다른 길로 우회하는 동안, 후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년 시절의 낭만적인 일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신경질적인 아내에게로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후안의 부주의로 버스는 결국 진흙탕에 빠지게 되고, 후안은 승객들을 남겨두고 다른 차를 구해오겠다는 구실로 떠난다. 언제나 그랬던 버니스는 그 상황에 대해 그녀의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말다툼을 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밀드레드는 후안을 몰래 따라간다. 그녀는 버려진 농장 헛간에서 쉬고 있는 후안을 발견하고, 그를 유혹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

후안은 크게 웃었다. “원하는 게 뭐니?”

“당신은 왜 이 곳에 왔나요? 내가 당신을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진실을 알고 싶은 거니? 아니면 게임을 하자는 거니?” 그가 물었다.

“글쎄요, 둘 다 좋은데요. 음. 아니요, 진실을 먼저 알고 싶어요.”

“그래, 난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어,”라고 후안이 말했다. “나는 멕시코로 돌아가서 사라지려 했어. 승객들은 알아서 하게 하려고 했지.”

“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나도 몰라,” 그가 말했다. “그럴 마음이 사라졌어. 과달루페 성모마리아가 날 낙담시켰어. 나는 내가 그녀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속이는 걸 싫어하나봐. 그녀가 그런 내 마음을 찢리게 했나봐.”

“당신은 신앙심이 없어 보이는 데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신앙심이 없거든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

“왜 [도망을 가지 않고] 이 낡은 헛간에 있느냐는 말이죠.”

후안은 계속 걸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밝아졌고, 그의 입술의 상처자국 때문에 미소가 약간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검은 눈은 따뜻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어서야. 그 다음에 너를 품으려고 말야.”

그녀는 자기 팔로 그의 팔을 감싸고 그녀의 뺨을 그의 재킷 소매에 꼭 갖다 댔다.

Juan laughed. "What do you want?"

"Why did you come down here? Did you think I'd follow you?"

"You want the truth or do you want to play games?" he asked.

"Well, I'd like both. But no—er—I guess I want the truth first."

"Well, I was running away," said Juan. "I was going to beat my way back to Mexico and disappear and let the passengers take care of themselves."

"Oh, and why don't you?"

"I don't know," he said. "It went sour. The Virgin of Guadalupe let me down. I thought I fooled her. She doesn't like fooling. She cut the heart out of it."

"You don't believe that," she said seriously. "I don't believe that either. What was the real reason?"

"For what?"

"For you coming down to that old place?"

Juan walked along and his face broke into a wide smile and the scar on his lip made the smile off-center. He looked down at her and his black eyes were warm. "I came down here because I hoped you would go for a walk, and then I thought I might—I might even get you."

she wrapped her arm around his arm and pulled her cheek hard against the sleeve of his jacket. (WB 242-3)

밀드레드는 그 순간 이후 그와는 전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점에 치닫게 된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후안의 욕망과는 별개의 분리된 것으로서 그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남성이 있을 때마다 여성이 포즈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자기가 궁금해 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놓인 성별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젠더, 즉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대체로 자신이 부여받은 젠더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One is not born, but rather becomes, woman)(Beauvoir 330)이라는 유명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엘리엇와 버니스의 관계에서 엘리엇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인형 다루듯 하는 아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버니스는 "'수녀의 두건'(nun's hood)이라고 알려진 핸디캡이 있어 결혼 이후 아무런 성적 쾌감을 느껴보지 못한"(WB 51)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불감증(frigidity)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남편을 통제한다.

그녀는 막 눈뜨기 시작한 남편의 리비도를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서서히 희미하지만 지속적으로 꺼려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런 남편의 리비도는 처음에는 형성되었지만 통제를 받아 서서히 억압되어, 아내에 대한 그의 성적 충동은 점점 더 적어지고 마침내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고 믿게 된다.

Her husband's beginning libido she had accept and then gradually by faint but constant reluctance had first molded and then controlled and gradually strangled, so that his impulses for her became fewer and fewer and until he himself believed that he was reaching an age when such things did not matter. (WB 51)

이것은 선천적 원인이라기보다 버니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다. 버니스는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스파이스 향신료를 피하고 자극이 없는 음식을 준비한다. 버니스의 “몸과 마음은 둔하고 굶 뜬”(her body and her mind were sluggish and lazy)(WB 52) 반면 물질적인 것에는 열정을 가진다. 실제로 그녀가 가장 성적 흥분을 느낄 때는 카밀이 노마에게 그녀의 친구 로레인(Lorraine)이 어떻게 밉크코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하는 이야기를 엿들을 때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니스의 얼굴은 별경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내몰았다. 그녀의 피부는 흥분으로 들먹거렸고, 두 다리와 배에 따끔거리며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Mrs. Pritchard's face was glowing. She breathed very rapidly. Her skin tingled, and there was an aching, itching feeling in her legs and stomach she had never felt before)(WB 212). 그러면서도 버니스는 성적인 뉘앙스를 공공연히 드러낼 수 있는 카밀의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거리낌 없이 향락을 지향하는 그녀의 행동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엘리엇을 조종할 수 있는 무기는 남성이 생각하는 성역할에 근거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합리적이고 강인해야 하며 힘이 약한 여성을 보호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 반면에 여성은 비합리적이고 연약하여 남성의 보호가 항상 필요한 순종적인 존재이어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버니스의 수동적인 태도는 작가의 일방적인 여성혐오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시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미국의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기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을 의미한 것이다.<sup>60)</sup>

60) 제1차 세계대전이후 1920년에 미국 제19차 수정헌법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후 1960년대

반면 엘리엇의 경우는 성적으로 더욱 비참한 양태를 보인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욕망, 특히 카밀이 스트리퍼라는 이유로 자기가 그녀를 가질 수 있다고 자신을 속여 믿게 만든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과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카밀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접근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WB 91).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부인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What’ll your wife have to say about that?)(WB 237)라며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성적 쾌감은 다른 욕구충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충족이 있는 후에 부질없이 사라져 버림에도 불구하고(Schopenhauer, *WII* 550), 당당하고 잘나가는 신사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깊숙이 숨겨 놓았던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리고 짓밟힘으로서 그 창피함과 굴욕감을 아파서 동굴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을 강간하기에 이른다.

“엘리엇! 뭐라는 것이예요? 엘리엇!”

“닥쳐,” 그가 말했다. “내 말 들려? 닥치라고! 당신 내 마누라잖아, 안 그래? 남편이 자기 마누라한테 이럴 권리가 있는 거 아냐?”

“엘리엇, 당신 미쳤어! 누군가, 누군가 당신을 볼 거라고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를 저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 지금 내 옷을 다 찢고 있잖아요.”

“내가 사준 옷이잖아, 안 그래? 역겨운 놈 취급 받는데 이제 질렸다고.”

버니스는 공포와 두려움에 흐느꼈다.

“Dear, you’re tired,” she said. “Elliot! what are you doing? Elliot!”

“Shut up,” he said, “You hear me? Shut up! You’re my wife, aren’t you? Hasn’t a man got any rights with his wife?”

“Elliot, you’re mad! Someone’ll—someone’ll see you.” She fought him in panic. “I don’t know you,” she said. “Elliot, you’re tearing my dress.”

“I bought it, didn’t I? I’m tired of being treated like a sick cat.”

Bernice cried softly in fear and in horror. (WB 240)

이와 같은 엘리엇의 행위의 이면에 남성의 성적 구애가 좌절된 것이 그의 모든 자존감의 상실로 여겨지는 일반적 심리가 숨어 있다. 그 결과 엘리엇의 폭행은

---

에 사회와 문화 분야 특히 고용조건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외치며 다시 시작된 여성주의운동은 평등권 수정헌법(Equal Rights Amendment)이 1972년에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게 하더니 1980년대 초에까지 전 세계에 기세를 떨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좌절감을 만회할 수 있는 남성으로서의 몸부림이자 고통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건들을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여성을 혐오한 까닭인지 아니면 전후 미국사회에 만연해있던 성욕을 물화시키는 풍조를 풍자하기 위함인지가 질문으로 던질 만하다.

## B. 『변덕스런 버스』에 대한 여성혐오주의 논란

문학 평론가 로이 타이슨(Loi Tyson)은 여성주의 비평을 “문학이 여성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들”(the ways in which literature reinforces or undermines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oppression of women)(83)을 점검하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가장 적합한 하나의 관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소위 목적론적 경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남성의 경험을 전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정하려는 태도에 저항한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성 우월주의가 옛날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의 사고는 그만큼 이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성들의 몸이 성애화되는 것은 영화관객의 시점을 남성중심으로 보는 탓이며, 합리적이고 강인한 남성상과 감정적이고 연약한 여성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성역할이 가부장제와 함께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에 반대하여 문학계에서 1792년에 메어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여권의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에서, 1929년에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을 통해, 그리고 1949년에 『제2의 성』(*The Second Sex*)를 저술한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가부장적 사고에 저항한 이후 여성주의 문학가들의 운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앞서 밝히듯이 『변덕스런 버스』는 이러한 성차별적 경향에 따른 여성혐오주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받아왔는데 그것에 대한 주된 이유는 등장하는 여성들이 주로 성충동을 자극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사물화된



여성들을 구매할 수 있는 우월한 경제력을 가진 자로 등장한 탓이다. 유물론적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인정하는 한 여성의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벤슨은 애초부터 스타인벡은 남녀 간의 낭만적인 애정에 커다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풍자를 다루었던 까닭에 그의 작품들에서 차라리 “이상적인 사랑[우정]이 남성들 간에 가장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ideal love is most often achieved between men)(Benson, “JS” 4-5)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변덕스런 버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적 차원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본질에 기초한 성의지가 자본주의의 한 병폐로서 성욕이 물화된 것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발로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설에 제시된 여성혐오주의에 관한 첫 번째 의문점은 스타인벡과 권돌린(그웬)의 험난한 혼인관계가 이 책에 담긴 여성혐오적 내용과 유관성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우선 1948년 늦여름과 초가을에 작가가 자신의 친구들인 조 잭슨과 샬롯 잭슨(Joe and Charlotte Jackson)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소설의 원본은 “완벽하게 사악해서”(completely evil) 반향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내 불태운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 바가 있다(Steinbeck, *Letters* 336-37). 또한 곤잘레스와 클래드스타인은 이 소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드러냄”(indicative of [his] thinking at that time) 것으로서 작가가 “여성에 대해서 가진 유일한 용도”(the only use he has for women)는 육체적인 관계이고,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감정이 “증오심”(hatred)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71).<sup>61)</sup>

심지어 스타인벡은 보 베스코프(Bo Beskow)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미국의 여성들은 “그녀들의 어머니에 의해서 남성들에 대해 경멸감을 가지도록 가르쳐졌으며”(trained by their mothers in a contempt for men), 당시 미국의 결혼생활은 남편들로 하여금 매음굴로 이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권돌린을 넘어서 전체 여성들에 대한 분노감을 숨기지 않았다(Steinbeck, *Letters* 343). 또한 이 작

61) 여성혐오와 관련된 이 문제와 별개로 이진근은 스타인벡의 전기적 배경들 특히 작가의 두 아내 즉 캐롤(Carol)과 권돌린(Gwendolyn)과의 혼인생활로 인한 좋지 않은 경험이 이 작품의 등장 인물들이 보인 신경증적 상태와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NSC” 213-217 참조).

품의 화자가 후안이 여성들을 잘 다루는 기술과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아내를 지배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기에 그를 “많은 수로 존재하지 않는 남성”(... a man, and there aren't very many of them)(WB 3)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경우가 미국의 대부분 남성들에게 예외가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스타인벡은 이것에 대한 이유로서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들과 아들들을 거세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teinebeck, *Letters* 343).

하지만, 여성에 대한 작가의 심정이 혐오감으로 일색이었던 사실과 이것이 곧바로 작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기는 어렵다. 즉 곤잘레스와 글래드스타인이 “이 책을 저술하던 당시에 둘째 아들 존이 출생하였고, 그들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안정되어 보였다”(their relationship seemed satisfactory and secure for,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this] book, their second son John was born)(157)라고 진술하였듯이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이후에 작가가 보인 신중한 성격을 감안해보면 책의 주제가 논란의 여지를 줄 만큼 성차별이지는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으로서 브라이언 레일즈백(Brian Railsback)은 작가의 여성혐오적 감정이 그의 절친한 친구인 에드리케츠(Ed Ricketts)의 불의의 죽음과 이후에 찾아온 권돌린의 이혼요구에 기인함을 지적하며, 훗날 작가가 이러한 분노가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126-27).

다음으로 이 소설이 여성의 몸을 육체적 관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을 원용한 성적 선택설(the theory of sexual selection)을 따르고 있는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이 책에 나온 남녀 간의 관계가 정신적인 교감에 기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곤잘레스와 글래드스타인은 이 경우의 “여성들은 그들의 일생동안 남성들에 의해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적 목적물이고,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물의 기초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women are seen by the men in their lives as serving only one purpose: they are sex objects, objectified to the extreme, there to satisfy a basic animal drive)(159) 것으로 여겨질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 루이(Louie)는 여성들을 돼지라고 부른다: “그 돼지는

어디로 간대?”(Where’s the pig going?)(WB 84); “세상에는 수많은 돼지들이 있었다”(There were plenty of pigs in the world)(WB 98). 심지어 카밀이 그의 추파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손을 펴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싶어 한다”( . . . [wants] to slap her face with his open hand)(WB 86). 또한 그는 노파들을 싫어해서 “그녀들은 사납고 자존심이 없어. . . . 그녀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가져”(They were fierce and they had no pride. . . . They got [whatever] they wanted)(WB 89)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오로지 성적으로만 파악한 탓이다. 루이의 사고에서 보면 성관계를 많이 가진 여성은 지저분하고 음탕한 여자인 반면 상대방 남성은 정력이 센 사람으로서 선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다윈의 성적 선택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성적 대상들에 대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가장 강력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을 지배하고, 가장 바람직한 여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또한 이 경우의 여성은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오늘날의 기준에서 남성들에게 가장 강한 성욕을 자극하게 하는 자가 된다.

여성과 비교해서 좀 더 넓은 어깨, 좀 더 발달된 근육들, 거친 몸의 윤곽선, 더 커다란 용기와 호전성과 함께 남성의 더 커다란 크기와 힘이 반(半)인간의 수컷 조상들로부터의 유산인 점에 주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the greater size and strength of man, in comparison with woman, together with his broader shoulders, more developed muscles, rugged outline of body, his greater courage and pugnacity, are all due in chief part to inheritance from his half-human male ancestors. (Darwin 872)

그리하여 여성을 유혹하거나 쟁취해야 하는 남성의 부담은 현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면 좀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증을 낳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 선택설은 양성간의 능력에 있어서 남성의 것을 훨씬 우월한 것으로 취급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또한 남성은 경쟁자 또는 사냥하는 자가 되는 반면에 여성은 연민과 동정심을 보이는 자 또는 육체적인 관계만을 위한 성적 대상물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는 자로 전락된다. 위에서 보이듯이 『변덕스런 버스』에서 카밀은 도발적인 몸을 가진 여성이지만, 성숙한 경험만큼이

나 강한 정신력을 보이고 있어서 여성혐오의 대상이라기보다 진정으로 행복한 육체적 관계는 남녀 간의 정신적 유대감에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인물이다. 실제로 스타인벡의 <비바 자파타!>(Viva Zapata!)의 조세파(Josefa)와 『벌겅게 타오른다』(Burning Bright)의 몰딘(Mordeen)은 남성들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인성을 보이고 있고, 『진주』(The Pearl)에서 유아나(Juana)는 남편의 무모한 욕심과는 다르게 현명한 상황인식을 가진 여성으로 등장한다. 특히 『분노의 포도』에서 마 조드(Ma Joad)는 그 작품에서 가장 성숙하고 인내력이 강하며,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진 존경받을 만한 여성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여성들을 등장시킨 스타인벡을 여성혐오주의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인벡이 성의지와 그것이 객관화된 성욕을 작품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버스 탑승객뿐만 아니라 루이와 엘리스를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특이하게도 거의 똑같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들의 내면세계를 보이려한 의도는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필자는 이 작품에 나타난 성의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을 비이성주의적인 주의주의 철학자들의 이론에 비추어 논하고자 한다.

### C. 성의지의 종족보존 목적성에 의한 주의주의

우리의 사고방식이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어온 경향은 사회가 구성된 이후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런 보편적인 현상에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으며, 여성주의적 사고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서 주체성이 자아를 가진 자가 자신과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개별적인 경험에서 그것을 파악할 가능성이 다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주체성을 가능하게 한 시공간적 전체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제각각 서로 다른 현실 파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주의는 헤체론과 신역사주의와 함께 탈권위적인 주관적 해석을 내포하고 있음이며, 그동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절대적 이성으로 간주해온 억압적 요소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로 취급되어왔던 이성의 불완전성을 인식한 사고가 이미 중세 13세기 던스 스코터스(Duns Scotus)와 윌리엄(William of Ockham)이 신의 의

지와 인간의 자유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주의주의(Voluntarism)가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의지를 이성보다 앞선 보편적 실재임을 주장한 것은 19세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를 저술한 뒤에서야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신사고의 운명이 그렇듯이 그의 의지중심의 형이상학이 당시 독일사회의 긍정적 주지(主知)주의의 대세에 눌러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못 받아오다 1844년에서야 제2권이 출간되었다. 여기에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성욕을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적인 의지의 표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자로서 성의지의 존재가 밝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갈망하는 탓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의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제41장 “종의 삶”(“Life of the Species”)과 제44장 “성적인 사랑의 형이상학”(“The Metaphysics of Sexual Love”)에서 쇼펜하우어는 “개인은 아버지로부터 의지와 성격을, 어머니로부터 이성을, 그리고 양부모에게서 이것들이 통합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 . . the individual will have the will or character from the father, the intellect from the mother, and the corporation from both)(536)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주의주의가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역능의지(will-for-power)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철학자들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여성혐오주의자로 비판받아오고 있다. 그것의 주된 이유는 쇼펜하우어가 성의지의 목적을 종족보존에 둔 것에 이어서 니체 역시 여성의 몸이 가진 성의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러한 역학관계는 스타인벡의 『변덕스런 버스』에서 나타난 성의지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성의지가 인류의 생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종족보존의 행위 즉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작용을 의도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정이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삶의 의지로부터 직접 동기를 얻어서 이행된다”(not guided by [the] knowledge, but proceeds immediately from the will-to-live)(512)고 말한다. 이 경우 육체적인 관계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비물질적인 비누거품들과 같은 무성한 감정들보다 훨씬 더 지고하고 가치가 있는 목적”(a much higher and worthier aim than those exuberant feelings [like]

immaterial soap-bubbles)(535)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족보존이자 자기보존의 목적성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더 높은 무엇 즉 종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하는”(Without knowing it, the individual acts by order of something higher)(548) 것은 각자의 삶이 전체로서의 종에게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스타인벡은 『변덕스런 버스』에서 후안을 “완벽한 남성성을 가진 자”(a man of complete manness)로 등장시키고, 그로 하여금 여성들을 억지로 유혹하기보다 “단지 그들에게서 그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 . . would just take what he wanted from them)(WB 185) 하는 자로 삼고 있다. 한편 밀드레드는 현대적 의미의 성개방적 여성으로서 이미 “그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던 두 번의 완벽한 연애사건을 경험한”(experienced two consummated love affairs which gave her great satisfaction)(WB 33) 이후 후안과 자의에 의한 육체적 관계를 허락함으로써 전통적 윤리의 입장에서 비난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적으로는 생기발랄한 자로 묘사된다. 쇼펜하우어가 “종족보존의 힘의 고갈이 그 개인이 죽음에 다다른 것을 보여 준다”(the extinction of the procreative power shows that the individual is approaching death)고 말한 점에서 후안과 밀드레드는 성의지가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엘리스와 사치 등의 물욕으로 자신의 성욕을 대리만족시키는 버나드보다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스타인벡 전문가 리스카는 위 두 인물들을 포함하여 어니스트와 카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들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정직함, 사물에 대한 생태학적 시각을,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그리고 성적인 매력”(honesty with themselves and others, an ecological view of things, ability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sexual attractiveness)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Lisca, WWV 238).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물자체로서 의지의 위상을 인정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또한 성의지를 “삶의 의지의 알맹이”(the kernel of the will-to-live) 그리고 “모든 의지작용의 집중”(the concentration of all willing)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생식기에 “의지의 핵심”(the focus of the will)(514)이 있다고 평가한 바는 단지 성의지가 가진 파괴력과 힘을 과장되게 강조한 수사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



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과 사랑의 본질을 성적 충동으로, 2세 생산으로 환원하기 때문에”(이정은 146) 여성의 몸을 남성들의 종족보존 도구로 인식하여 여성을 폄하거나 혐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박찬국은 쇼펜하우어의 종족보존 목적성에 대한 의도를 “하나의 우주적인 의지가 종족과 각 개체들의 의지로 분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97)고 말하면서 인간의 신체와 그 속에 담긴 성욕이 보이지 않지만 근원적인 성의지로 일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모든 고통과 죽음을 양산해내는 것”(the being that produces all suffering and death)(Wicks 7)이기 때문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1권의 마지막 장에서 보이듯이 욕망이 되어버린 의지의 표상을 경계하면서 “삶의 의지에 대한 완벽한 부인”(the complete denial of the will-to-live)만이 현세에서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Wicks 142). 또한 제2권 제41장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그러한 힘의 과도한 사용은 삶을 단축시키는 반면 절제는 그 모든 힘들 특히 근육의 강도를 증진시킨다”(at every age excessive use of that power shortens life, whereas moderation enhances all the powers, especially muscular strength)(511)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번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성의지의 재현방식 즉 관음증, 음주벽, 성매매, 상상을 통한 성적 만족 등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배려적, 초도덕적, 무목표적인 성의지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성 형이상학이론은 다소 부족함이 있다. 특히 양성 간의 성적으로 설명이 난해한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말했듯이 쇼펜하우어는 정작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성충동을 자아내는 몸의 요소를 젊음, 건강함, 충동적인 몸구조, 살의 풍만함, 얼굴의 미모로 열거하는 등의 다소 지나친 도식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Schopenhauer, *WII* 543-44).

이에 반하여 니체의 역능의지 이론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인간의 존재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론에 비해 양성 간의 대립과 긴장이 인류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영수 207). 다시 말해서 니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구별을 무시하려는 양적 계량화에 따른 동일화에 반대하고,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를 욕망과 정념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인



간의 몸으로 지칭하여 『변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육체적 관계의 실패에 따른 고뇌와 슬픔은 물론 심지어 문명사회가 안긴 성기능의 감퇴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니체의 역능의지가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자. 두 철학자들은 주의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니체는 정면으로 형이상학설을 부인하고 있다. 즉 그는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의지를 중심으로 한 무시간적인 우주의 세계를 대신해서 실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힘에의 의지 즉 역능의지의 편재성을 증명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 결과 쇼펜하우어는 의지에 대한 온전한 부인을 주장하지만, 니체는 오히려 의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설에 기초한 삶의 의지는 사실에 불과하지만, 역능의지는 니체에게 있어 규범이자 명령이 된다.

이러한 역능의지는 『변덕스런 버스』의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신들의 성의지를 추구하도록 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성적 선택설에 따라 실패자로 전락한 루이와 벤 그리고 뫼플스는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성의지를 제어하지 못한 자들이 되지만, 니체의 경우 이들이 성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자들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다른 인물들에게도 적용이 되며, 버스가 진흙탕에 파묻혀 있는 상황은 마치 자신들의 성의지를 발산하지 못한 형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니체는 문명의 발달이 실수들의 산물이라고 인식하여 실수를 긍정하고 재차 도전할 것을 권유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1권 제8장에서 실수를 독이라고 평가하여 욕망의 자제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니체가 의지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와 더욱 구별되는 부분은 삶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불교의 자비사상에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곤란함에 대한 동정심을 커다란 덕목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니체는 그와 같은 태도가 오히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동정의 대상에게 굴욕감을 그리고 자기에게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와 반대로 강한 독립심과 자기주장이 설령 그것이 가차 없고 잔인할 지라도 바람직한 자세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니체는 사랑은 “이기주의의 가장 진솔한 표현일 수 있다”( . . . may be the most candid expression of egoism)(40)고 주장하고, “여성처럼 사랑하는 남성은 노예가 되는 반면에 여성처럼 사랑하는 여성은 좀 더 완벽한 여인이 된다”(A man who loves

like a woman becomes a slave, but a woman who loves like a woman becomes a more perfect woman)(228)고 말하고 있다.

엘리엇이 그의 아내를 동굴 속에서 강간을 한 행위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성적 인 폭행으로 간주되겠지만, 니체의 말대로라면 자신의 연약한 성의지를 강화시키려는 행위로 볼 만하다. 같은 의견으로 알레그레티는 엘리엇이 “그의 아내와 남매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폐쇄된 성생활은 신체적 병적 증세를 낳게 한다”( . . . has a brother-sister relationship with [his wife], with his blocked sexual life leading to physical ailments)(162)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엘리엇은 자신의 성의지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지만, 남자들만의 야간업소에서 비정상적인 파티를 즐기는 건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워드 레반트(Howard Levant)는 이러한 사업가들의 행위를 “[변태적] 사업가 윤리가 허락하고 권장하는 통제된 강도행위이자 변태적 성행위”( . . . the controlled robbery and perverse sexuality that a [perverse] business ethic permits and encourages)(218)라고 꼬집고 있다. 그 결과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병약한 벤 브런트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늙은 남자대신에 내가 여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일 수 없나”(Why can't it be me here, dying, instead of this old man)(255)하고 자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남자는 스스로 여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성은 이러한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를 구성한다”( . . . man makes for himself the image (Bild) of woman, and woman shapes herself (bi/det sich) according to this image)(Nietzsche 73)라고 말하고 있듯이 양성 간의 성적 경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몸 안의 성의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후가 『변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신경증적 상태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 이론보다 니체의 역능의지 이론이 적어도 이 작품을 잘 해석해주고 있으며, 이 두 철학자들에게 있어 성의지의 종족보존 기능은 참으로 소중한 수태할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의 몸은 ‘마지막 인간’의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은 참으로 재앙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고를 단순히 여성혐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것은 이들의 의견이 오늘날 양성평등사회의 기준에 미흡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지나친 것이다.

피터 리스카(Peter Lisca)가 『변덕스런 버스』는 “현대 문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전제들을 검토”(an examination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modern civilization)(WW 232)한 것으로 밝히고 있듯이 이 소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성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한 차례 성의지의 재현을 경험한 등장인물들을 태운 그들의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한밤중 멀리에서 보이는 전선줄에 매달려 쓸쓸하고 고독하게 깜빡이는 조그만 불빛들”(little lights winking with distance, lost and lonely in the night, . . . strung on chains)(WB 261)이 그들 한 명 한 명의 불안한 운명을 비추고 있는 듯 이 작품은 작가의 희비극적 취향을 성의지의 농염한 색채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워드 레반트(Howard Levant)는 이 작품을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측면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묘사한”(a trenchant, accurate portrayal of the darker side of the American dream)(233) 수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제자리를 잡은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의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우선 노마를 제외하고 모든 여성들이 성경험을 해본 자들로서 그녀들의 몸이 주로 남성들의 성적 관심사에 대한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유일한 처녀인 노마마저도 화려한 영화배우의 사진을 볼 때, “그녀의 입술이 벌어지고, 눈이 빛나며, . . . 호흡을 통제하지 못하는”(Her lips part, her eyes shine, . . . she can't control breath)(WB 46) 태도를 보인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여성은 돈과 화려함만을 원하는 속물로 비추어질 만하다. 이것은 스타인벡이 뒤늦게 재혼한 상대적으로 젊은 권돌린과의 편하지 않은 혼인생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 또한 다윈의 성적 선택설에 입각하여 볼 때 여성들의 몸만이 항상 남성들의 경쟁적인 구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성 간의 정서적 또는 지적 유대감이 사랑을 형성하는 면을 거의 도외시 하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주지주의적 입장을 적용하면 도덕률과 규범적 판단이 우세하게 되거나, 등장인물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성도착자들로 보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주의적 잣대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면 그들의 심리 상황에 답을 줄 수 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성의지론에 따르면 성의지의 재현인 성충동 또는 성욕은 삶의 의지의 가장 강한 표상으로서 남녀 간의 성애과정이 단순히 육육의

불만족을 해소하려함을 넘어서 바람직한 2세를 생산하고자 하는 종족보존 본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강, 힘, 미, 그리고 젊음이 이상적인 성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못한 경우의 합궁의 대상들에게 자신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며, 이 과정에 하는 수 없이 환상의 형태로 진실을 왜곡하게 되며, 그것이 깨지게 되면 부부간의 증오처럼 애증의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인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성의지의 과도한 표출을 금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이 작품에 나타난 현상들에 명쾌한 해석이 어려운 반면 니체는 성의지를 더욱 확인해야 한다는 소위 역능의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인할 것과 타인들의 고통에 동정할 것을 주장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공유한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 니체는 전사와 같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끈임 없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니체는 스스로의 인격 발달과 자기표현 그리고 사고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힘에의 의지로서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VI. 결 론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은 너무나 익숙하고 편재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생물과 무생물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망각하기 쉽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물을 그 수많은 세월동안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여 왔다. 하지만 주지하고 있듯이 이성적 능력으로 자연을 지배한 현상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감안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신들의 존재를 탄생시켰고, 사랑과 전쟁, 태양과 달, 지구와 하늘, 바다와 강, 비와 폭풍의 신들이 그들의 기분과 선호도에 따라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을 정해주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약 2,600년 전 밀레투스(Miletus)의 탈

레스(Thales) 이후로 등장한 주지주의 철학자들은 자연이 이전의 우연성에 있지 않고, 일관된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중심의 사고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전통과 이것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의 목적론적인 사고에 힘을 입어서 천년의 중세를 거쳐 칸트와 헤겔의 근대 철학에 이르러서 이성을 과거의 신성이 누리던 절대적 위치로까지 오르게 했다. 이와 같이 이성은 그것의 오랜 역사와 함께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모든 윤리의 척도가 되었으며, 근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서양문화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로서 지배와 피지배의 과정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기만과 위장 그리고 폭력성을 가지고 한정된 공간 속에 각자의 공동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 투쟁하는 약육강식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획하는 등의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전쟁 등의 불화된 양태가 끈임 없이 지속되어오고 있다.

결국 절대 진리라고 신봉했던 이성이 서로 다른 처지의 인간들이 각자가 경험해왔던 지식에 따라서만 판단됨에 따라 그동안의 합리론은 물론이고 경험론적 진실마저 그 보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어진 사물에 대하여 차라리 아무런 경험과 기대감이 없는 어린 아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례로 사랑스런 닭들에게 은혜롭게 모이를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물을 도살하는 농부의 손처럼 이성은 그것의 혜택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인간에게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Jose de Goya Y Lucientes)의 <범죄만큼이나 야만적인 감금>(The Captivity is as Barbarous as the Crime)에서 보인 노예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사슬과 족쇄처럼 구속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결국 양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수 천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성의 권위에 반대하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비이성주의 사고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II장에서 스타인벡이 그의 작가로서의 작품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몬트레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의의는 스타인벡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결혼생활과 그가 몬트레이 지성인의 철학관과 그들과 맺은 인간관계가 그

의 창조성과 사상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요소들을 고찰해 보았다.

Ⅲ장에서 『미지의 신께』가 최초 출판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의 신비성과 비이성성을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 때문에 무시되어왔던 점과 아울러 이 작품의 저작배경이 쇼펜하우어와 제퍼스의 비이성주의 관점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함을 고찰해 보았으며, 이것은 그동안 평자들에 의해서 매우 혼란스러우며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읽기가 난해한 것으로 알려진 『미지의 신께』와 스타인벡의 성의지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모든 사물들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고 있으므로 자연이야말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생태주의자인 제퍼스의 작품 세계와 무신론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스타인벡의 『미지의 신께』는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주의적 세계관은 쇼펜하우어의 비이성주의와 상관적 관계에 있음이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이 스타인벡과 제퍼스의 작품들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Ⅳ장에서 스타인벡의 네 편의 단편 속 등장인물들의 성의지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작품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매우 분명하게 포진하고 있다는 주된 주제의식으로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의지가 무의식의 상태에서 불현듯 돌출하는 형태로 의식적인 이성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쇼펜하우어가 세상의 핵심은 의지이며, 그 의지의 형이상학적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모든 이가 마침내 획득하게 된 쾌락을 맛본 이후 경험해보지 못한 환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의지의 파괴적인 압박을 최소화하게 될 때 신비스러운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Wicks 5). 그러나 이 철학자는 인간이 이성적인 삶만을 이상화하고 성의지를 하나의 동물적 본능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도 함께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지주의적 사고만으로는 현대인들이 가진 이유 없는 우울함과 몰락의 양상을 치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V장에서 성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변덕스런 버스』에 대한 종래의 분석은 대체적으로 전기적 사실에만 관계를 둔다. 또한 이 작품은 외설적으로 간



주되었으며, 여성혐오적이라는 점만을 부각한 작품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석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작품의 플롯과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나타난 성의지의 은밀하면서도 매우 활동적인 표상들, 즉 성의지의 양상을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성의지론에 비추어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변덕스런 버스』에 나타난 성의지는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이론보다 니체의 긍정적 사고인 역능의지에 더 가까운 것임이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모두 여성혐오주의자로서 비판받아온 이유는 여성의 몸을 종족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성애와 인류애가 성의지가 잉태한 애욕의 확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변덕스런 버스』의 이야기들이 성의지의 건강한 표상이 자본주의와 전쟁이후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의해 폐쇄된 양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을 반드시 여성혐오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성의지를 인간의 삶의 의지의 욕망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욕망으로부터 성욕이 나오며, 성욕은 생명력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성의지와 성욕은 확연히 다른 것인데, 성욕은 단순히 생성소멸 법칙을 형이상학에 반대하는 생리학적인 본능인 반면, 성의지는 성욕을 형이상학화 시켜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성의지를 부도덕하게 여김으로써 인간은 이성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인간을 고통 속에 엮매이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의지는 이성을 앞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고들은 유럽의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의지의 형이상학이 대서양을 넘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연고를 둔 제퍼스와 스타인벡의 비이성주의적 작품들과 백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것은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sup>62)</sup>와 『우파니샤드』(Upanishads)<sup>63)</sup>에도 나와 있듯이 의

62) 『마하바라타』(Mahabharata)에 수록된 잠언인 『바가바드 기타』는 『베다』(Veda)와 『우파니샤드』의 철학적 사상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거의 모든 힌두교도가 숭배하는 이 짧은 책은 인도의 경전 중의 경전으로 꼽히는데 힌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비슈누의 화시인 크리슈나와 아르쥬나 사이의 종교적, 철학적 대화로 유명한 『바가바드 기타』는 이후의 힌두교도의 주요 힘으로 남은 신에 대한 헌식적인 사랑(bhakti)를 새롭게 강조했다(Magee 151).



식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 그리고 개념들은 착각이거나 몽상이며, 이성  
 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반면에 성의지가 충만한 인간의 내부적 자연(Atman)은  
 이보다 더 넓고 더 강력한 영역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적  
 인 행복과 구원은 심리적으로 초연함(detachment)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꿈에 불과한 외연의 세계보다 실재에 더 가까운 내면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성의 세계 또는 인  
 간의 정신구조 바깥으로만 향하던 시야를 우리들 자신에게로, 예를 들어 보편적  
 성의지가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작품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성적인 명상만으로 쉽  
 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고행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하고 있듯이 “형언할 수 없는 평온(a state of  
 ineffable tranquillity)”(Wicks 9)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희생 즉 성의  
 지의 통제가 불가피하며, 이것은 성의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  
 이다.

스타인벡의 ‘성의지’는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 니체의 ‘힘에의 의지,’ 프로이  
 트의 ‘원초적 본능,’ 그리고 로렌스의 ‘생명력’ 등에서처럼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스타인벡이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때의 미국  
 사회는 당시에도 끝나지 않은 서부개척풍조와 맞물려 물질주의에 의한 물화현상  
 에 의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함몰되고 있었다. 스타인벡은 이러한 미국의 물  
 질주의와 개척정신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를 파괴하여 마침내 영혼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스타인벡은 사회적 작가 이전에 한  
 사회학자로서 미국사회가 처한 위험요소를 강렬하게 고발하였던 것이다. 그는 위  
 기에 처한 인간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으로서 이성간의 건강한  
 ‘성의지’의 존재가치를 강조하여 문명의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획일화하려는 산  
 업사회의 위선적 행태에 도전하였고, 인간은 타자에 의해서 완전해질 수 없다는

63) 정통 힌두교 경전 중 가장 형이상학적인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인도  
 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것이다. 『우파니샤드』를 쓴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전체 실재의 본  
 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체 실재를 중요성에서 차이가 나는 두 세계로 나누어 생각했다.  
 먼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경험 세계(현상계)가 있다. 그리고 경험 세계가 가리고 있기 때문  
 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Magee 147).

교훈과 함께 육체적 본능이 사회가 정한 도덕률보다 정신적 유대감에 위치하기를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스타인벡 작품들에 나타난 '성의지'는 단순한 성욕의 차원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착해질 수 있다는 작가의 인본주의적 표제이다.

## 【참고문헌】

### I. 제 1자료

- Steinbeck, John. *Journal of a Novel: The East of Eden Letters*. New York: Viking, 1969.  
 Abbreviated as *JN*.
- \_\_\_\_\_. *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 New York: Penguin, 1986. Abbreviated as *Cortez*.
- \_\_\_\_\_. *Steinbeck: A Life in Letters*. New York: Penguin, 1975. Abbreviated as *Letters*.
- \_\_\_\_\_. *To a God Unknown*. New York: Penguin, 1995. Abbreviated as *TGU*.
- \_\_\_\_\_. *The Long Valley*. New York: Penguin, 1995. Abbreviated as *LV*.
- \_\_\_\_\_. *The Wayward Bus*. New York: Penguin, 2006. Abbreviated as *WB*.

### II. 제 2자료

- Chong, Young-su. "Nietzsche and Feminism." *Suncheonhyang Human Studies* 29 (2011): 179-218.  
 [정영수. 「니체와 페미니즘」.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011): 179-218.]
- Choe, Han-yong. *The Theme of the American Dream in Steinbeck's novel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1.  
 [최한용. 『John Steinbeck의 소설에 나타난 American Dream의 주제』.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1991.]
- \_\_\_\_\_. "Sexual Imagery in John Steinbeck's 'The Chrysanthemums' and 'The Snak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1 26.2 (2013): 201-17.  
 [「존 스타인벡의 「국화」와 「뱀」에 나타난 성 이미지리」. 『영어영문학 21』 26.2 (2013): 201-17.]
- Kim, Dong-gyu. "Freud' Melancholy Theory: The cultural disposition of the western subject." *Institute of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28 (2010): 259-287.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disposition)론」. 『철학탐구』 28 (2010): 259-287.]
- Kim, Eun-jin.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Irrationalism of the Sexuality Shown in *To a*

- God Unknown* by John Steinbeck.”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1 (2016): 243-264.  
 [김은진. 「존 스타인벡의 『미지의 신께』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배경과 비이성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7.1 (2016): 243-264.]
- Kim, Eun-jin, and Geongeun Lee. “On the Sad Stories of Schopenhauer's Sexual Will.”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1 29.3 (2016): 47-67.  
 [김은진, 이건근. 「쇼펜하우어 생의지의 슬픈 사연들에 대하여」. 『영어영문학 21』 29.3 (2016): 47-67.]
- Kim, Eun-seong. “Robinson Jeffers' View of Humanity and Ecological Consciousness.” *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9.1 (2003): 41-65.  
 [김은성. 「로빈슨 제퍼스의 인간관과 생태의식」. 『현대영미시연구』 9.1 (2003): 41-65.]
- Kim, Koo-seul. “Robinson Jeffers's Poetry and the Oriental Poetics.”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10 (2004): 107-273.  
 [김구슬. 「로빈슨 제퍼스의 시와 동양시학적 지향」. 『동서비교문학저널』 10 (2004): 107-273.]
- Kim, Won-chung. “Taoism as an Ecological Idea in the Poetry of Robinson Jeffers and A. R. Ammons.” *Studies i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14.2 (2008): 1-30.  
 [김원중. 「로빈슨 제퍼스와 A. R. 에먼즈의 시에 나타난 생태이념으로서의 도가 철학」. 『현대영미시연구』 14.2 (2008): 1-30.]
- Lee, Geon-geun. “Drawing an Analogy between Schopenhauer's Irrationalism Philosophy and Jeffers's Inhumanism Poems.” *Humanities Institute of Gangwon Univ.* 49 (2016): 107-29.  
 [이건근. 「쇼펜하우어의 비이성주의 철학과 제퍼스의 비인간주의 시」. 『인문과학연구』 49 (2016): 107-29.]
- Lee, Jeong-eun. “Schopenhauer's Love in the View of the Will-to-Live.” *Baekseok University* 8 (2007): 123-50.  
 [이정은. 「쇼펜하우어의 생의지로서 사랑」. 『기독교철학연구』 8 (2007): 123-50.]
- Lee, Seu-kyou. “Die Metaphysik des Geschlechtsverhältnisses bei Schopenhauer.” *Journal of*

-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77 (2014): 157-85.
- [이서규. 「쇼펜하우어의 정의 형이상학」. 『철학논총』 77 (2014): 157-85.]
- Park, Chan-kook. “Schopenhauer’s Metaphysical View of Desire.” *Institute of Philosophy* 36 (2010): 85-119.
- [박찬국.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욕망론에 대한 고찰」. 『철학사상』 36 (2010): 85-119.]
- Sartes, Jean Paul. *Nausée*. Trans. Mi-Seon Kim. Seoul: Chongmok, 2003.
- [Sartre, Jean Paul. 『구토』. 김미선 옮김. 서울, 청목, 2003.]
- Störig, Hans Joachim.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Trans. Min-Su Park. Seoul: Erum, 2008.
- [Störig, Hans Joachim. 『세계 철학사』. 박민수 옮김. 서울, 이룸, 2008.]
- Tournier, Michel.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Trans. Hwa-Young Kim. Seoul: Mineum-sa, 2003.
- [Tournier, Michel.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김화영 옮김. 서울, 민음사, 2003.]
- Allegretti, Joseph. “Business, Sex, and Ethics in *The Wayward Bus*.” *The Moral Philosophy of John Steinbeck*. Lanham, MD: Scarecrow, 2005. 155-67.
- Allen, Frederick Lewis. *Only Yesterday: An Informal History of the 1920’s*. New York: Harper Collins, 1931.
- Allen, Walter. *The Modern Novel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Dutton, 1964.
- Astro, Richard. “Steinbeck’s Post-War Trilogy: A Return to Nature and the Natural Ma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16.2 (1970): 109-122. Abbreviated as “SPT.”
- \_\_\_\_\_. *John Steinbeck and Edward F. Ricketts: The Shaping of a Novelist*. Minneapolis: Minnesota UP, 1974. Abbreviated as *TSN*.
- Baker, Carlos. *Ernest Hemingway: A Life 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 Beauvoir, Simone de. *The Second Sex*. Trans. Constance Borde and Sheila Malovany Chevallier. New York: Random House, Inc., 2010.
- Benson, Jackson J. *Hemingway: The Writer’s Art of Self-Defense*. Minneapolis: Minnesota UP, 1970. Abbreviated as *TWA*.
- \_\_\_\_\_. *The True Adventures of John Steinbeck, Writer: A Biography*. New York: Viking,

1984. Abbreviated as *TA*.
- \_\_\_\_\_. "John Steinbeck's *Cannery Row*: A Reconsideration." *Western American Literature* 12 (1977): 11-40. Rpt. in Steinbeck Essay Series, No. 4. Muncie: Steinbeck Research Institute, (1991): 1-29. Abbreviated as "JS."
- Benson, Jackson J., and Ann Lofits. "John Steinbeck and Farm Unionization: The Background of *In Dubious Battle*." *American Literature* 52.2 (May 1980): 194-223.
- Benton, Robert M. "'The Snake' and Its Anomalous Nature." *Steinbeck's Short Stories in The Long Valley: Essays in Criticism*. Ed. Tetsumaro Hayashi. *Steinbeck Monograph Series*, No. 15. Muncie, IN: Ball State UP, (1991): 26-31.
- Blake, Nelson Manfred. *Novelists' America: Fiction as History, 1910-1940*. New York: Syracuse UP, 1976.
- Bracher, Frederick. "Steinbeck and the Biological View of Man." *Pacific Spectator* 2 (Winter 1948): 14-29.
- Brooks, Cleanth. *William Faulkner: The Yoknapatawpha Country*. New Haven: Yale UP, 1963.
- Brophy, Robert J. *Robinson Jeffers: The Dimension of a Poet*. New York: Fordham UP, 1995.
- Campbell, Joseph, and Phil Cousineau. *The Hero's Journey: Joseph Campbell on His Life and Work*. Ed. Stuart L. Brown. New York: New World Library, 2003.
- Cassuto, David N. "Turning Wine into Water: Water as Privileged Signifier in *Grapes of Wrath*." *Steinbeck and the Environment: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Ed. Susan F. Beegel, Susan Shillinglaw and Wesley N. Tiffney, Jr. Tuscaloosa: Alabama UP, 1997. 55-75.
- Coers, Donald V., Paul Ruffin, and Robert J. Demott, eds. *After the Grapes of Wrath: Essays on John Steinbeck in Honor of Tetsumaro Hayashi*. Athens, OH: Ohio UP, 1995.
- Darwin, Charles. *The Origin of Species and The Descent of Man*. 1859 and 1871. New York: The Modern Library, n.d.
- Delphy, Christine. *Close to Home: A Materialist Analysis of Women's Oppression*. Trans. Diana Leonard. London: Hutchinson, 1984.
- Demott, Robert. *Steinbeck's Reading; A Catalogue of Books Owned and Borrowed*. New

- York: Garland, 1984.
- Ditsky, John. "Work, Blood, and *The Wayward Bus*." *After The Grapes of Wrath: Essays on John Steinbeck in Honor of Tetsumaro Hayashi*. Ed. Donald V. Coers, Paul D. Ruffin, and Robert J. DeMott. Athens: Ohio UP, 1994. 136-47.
- Eisinger, Chester E. "Jeffersonian Agrarianism in *The Grapes of Wrath*." *U of Kansas Review* 14. Winter (1947): 149-154.
- Faulkner, William.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67-1985*. Eds. Frederick L. Gwynn and Joseph L. Blotner. New York: Random, 1959.
- Fensch, Thomas. *Steinbeck and Covici: The Story of a Friendship*. Middlebury, VT: P. S. Eriksson, 1979.
- Fiedler, Leslie.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New York: Stein & Day, 1966.
- Fontenrose, Joseph. *John Steinbeck: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Barnes and Noble, 1963.
- French, Warren. *John Steinbeck's Fiction Revisited*. New York: Twayne, 1994.
- Gaither, Gloria. "John Steinbeck: From the Tidal Pool to the Stars: Connectedness, Is-Thinking, and Breaking Through: A Reconsideration." *Steinbeck Quarterly* 25 (Winter-Spring 1992): 42-52. Abbreviated as "BT."
- \_\_\_\_\_. "John Steinbeck: The Postmodern Mind in the Modern Age." *Steinbeck Review* 3.1 (Spring 2006): 53-68. Abbreviated as "MA."
- Garcia, Reloy. "Steinbeck's 'The Snake': An Explication." *Steinbeck Quarterly* 5.3-4 (1972): 87-88.
- Gide, Andre. *The Journal of Andre Gide: 1889-1949*. Trans. Justin O'Brien. New York: Vintage Books, 1951.
- Gladstein, Mimi Reisel. *The Indestructible Woman in Faulkner, Hemingway, and Steinbeck*.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1986. Abbreviated as *IW*.
- \_\_\_\_\_. "Missing Women: The Inexplicable Disparity Between Women in Steinbeck's Life and Those in His Fiction." *The Steinbeck Question: New Essays in Criticism*. Ed. Donald R. Noble. Tory, New York: The Whitston Publishing Company 1993. 84-98.



- Abbreviated as “MW.”
- Goldsmith, Arnold L. “Thematic Rhythm in ‘The Red Pony.’” *Steinbeck: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bert Murray Dav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 70-74.
- Gonzales, Bobbi, and Mimi Gladstein. “*The Wayward Bus*: Steinbeck's Misogynistic Manifesto?” *Rediscovering Steinbeck—Revisionist Views of His Art, Politics and Intellect*. Ed. Cliff Lewis and Carroll Britch. Lewiston, NY: Edwin Mellen Pr, 1989. 157-73.
- Gray, James. *John Steinbeck*. Minneapolis: Minnesota UP, 1971.
- Guillaumin, Colette. “The Practice of Power and Belief in Nature.” *Sex in Question: French Materialist Feminism*. Ed. Diana Leonard and Lisa Adkins. London: Taylor & Francis, 1996. 72-108.
- Hadella, Charlotte C. “Lonley Ladies and Landscapes: A Comparison of John Steinbeck’s ‘The White Quail’ and Eudora Welty’s ‘A Curtain of Green.’” *A John Steinbeck Reader: Essays in Honor of Stephen K. George*. Ed. Barbara A. Heavilin. MD: Scarecrow Press, 2009. 69-82.
- Hanson, Michael J.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 Ed Ricketts*. Bloomington, IN: Xlibris, 2010. Abbreviated as *TPM*.
- Howe, Irving. *William Faulkner: A Critical Study*. New York: Random House, 1952.
- Hughes, Robert S. *Beyond the Red Pony: a Reader's Companion to Steinbeck's Complete Short Stories*. Lanham, MD: Scarecrow, 1987. Abbreviated as *BRP*.
- \_\_\_\_\_. *John Steinbeck: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Boston: Twayne, 1989. Abbreviated as *SSF*.
- Hunt, Tim. “The Problematic Nature of Tamar and Other Poems.” *Centennial Essays for Robinson Jeffers*. Ed. Robert Zaller. Cranbury, NJ, 1991. 85-106.
- Janaway, Christopher. *Willing and Nothingness: Schopenhauer as Nietzsche's Educator*. Oxford, UK: Clarendon, 1998.
- Irigaray, Luce.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Catherine Porter with Carolyn Burke.

- Ithaca, New York: Cornell UP, 1985.
- Jeffers, Robinson. *The Collected Poetry of Robinson Jeffers: Vol. II, 1928-1938*. Ed. Tim Hunt. Stanford, CA: Stanford UP, 1989. Abbreviated as *CP*.
- \_\_\_\_\_. *The Selected Poetry of Robinson Jeffers*. Ed. Tim Hunt. California, Stanford: U of Stanford P, 2002. Abbreviated as *SP*.
- \_\_\_\_\_. *The Wild God of the World: An Anthology of Robinson Jeffers*. Ed. Albert Gelip. California, Stanford: Stanford UP, 2003. Abbreviated as *ARJ*.
- \_\_\_\_\_. *The Poetry of Robinson Jeffers*. Minneapolis, MN: The Big Read, 2015. Abbreviated as *PRJ*.
- Larsen, Stephen, and Robin Larsen. *A Fire in the Mind: The Life of Joseph Campbell*. New York: Doubleday, 1991.
- Lawrence, D. H. *The Letters of D. H. Lawrence*. Ed. Aldous Huxley. London: Heinemann, 1956. Abbreviated as *DHL*.
- \_\_\_\_\_. *Lady Chatterley's Lover*. London: Penguin Books, 1961. Abbreviated as *LCL*.
- Lee, Geon-Geun. "Neurotics' Sexual Complex in *The Wayward Bus*: With John Steinbeck's Biographical Facts." *Comparative Literature* 67 (2015): 211-31. Abbreviated as "NSC."
- \_\_\_\_\_.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 Ed Ricketts." Rev. of *The Philosophers of Monterey: The Untold Friendship of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 Ed Ricketts*. Center for Cross-Cultural Studies 41 (2015): 477-84. Abbreviated as "Monterey."
- Levant, Howard.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A Critical Study*. Columbia, MI: Missouri UP, 1974.
- Lisca, Peter. *John Steinbeck, Nature and Myth*. New York: Crowell, 1978. Abbreviated as *MN*.
- \_\_\_\_\_.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Brunswick, New York: Gordian Press, 1981. Abbreviated as *WW*.
- Lowe, Carmen E. "The Inhuman Imagination in Twentieth Century Poetry: From Robinson Jeffers and D. H. Lawrence to Ted Hughes and Sylvia Plath." Dissertation Abstracts

- International.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ufts U 64.2* (Aug. 2003): Section A.
- MaCarthy, Paul. *John Steinbeck*.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80.
- Magee, Bryan. *The Story of Philosophy*. London: Dorling Kindersley, 2001.
-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Ed. Front Matter. MA, Boston: Beacon Press, 1955.
- May, Charles E. "Myth and Mystery in Steinbeck's 'The Snake': A Jungian View." *Criticism* 15 (1973): 324-25.
- McMahan, Elizabeth E. "'The Chrysanthemums': Study of a Woman's Sexuality." *Modern Fiction Studies* 14.4 (1968-69): 453-458.
- Meeker, Joseph W. *The Comedy of Survival*. Tuscan: Arizona UP, 1997.
- Moss, Joyce, and George Wilson. "The Social Environment in *Of Mice and Men*." *The American Drama in John Steinbeck's Of Mice and Men*. Ed. Hayley Mitchell Haugen. New York: Cengage, 2010. 34-7.
- Nagel, James. "Brett and the other Women in *The Sun Also Rises*." *The Cambridge Companion to Ernest Hemingway*. Ed. Scott Donaldson. New York: Cambridge UP, 1996.
- Nietzsche, Friedrich. *The Gay Science*. Ed. Bernard Williams. Trans. Josefine Nauckhoff. Cambridge, UK: Cambridge UP, 2008.
- Nye, Robert A. *Sexuality*. Oxford, UK: Oxford UP, 1999.
- Owens, Louis. *John Steinbeck's Re-Vision of America*. Athens, GA: Georgia UP, 1985.
- Parini, Jay. *John Steinbeck: A Biography*. New York: Holt, 1996.
- Peters, Mathijs. *Schopenhauer and Adorno on Bodily Suffering: A Comparative Analysi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4.
- Presley, John W. "'Hawks Never Share': Women and Tragedy in Hemingway." *Hemingway Note* 3.1 (Spring 1973): 3-10.
- Railsback, Brian. "The Wayward Bus: Misogyny of Sexual Selection?" *After The Grapes of Wrath: Essays on John Steinbeck in Honor of Tetsumaro Hayashi*. Ed. Donald V. Coers, Paul D. Ruffin, and Robert J. DeMott. Athens: Ohio UP, 1994. 125-35.

- Rogers, Katherine M. *The Troublesome Helpmate*. Seattle: Washington UP, 1966.
- Rohrberger, Mary. *American Short Story, 1900-1945: A Critical History*. Ed. Philip Sterick. Boston: Twayne, 1984.
- Ross, Woodburn O. "John Steinbeck: Naturalism's Priest." *College English* 10 (1949): 423-437.
- Schopenhauer, Arthur.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ol. I. Trans. E. F. J. Payn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12. Abbreviated as *WI*.
- \_\_\_\_\_.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ol. II. Trans. E. F. J. Payne. New York: Courier Corporation, 2014. Abbreviated as *WII*.
- Schulberg, Budd. *The Four Seasons of Succes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2.
- Shapshay, Sandra.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olume 1."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University of Notre Dame. 12 Aug. 2011. Web. 20 Feb. 2016. <<https://ndpr.nd.edu/news/25451-the-world-as-will-and-representation-volume-1/>>.
- Shillinglaw, Susan. *Carol and John Steinbeck: Portrait of a Marriage*. Reno, TX: Nevada UP, 2013.
- Simmonds, Roy. *A Biograph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John Steinbeck*. Lewiston, NY: Edwin Mellen Pr., 2000.
- Simpson, Arthur. "'The White Quail': A Portrait of an Artist." *A Study Guide to Steinbeck's The Long Valley*. Ann Arbor, MI: Pierian, 1976. 11-16.
- Stanwood, Les. "Flowers for Carol: John Steinbeck, Joseph Campbell, and 'The Chrysanthemums'" *Steinbeck Review* 5.2 (Fall 2008): 87-95.
- Steinbeck, John. "A Postscript From Steinbeck."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Eds. E. W. Tedlock and C. V. Wicker. Albuquerque, NM: New Mexico UP, 1967. 307-08.
- Tedlock, Ernest W.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Ed. Cecil V. Wicker. Albuquerque: New Mexico UP, 1957.
- Thorp, Willard. *American Writing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Harvard UP, 1960.
- Timmerman, John H. *John Steinbeck's Fiction: The Aesthetics of the Road Taken*. Norman,

- OK: Oklahoma UP, 1986. Abbreviated as *ART*.
- \_\_\_\_\_. *The Dramatic Landscape of Steinbeck's Short Stories*. Norman, OK: Oklahoma UP, 1990. Abbreviated as *TDL*.
- Tyson, Lois. *Critical Theory Today: A User-Friendly Guide*. New York: Routledge, 2014.
- Valjean, Nelson. *John Steinbeck, the errant knight: An intimate biography of his California years*.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975.
- Vardamis, Alex A. "Robinson Jeffers: Poet of Controversy." *Centennial Essays for Robinson Jeffers* Ed. Robert Zaller. Cranbury: NJ, 1991. 44-84.
- Watt, F. W. *John Steinbeck*. New York: Grove Press, 1962.
- Wicks, Robert L. *Schopenhauer's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A Reader's Guide*. London: A&C Black, 2011.
- Wind and Fly, "George Berkeley." *AZQuotes*, (<http://www.azquotes.com/quote/588256> 검색: 2016. 01. 10).
- Wittenberg, Judith Bryant. *Faulkner: The Transfiguration of Biography*. Lincoln: Nebraska UP, 1979.
- Yano, Shigeharu. "Psychological Interpretations of Steinbeck's Women in *The Long Valley*." *John Steinbeck: East and West*. Ed. Tetsumaro Hayashi, et al. *Steinbeck Monograph Series*, No. 8. Muncie, IN: Ball State UP, (1978): 54-60.